



2

주체98(2009)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8(2009)년 제2호

(루계 제 736 호)

차 례

불세출의 탄생	4
장군님은 이 계절을 사랑하시네	4
21 세기 태양의 숭고한 모습을 더 깊이있게 형상하자.....	5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6
축원의 환호	7
주체문학의 대강	8
우리 아버지, 행복한 우리 집	8
깊이 새겨주신 계급적자각.....	12
하루가 새롭다고 하시며	13
고향집앞에서	13
통일아리랑	14
유쾌한 《걱정》	25

태양의 품속에서 영생하는 작가.....	26
국제친선전람관이 전하는 이야기	28
경구, 격언	29
장군님과 기업가 외 1 편	30
천지개벽에 대한 생각	31
조선속담	32
값높이 떨치라, 조선지식인의 빛나는 삶을	33
새 세기의 전변이 맺어준 인연을 두고	37
숲속의 돌배나무	39
단편소설창작에서 생활세부형상문제를 놓고	49
시화.....	50
파란비옷	5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0 뛴기념 전국문학축전 입선결과	57
소설가 리병수의 작가수업 몇토막	58
영웅과 나는 이야기하네	59
바쁜 일	60
《난 시를 아는 사람의 편입니다》	69
《역습》	69
북관대첩비는 말한다	70
동남아시아문학발전에 대한 간단한 리해	75

정약용과 그의 단편소설	76
새로운 인쇄잉크 개발	77
을밀장군과 을밀대	78
보알로의 인정미	78
《정석가》	79
보통문	79
로사의 사실주의	80

불 세 출 의 탄 생

차 승 수

이 순간을 기다려 반만년
백두는 머리가 희도록 고르고 또 골랐으리
1942년 2월 16일
새시대의 새벽을

그 요람을 마련하러 백만년
지구는 끓이고 또 끓인 용암을
세상밖으로 분출시켰으리
백두의 주추들에
고향집 기둥을 세우려고

하늘땅이 열리어
억만년
태어난 명인들은 별처럼 많아도
이런 탄생 이런 요람 그 어디에 있었던가

그이 호흡하신 첫 공기는
천년밀림이 뿜어낸 정기였고
그이 목을 추기신 첫 샘물은
하늘높이 떠올린 천지물이었어라

그이의 자장가는 천지를 진동하는
항일전의 총포성
그이의 놀이감은 지구우의 모든 원썬들을
눈앞에 당겨놓고 겨냥한
한자루의 권총과 망원경

그이는 성장하시었어라
신화속의 장수마냥
빨찌산대장 아버님과 함께
격전장을 달리시는 어머니의 말안장우에서
폭풍의 세월을 헤쳐나가며
뜻도 마음도 나래펼치며

백두의 정기를 피와 살로 체현하시고
백두의 정신을 뉘트로 불태우시며
백두의 기상을 안팎에 담으시여
백두산을 닮으신 우리 장군님

그 지성에서 빛발쳐올라
말씀의 마디마디 혁명의 등대로
세기를 밝히시여라
그 담력에서 용솟아
한마디 음성에 천만대적이 기절초풍하여라
그 기상 뻗치여
한번 손길에 산악이 옮겨지고
바다가 메여지여라

오, 위대한 **김정일**동지
흘러가는 세월과
마중오는 세월이 손을 잡고
하늘과 땅이 얼싸안고
인류의 태양을 받들어올린 력사의 날이여

가 사

장군님은 이 계절을 사랑하시네

김 창 호

백두산의 겨울과 첫 인연 맺으시여
오늘도 폭풍치는 눈보라 헤치시는가
2월의 추억을 뜨거이 불러오는
장군님은 이 계절을 사랑하시네

백두산의 겨울과 첫 정을 나누시여
눈보라 천만리에 야전복 날리시는가

빨찌산총성을 소중히 새겨주는
장군님은 이 계절을 사랑하시네

백두산의 겨울을 한평생 안으시고
붉은기 행군길을 승리로 이끄시네
선군의 총검을 더욱더 베풀주는
장군님은 이 계절을 사랑하시네

21세기 태양의 숭고한 모습을 더 깊이 있게 형상하자

뜻깊은 2월이 왔다.

지금 우리 작가들은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감을 안고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을 더 깊이있게 형상하려는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돌이켜보면 우리 작가들은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을 문학의 모든 형태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활발하게 창작함으로써 주체문학의 본색을 더욱 뚜렷이 하였으며 시대와 역사앞에 지닌 영예로운 본분을 다하고있다.

특히 우리 작가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형상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함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을 혁명의 수뇌부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주체의 사회주의를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도록 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였다.

지난해만 하여도 총서 《불멸의 향도》에 속하는 장편소설 《봄의 서곡》, 《불》 등이 훌륭하게 창작되었으며 단편소설들인 《봄향기》, 《칠보산의 봄우뢰》, 《민음의 세계》 등 많은 소설 작품들이 창작되었다. 또한 장시 《해돋이》를 비롯하여 시조 《우리의 아버지, 행복한 우리 집》, 시뭇음 《2월의 전선길》 등 수많은 시가작품들이 창작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형상한 작품들은 주체의 사회주의의 운명이시고 영원한 승리의 상징이신 장군님을 높이 칭송한것으로 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 수령홍모의 숭고한 사상 감정을 뜻깊게 심어주고있으며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의 신념을 더욱 굳게 하여주고있다.

우리는 이에 절대로 만족하거나 자만하여서는 안된다.

위대한 장군님의 형상을 창조하는데서는 아직 새롭게 탐구하고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많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작가들은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 기수로서 시대와 역사앞에 지닌 영예로운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작품의 철학적깊이를 보장하는것이다.

문학작품일반이 철학성을 구현하여야 하지만 특히 수령형상작품의 철학성을 보장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창작적요구로 나선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미학적요구를 충족시켜주며 그들이 올바른 혁명관과 인생관을 가지도록 하자면 수령형상작품의 철

학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형상하는 작품창작에서 철학적깊이를 보장하는데 탐구와 사색을 더욱 기울여야 하는것은 수령형상작품의 실태로부터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기도 하다.

아직 일부 수령형상작품들은 위대성형상에서 철학적깊이를 보장하지 못하고 력사적사실을 전달하는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있으며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사색할수 있는 형상적여운을 원만히 주지 못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결정적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형상에서 철학적깊이를 보장하는데 깊은 창작적관심을 돌려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형상에서 중요한 창작적요구는 또한 위인의 숭고한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파고드는것이다.

작품에서 수령의 위대한 인간적품모는 행동이나 대사에서도 나타나지만 보다는 내면세계를 펼쳐보여주는데서 뜨겁게 발현된다. 하나의 문제를 놓고도 사색하고 또 사색하며 행동하는 수령의 풍부하고도 심오한 내부적체험세계를 깊이 펼쳐보여주지 않고서는 수령의 위대한 인간적품모를 생동하게 드러내기 어렵다.

수령의 형상에서 어떤 결과만을 강조하고 그 결과를 이룩할 때까지의 체험세계와 심리적골목과정을 진지하게 파고들지 않으면 수령의 외적모습만 보여주게 된다.

선군혁명령도로 가장 어려운 시련을 이겨내고 강성대국건설을 승리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장정의 갈피에는 위인의 숭고한 사색의 세계가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서 우리 인민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신 우리 식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험난한 가시덤불길을 헤치시며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셔버리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내시였으며 우리 나라를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굳건히 다져놓으시였다.

참으로 그 누가 내 마음 플라주어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리라는 신념을 지니고 강계의 눈보라길, 동해지대의 삼복칠강행군길을 걸으시는 선군령장의 위대한 헌신의 자욱마다에는 우리 인민에게 다시는 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지 않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깊은 심리세계가 뜨겁게 깃들어있는것이다.

우리 작가들은 문학작품을 통하여 위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 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김정일의** 출생은 우리 일가로 볼 때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대경사였습니다. 나와 김정숙은 총포성이 울부짖는 가렬한 전장에서 조선의 남아로 래어난 **김정일의** 장래를 뜨거운 마음으로 축복해주었습니다.》

《**김정일동무의** 생가가 있는 골짜기를 소백수골이라고 부릅니다. 소백수골안은 우리 나라의 고산지대에서만 볼수 있는 뛰어난 절경입니다.》

《**김정일동무를** 민족의 영도자로 키운것은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의 투사들이 그를 향도성으로 내세워주었으며 백두산의 정기가 그의 기개로 되었습니다.

우리 혁명의 대가 굳건한것은 **김정일동무가**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나서자란 민족의 령수이 기때문입니다.》

장군님의 내면세계를 깊이 추구해들어감으로써 작품의 사상미학적감화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형상에서 중요하게 나서는 창작실천적문제는 문학의 형태적특성을 옹계 살려 형상을 창조하는것이다.

특히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칭송하는 시가문학창작에서 형상적품위를 높이는것이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고있다.

아직도 일부 시와 가사들은 해설하고 설명하며 웨치는 식으로 되어있던 지난 시기의 부족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학습제강처럼 되어버리는 폐단을 극복하지 못하고있다.

서정시는 《나의 조국》과 《어머니》, 《용서하시라》와 같이 서정적주인공의 깊은 체험세계가 개성적으로 비껴있어야 한다. 특히 선군령장의 위대성을 칭송하는 시가작품일수록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러 따르며 흠모하는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이 깊은 서정을 통하여 절절하게 울려나와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노래하는 가사작품의 시형상을 높이는데 깊은 창작적관심을 돌려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을 노래한 가사는 가요 《눈이 내린다》와 《흰눈 덮인 고향집》의 가사와 같이 표현 하나, 시구 하나에도 깊이 사색하고 음미해보며 풀이해볼수 있도록 많은 뜻이 담겨지게 비약하고 함축되어야 한다.

우리 작가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형상하기 위해서는 장군님을 절대적으로 따르고 장군님의 위인상에 매혹되어야 한다.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정치방식인 선군정치를 떠나가시며 그 어떤 만단시련도 맞받아 뚫고 나가며 선군혁명승리를 안아오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야말로 세계정치원로이시며 특출한 정치실력과 담력을 지니신 위인중의 위인이시다.

경애하는 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며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여기에 강성대국

의 빛나는 승리가 있고 장군님의 주체적문제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창작해나가는 여기에 또한 우리 문학의 찬란한 개화발전이 있다.

우리 작가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하라는대로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철석의 신념을 굳게 간직하고 주체문학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기 위한 작품창작에 심혈을 다 쏟아부어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형상에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작가의 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창작적재능은 작가의 생명이다. 특히 수령의 위대성형상작품창작은 작가의 높은 정치실무적자질을 요구한다. 수령형상작품의 성과적창작은 작가의 최대의 실력에 의해서만 실현될수 있다.

모든 작가들은 창작기량을 부단히 높임으로써 수령형상작품창작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형상작품창작을 모든 작가들이 가장 최우선적인 과제로 설정하고 여기에 모든 탐구와 사색, 열정을 기울여야 한다. 그가 소설가이든, 시인이든, 아동문학작가이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형상작품창작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평론부문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형상에서 나서는 창작실천적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제기하고 성과를 일반화하고 부족점에서 교훈을 찾으며 창작을 선도하는 평론활동을 적극 벌려야 한다.

오늘 우리 작가들은 그 어느 력사적시대, 그 어느 나라 작가들도 누리지 못했던 최상최대의 영예와 특전을 누리고있다.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을 모시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선군령도를 직접 체험하고 목격한 우리 시대 작가들처럼 행복한 작가는 없다.

모두다 21세기 태양의 숭고한 모습을 선군문학의 화폭에 형상적으로 빛나게 부각함으로써 시대와 혁명이 우리 작가들에게 부과한 영예로운 사명을 다해나가자.

축원의 환호

문 동 식

빨찌산투사들의 환희와 축복속에
솟아오르신 백두광명성

김정일장군님

그이는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을 안겨주시려
우리에게로 오신 절세의 천출위인

천지화산의 용암을 안으신듯
그이의 심장이 내뿜는 봄빛은
먹장구름도 만년장설도 다 가서버리는
가장 열렬하고 가장 뜨거운
우리 장군님 사랑의 빛발

그 봄빛을 뿌리시며
그이 가고가시는
최전선의 솟눈길, 벼랑길, 사나운 배길
끝없이 이어가시는 그 자욱자욱으로
더 뜨겁게 이 땅우에 넘쳐나는
아버이장군님의 은혜의 봄빛이어

그 봄빛에
《강성부흥아리랑》이 꽃피나고
사람들은 새 발전소언제를 쌓아간다
탄부들은 검은금 폭포를
용해공들은 쇠물의 대하를
조항간을 굳게 잡은 기관사들은
궤도우에 비약의 불꽃을 날린다

그 봄빛에
어김없이 이 땅우엔
씨앗이 움트고 오펍백과 무르익고
컴퓨터의 건반치는 아이들의 마음은
희망의 나래펴고 미래로 날은다
실버들 휘날어진 푸른 시내가에에선
청춘들이 사랑을 속삭이여라

참으로 령장중의 령장이시다
한몸으로 광풍을 다 막으시며

인민에게 보다 휘황한 래일을 주시는분
대소한의 눈보라, 삼복철의 불별도
먼저 다 맞으시며
이 땅우에 강성대국 무릉도원 일떠세워가시는
진정 그이의 사랑의 품은
봄날처럼 화창한 선군조국의 품

이 봄의 해빛을 우러러
온 남녘겨레는
장군님 흠모의 걱정을 터치고
이 봄의 열풍
대양과 대륙넘어 세차게 불고불어
이 세상 만민은 선망과 환희에 넘쳐
위대한 장군님 우러러
다함없는 축원의 환호를 올리거니

오, 희세의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이시여
백두와 더불어 영원히 높이 솟아
우리에게 더 복된 웃음과 노래만을 주시기를
북남3천리 이 강산에
더 창창한 푸른 하늘 열어주시기를
온 누리에
평화번영의 꽃바다를 펼쳐주시기를

이 간절한 소원
불타는 열망을 안고 2월의 이 아침
이 땅의 천만군민은
화산의 열화같은 진정을 터쳐
장군님께 삼가 아뢰옵니다

—민족의 운명
만민의 행복
사회주의승리의 기치이신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이시여
2월의 봄과 함께 부디 건강하시라
행성우에 봄빛만을 뿌려주시며
자주의 태양으로 길이 빛나시라

주체 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주체문학건설의 기본의 기본이다.》

《수령을 형상하는 문학에서는 정치가, 전략가, 령도의 예술가로서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수령을 형상하는 문학에서는 수령이 지닌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수령의 위대한 인간적품모를 보여주기 위하여서는 수령과 전사, 수령과 인민사이의 혈연적인 관계를 풍만한 생활로 펼쳐야 한다.》

시 초

우리 아버지, 행복한 우리 집

류 동 호

이 가슴에 새겨안은 추억도 아버지추억
세월이 안고오는 그리움도 아버지그리움
설명절이 오니 더 간절해지는 생각
생신날이 오니 더더욱 사무치게 뵈고싶은
아버지 우리 장군님

내 한생의 해와 달

우리 집, 내 나라의 행복한 세월속에
그 어느 하루도 그 품에 떨어져 산 날 없고
단 한자옥도 그 손 놓고 간 길은 없어
고마움에 젖고젖은 이 아들의 노래를
저 멀리 전선길의 최고사령부에 계시는
아버지장군님께 삼가 드리노라

우리 아버지

아버지!
장군님을 우러러
그 이름 불러보면
나이도 마음도
웅석받이처럼 천진해져
숫구치는 기쁨속에 다시 부르는
사랑하는 그 이름

아버지!
그리운 그 모습 생각하면
환하신 그 미소 그 숨결
해빛처럼 공기처럼 이 마음에 흘러들어와
해종일 곁에 계시며
몸과 마음 후답게 어루쓸어주는
그 손길 따뜻해라

나이가 들고 철이 들수록
그 품에 더 꼭 껴안고 정을 주고
더 다심하게 보살펴주는 아버지
그결을 떠나선 한순간도 못살아
그 손길 놓고선 한걸음도 못 가
한생의 전부를 맡기고 따르는 아버지

하나의 작은 일 해놓고도

남먼저 아버지를 찾으면
그리도 기뻐하며 큰 복을 더해주시고
때로 잘못을 저지르고 그앞에 서면
아픈 마음을 드시고 그리도 가슴아파하시며
더 큰 믿음을 안겨주시는 아버지

그 정에 마음 끌리어
아버지라 부르며 따르노라
그 인덕에 매혹되어
한생 바쳐 그 뜻을 믿고 받드노라
아버지!
인민의 정찬 부름으로
그 이름 울려가는
우리 집, 우리 공화국의 하늘과 땅
이 세상에 오직 하나 사랑의 세계여

고난이 무엇이라
광풍이 무엇이라
전선길에 야전복자락 날리며
다 막아주고 다 가세주는
우리 아버지는 백두령장
우리 아버지는 신군령장
그이 없이는 못사는 천만인생들
달리는 부를수 없는 아버지란 그 부름이

우리 생활에 심장처럼 귀중해졌구나

그 부름속엔
어머니란 말
정든 고향집이라는 뜻
당이라는
조국이라는 그 의미가 다 있거니

아버지가 없으면
우리는 노예운명
기둥이 없는것과 같은것
하늘이 없는것과 같은것
태양이 없는것과 같은것

천하제일명장
아버지를 높이 모시여
날마다 창창히 들리는 우리의 푸른 하늘
그 어떤 풍파에도 끄떡없는
행복한 우리 집
우리의 사회주의대지
부장번영하는 우리 조국이어

우리 인민을 력사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승리의 상상봉에 최강자로 올려세운 아버지
사랑의 세계 사회주의 우리 집을
강성대국 큰 집으로 일떠세우시는
우리의 아버지 **김정일**장군

그이는 아버지
한없이 고마운 그 부름
이 세상 천만 아버지 천만 어머니
그 모든 사랑 다 모으고 다 합친
한마디 그 부름
아, 장군님은 우리 아버지!

자나깨나 그 이름 부르며
이 나라 천만 아들딸들은
행복도 운명도 미래도 그 품에 다 맡기고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버지
언제나 기쁨속에 모시고
영원토록 행복속에 받들리
아, 우리의 아버지 **김정일**장군님!

우리 집 재부

한추녀를 잇고
한지붕아래 사는
여느집과 다름없는 우리 집엔
한없이 소중한 재부가 있다

부모들이 물려준
가보도 아니여라
유산도 아니여라
그것은 선군시대에 우리 장군님 안겨주신
영광의 기념사진

단란한 한가정의 식솔처럼
장군님을 가까이 모시고 찍은 그 사진
이 아들의 행복한 모습 웃는가, 우는가
우르르면 환하게 웃으시는 장군님
아, 태양은 그 언제나 우리 집에 머물러있는듯

하루에도 그 몇번 다시 보고 또 보며
내 삶의 위치를 새겨안노라
그리고 묻노라
파연 내 그이결에 설 자격이 있는가
오늘은 무슨 일을 해놓고 그이결에 섰는가

나에겐 제일 행복이더라
우리 장군님 가까이에서
그 축복속에 사는것이
나에겐 제일 멋이며 보람이더라
그 슬하에서 날마다 성장하며
힘껏 바쁘게 일하는것이

장군님의 선군혁명동지로
자기 본분을 다하게 하고

자식으로서 제구실을 다하게 해주는
내 심장의 열원
내 삶의 원천
사랑의 기념사진

먼 후날 후대들에게
선군시대 아버지세대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땀땀하게 긍지높이 전해줄 한생의 재부
이 세상 그 어느 억만장자도 부럽지 않는
천하제일 가보가 우리 집에만 있던가

장군님 다녀가신
이 땅의 거리와 마을들
그림같은 새집에 새살림을 편
그 어느 제대군인집의 문을 열어보아도
공장파 농장마을 그 어느 집에 들러보아도
소중히 가보로 안고 사는 사랑의 기념사진이어

모시고 찍은 아버지는 한분
안기여 찍은 자식들은 천만
사진속에 웃고있다 행복한 모습들이
이 아들만이 아닌
최전연의 미더운 병사들도
산골마을의 낮익은 관리위원장도

아, 그 모습들은 말하고있어라
아버지의 한품속에 안겨
인민이 모두 친혈육의 정을 나누며 사는
크나큰 사회주의 우리 집
선군시대 대가정의 모습이 비친 기념사진은
장군님식솔의 제일재부이라고

사 랑 이 먼 저 오 는 집

우리 집 문을 두드립니다
평양에서 머나먼 초소에 선
전연중대 병사 딸에게서
편지가 왔다고 알려주는
인민반장의 정다운 그 목소리

오늘은 또 무슨 희소식일까
두툼한 편지의 구절구절 가슴칩니다
어제는 화면이 큰 텔레비존을 보내주시더니
오늘은 또 새 옷가락까지 안겨주신 그 사랑
그 사랑속에 흘러가는 군사복무의 나날
장군님을 우러르는 그리움은
날마다 더해만 간다는 그 진정

딸애의 소식에 기뻐 웃는데
우리 집의 복은 쌓으로만 찾아오는가
또 우리 집 문 두드립니다
장군님과 함께 찍은 아들의 모습이 실린
신문을 안고 온 우편통신원의 반가운 목소리

이것이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아직 나라앞에 공도 없는 보통병사
내 아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환하게 웃으시는 장군님 모습
어쩌면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은
시내물 바다에 모이듯이
후방가족 우리 집으로만 흘러드는것입니까

일년 삼백여순다섯날을 전선에 계시며
하루같이 부어주시는 햇빛같은 사랑
병사들의 마음속을 속속들이 비쳐

아들딸 군대에 내보낸 집들엔
날마다 경사에 경사만 겹칩니다

고향집 어머니보다 더 다심하신 사랑으로
초소살림 병사생활 돌봐주시는 아버지
최전연병사들의 근무공간식까지
녀병사들의 모기크림까지
정깊게 정깊게 보살펴주시오니

아, 선군시대 제일 행복한 집은
우리 인민군대 후방가족입니다
전선천리에 계시는 아버지장군님 사랑이
제일 먼저 찾아오는 집은
아들딸을 군대에 내보낸 집입니다

아들딸 군복입혀
아버지장군님품에 다 맡긴 집
날마다 그 사랑이 먼저 찾아오는 우리 집
무심치 않습니다 창밖에 까치가 울어도
이제 또 무슨 사랑 찾아오려나?!...

금시라도 우리 집 문 두드릴것만 같습니다
딸의 중대에
장군님 오셨다는 제일 반가운 소식
그 소식이 우리 집 문을 두드릴것만 같습니다

아, 사랑이 우리 집 문을 두드립니다
사랑이 우리 집을 찾아옵니다
행복넘친 오늘
그리고 또 기다리는 래일도...

한 우 산 아 래 서

해종일 해빛에 실려오던 사랑이
창밖에 송이송이 함박눈 실려오는 밤
텔레비존앞에 마주앉았는데 가슴뭉클 적시며
환하신 아버지의 그 영상 안겨오네
우산을 쓰시고 현지지도를 하시는 그 모습

오늘도 눈에 삼삼 어려오는
지난해 《삼복철강행군》이여
소낙비 쏟아지던 그날에
장군님은 영예군인의 팔을 끼시고
영예군인은 장군님의 손을 꼭 잡고
장마비를 헤쳐간 그 구내길
그 우산 아래로 내 마음도 들어섰네

텔레비존에선 그날의 비가 내리고
우리 집 창밖에선 눈이 내리는데
이 가슴을 세차게 두드리는 비방울소리
비발속에 정겨이 울려오는 아버지의 음성이어
최고사령관이야 비를 좀 맞으면 뭐라는가

영예군인이 비를 맞지 말아야지...

한우산아래서 뜨거이 오고간
친혈육의 그 깊은 정이여
장군님의 야전복은 비물에 젖고
영예군인의 옷자락은 눈물에 젖고
나의 두볼을 뜨거운 눈물에 젖게 하는
그날의 소낙비 소낙비

생신날에도 명절날에도
세월의 눈비바람 다 헤쳐오신 장군님
사랑하는 인민의 머리위에
눈비가 내릴가 불구름이 덮일가
한평생 빨찌산 야전장군으로 사시는 그 마음이
우산이 되고 지붕이 된 내 나라

사랑의 그 우산 아래서
눈비를 모르고 우리 집 행복이 꽃폈구나
사랑의 그 지붕아래서

불구름을 모르고 우리 인민이 살고있구나

비가 내려도
그 사랑의 우산아래
사랑이 햇빛같이 내리는 우리 집
눈이 내려도
그 사랑의 하늘아래

행복이 봄꽃같이 피어나는 내 나라

눈물젖은 나의 눈엔
그 우산이 내 나라의 하늘처럼 보였네
한지붕아래서 선군덕을 누리며 사는
장군님식솔의 머리에 펼쳐진
사회주의 내 나라의 푸른 하늘처럼...

행복의 세가지 조건

나는 늘 가슴에 안고사노라
자강도사람들의 행복의 세가지 조건
이제는 우리 집의 삶의 좌우명으로 된
강제정신창조자들의 삶의 본태를 말해주는
행복의 세가지 조건

내 고향 민요처럼 정답게 새겼어라
태를 묻은 자강땅에서
산촌마을 토배기들이 들려준 그 말
행복의 세가지 조건에 대한
진정에 넘친 그 이야기

그 어느 구내길에선가
공장대학 동창생 그 친구가
내 손 잡고 스스럼없이 하던 말
그 어느 발머리의 휴식참에
농민처럼 푸수한 당일군이 하던 그 이야기
자강도사람들의 행복의 세가지 조건

첫째로 장군님 그리움에 사는것
둘째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는것
셋째로 장군님 모시는 그날에 사는것

아, 누구나 한목소리, 한눈빛으로
하나같이 생활의 일과로 삼은 그 신조
우리 장군님 오실적마다 새것을 보여드리고

락원의 별천지를 펼쳐드리며
장군님과 뜨거운 정을 맺은 사람들

그 불타는 그리움은 나의 숨결
그 불타는 지향은 우리 집 식솔의 좌우명
고난의 언땅위에 행복의 씨앗을 뿌려가꾼
시대의 선구자들의 체험의 철학이
참된 삶의 강의로
나의 가슴에 끝없이 울려오누나

—장군님 그리움에 살자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자
장군님 모시는 그날에 살자
장군님의 선군혁명동지로
그이와 생사운명을 함께 하고
뜻을 같이하는 길에서
순간도 잊지 말고 간직해야 할
선군시대 사람들의 인생관, 혁명관이어

이 행복의 세가지 조건을
한생의 걸음걸음 준칙으로 삼고
아버지를 따르며 받들며 기다리는
선군시대의 우리 병사들과 인민들
누구나 행복의 절정에 오르리라
선군혁명의 최후승리자가 되어
강성대국 큰집에서 만복을 받아안으리라

우리 장군님 건강하십시오

우리 장군님 건강하시면
하늘이 맑게 개입니다
대지엔 꽃잎들 싱싱합니다
강산엔 뭇새들 지저귀니다

우리 장군님 건강하시면
새날의 창문들 기쁨속에 열리고
출근길의 걸음들엔 나래가 돋힙니다
일터에서 나누는 인사는 정답고
공장마다 비약의 불길 타오릅니다
전야마다 오탁백과 주렁집니다

우리 장군님 건강하시면
생활의 시계는 정시로 돌아
집집엔 화목한 웃음소리 넘치고

아이들은 쑥쑥 빨리도 큼니다
텔레비죤에서 울려오는
《강성부흥아리랑》도 더 흥이 납니다

우리 장군님 건강하시면
백배로 솟구치는 열정과 신심에
뜨거운 피가 뿜입니다
고생도 락으로 여겨지고
세상만사 즐겁고 좋게만 보입니다

우리 장군님 건강하시면
고지마다 최고사령관이 더 높이 날리고
집집마다 노래소리 넘쳐납니다
강성대국대문이 열리는 소리
지척에서 흐뭇이 들려옵니다

깊이 새겨주신 계급적 자각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은 그것을 해 치려는 원수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과 떼어 놓 고 생각할 수 없다.

해방후 자라나는 새 세대들의 가슴속에 계 급적자각을 깊이 새겨주어 그들로 하여금 새 조 국 건설의 역군으로 튼튼히 준비하도록 따듯 이 손잡아 이끌어 주신 항일의 녀성 영웅 김정숙동지의 모습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 높은 애국열의와 더불어 위대한 선군시대에 더 욱 빛나고 있다.

주체35(1946)년 정초 어느날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께서는 녀성항일혁명투사들과 자리를 같이 하시였다.

그 뜻깊은 좌석에는 여러명의 청소년들도 있 었다.

녀투사들은 항일전의 나날에 있는 가지가지의 일들을 회고하였다. 그러다가 조용히 노래를 부 르기 시작하였다. 《토벌가》였다.

그때 한 학생이 김정숙동지께 노래를 배워 주시였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학생의 청을 기꺼이 들어주 시였다. 그러시고는 천천히 가사를 불러주시 었다.

이어 김정숙동지의 선창에 따라 학생들은 노 래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처녀애들은 비감에 잠 겨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들에게 이 노래는 부닥친 참변앞에서 눈물만 흘릴것이 아니라 눈물을 거 두고 새로운 삶의 길, 투쟁의 길을 찾아서 싸워 나가자는것을 호소하고있다고 하시면서 노래 는 슬픈 감정을 밑에 깔면서도 그것을 의지의 힘 으로 이겨나가는 혁명가의 신념이 넘쳐나게 불 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후 어느날 김정숙동지께서는 이 노래를 자 주 부르는 한 학생에게 자신께서도 피눈물에 젖 었던 지난날을 잊을수 없어 이 노래를 자주 부 른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왜놈들은 나라를 잃고 살길을 찾아 이국땅 으로 간 우리 동포들을 마구 죽였다, 온 동만땅 이 피바다에 잠기고 집을 잃고 혈육을 빼앗긴 동 포들의 원한에 찬 울부짖음으로 차고넘쳤다, 노 래에도 있는것처럼 돈이 없고 무기 없는 우리 민 족은 총에 맞고 칼에 찔려 쓰러지군 했다, 우리 는 왜놈들의 이 치떨리는 만행을 한시도 잊어서 는 안된다. ...

김정숙동지께서는 계속하여 **김일성장군**님께서 늘 말씀하시는것처럼 우리 청년들은 피바다에 잠겼던 지난날의 조선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 시면서 오늘 남조선에는 왜놈들을 대신하여 미 국놈들이 기여들었다, 우리는 망국노의 쓰라 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모두가 떨쳐 나셔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그러시 면서 청년들에게 노래를 배워주면서 이런 뜻 을 깨우쳐주어야 한다고, 피바다를 잊지 말라, 남조선에 기여들어 또다시 우리 민족을 식민 지노예로 만들려는 미국놈들을 반대하여 싸워야 한다는 뜻을 깊이 심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 시였다.

피바다를 잊지 말라!

또다시 노예로 살지 않으려거든 착취받고 압 박받던 지난날을 절대로 잊지 말고 계급적원 쫓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는 삶 과 투쟁의 고귀한 진리를 역사에 새기신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의 그날의 말씀은 오늘 도 천만의 우리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조 해 경

선군혁명승리의 총진군이 우렁칩니다

우리 장군님 건강하시면
이 세상에 두려운것 없어
배심은 더욱 든든해지고
강성대국 아침노을 향해 줄달음치며
어머니조국에 심장을 바치고싶은
애국의 열망 불타오릅니다

우리 장군님 건강하시면
태양아래 땅이 있고
태양아래 만물이 꽃피고 열매맺듯이

우리의 행복은 영원합니다

이것은 절대불변의 삶의 법칙
우리 운명의 철리입니다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략관입니다

아, 우리 장군님 건강하시면
선군조선은 영원토록 무궁번영하리니
우리 삶의 태양, 운명의 태양, 행복의 태양이시여
인민을 위해 조국을 위해 건강하십시오
우리의 아버지 **김정일**장군이시여
부디부디 건강하십시오

하루가 새롭다고 하시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력사에는 자신의 탄생일도 쉬지 않으시고 불면불휴의 로고를 다 바치신 이야기들이 수많이 기록되어있다.

아래의 이야기도 그중의 하나이다.

주체71(1982)년 2월 16일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한 일군을 찾으시어 모란봉경기장(오늘의 **김일성**경기장) 개건확장공사장으로 나가자고 말씀하시였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의 다함없는 축원속에 탄생일을 맞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날만이라도 편히 휴식하실것을 간절히 바라던 일군은 놀라운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뜻밖의 말씀에 어떻게 할지 몰라 망설이는 그를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벌써 그의 심정을 헤아리시고 시간이 없으니 어서 빨리 가자고 독촉하시였다.

그 일군은 그때에야 마음을 진정하고 모란봉경기장 개건확장공사장에 나가시는것을 래일로 미루고 오늘은 좀 쉬셔야 한다고 간절히 말

씀드렸다.

그러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휴식을 래일로 미루면 미루었지 이미 계획한 일이야 어떻게 미루겠는가고 하시면서 모란봉경기장 개건확장공사를 위대한 수령님 탄생 70돐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끝내자고 하는데 하루가 새롭습니다, 모란봉경기장을 최상의 수준으로 꾸려놓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자고 합니다, 그러면 수령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나는 수령님께서 만족해하시는 모습을 볼 때가 제일 기쁘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아버이수령님의 혁명사적이 아로새겨져있는 모란봉경기장을 력사에 길이 전하며 보다 훌륭히 일떠세우실 위대한 구상을 지니신 절세의 위인의 철의 의지가 빛발치는 참으로 뜻깊은 말씀이시였다.

결국 만민의 다함없는 축원속에 쇄셔야 할 뜻깊은 탄생일도 경애하는 장군님께 있어서는 평범한 날들의 하루로 지나게 되였다.

고향집앞에서

리명옥

이깎술향기 슴배인

저 키낮은 자그마한 통나무상이였습니다

삶은 언 감자 몇알이 전부였던

아드님의 첫돌생일상이

눈곱이 젖어듭니다

나도 자식가진 한 엄마일진대

어머님이라고 어찌

우리 민족 대대로의 즐거운 풍습대로

백설기, 수수경단...

돌상차림 그렇게 하고프지 않으셨겠습니까

간고한 나날이여서

피어린 항일전의 나날이여서

우리 어머님

사랑하는 아드님께 주실수 있는것이

정녕 그뿐이었던 말입니까

이 나라 어느 농가에서나 볼수 있는

그런 수수한 감자 몇알...

그리고 아드님을 품에 꼭 안으시고 부르신

정깊은 《사향가》—

아, 그날

따뜻한 귀틀집의 들창가너머로

태고의 정적을 깨치며

빙설천지에 봄빛안고 그윽히 울려간 노래

그 노래에 정답게 실려온

맑은 시내 돌돌 흐르는

아름다운 만경대... 물결푸른 대동강...

그것은 빨찌산의 어머님이

백두의 아들에게 안겨주신 조국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주실수 있는 모든것을

백두의 그날에 벌써 다 주신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 어머니들의 사랑을 다 합쳐도

따르지 못할 그것은 백두산 어머님의 축복

혁명의 거세찬 폭풍우속에서

조선의 장군을 억세게 안아키우시는

위대한 빨찌산 어머님의 모성애

아, 고향집앞에 삼가 머리숙이고

어머님의 그 뜻을 다시 새겨봅니다

삶은 언 감자 몇알과

추억깊은 《사향가》...

그리고 내 조국의 어제와 오늘...



리 령 철

1

아까부터 정원숲속 어디선가 이른새벽의 고요한 정적을 흔들며 못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마지막 문건을 덮고 눈길을 드시었다. 겹쌓인 피로를 푸시느라 창가에 서서 새벽풍경을 내다보시던 그이께서는 얼핏 시계를 들여다보고나서 집무탁에로 돌아오시었다. 송수화기를 들어 책임서기를 찾으시었다. 그에게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담당한 문화성의 책임일군을 부르도록 이르시었다.

조금 지나서 성대가 잘 울리는 목소리가 수화구에서 들리었다.

《이른새벽에 안됐습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먼저 양해를 구하시었다.

《요즘 바깥정세가 몹시 복잡하겠는데 그레 〈아리랑〉 공연초청사업이랑 어떻게 하고있소?》

《잘돼가고있습니다.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아리랑〉 국가준비위원회는 지금 작품의 완성공정과 대외선전을 동시에 추진하고있습니다.》

책임일군은 이어 공화국에 체류중인 대륙별, 나라별 방문단들을 설명해드리면서 특히 남조선과 해외에서 조직된 동포방문단들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리었다.

《그런데 그들중에는 이번에 조국에 왔다가 생사를 모르던 가족, 친척, 친구들을 만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며칠전에는 미국에서 온 한 교포음악가가 〈아리랑〉 창작가들중에 자기 옛친구가 있다면서 해외동포사업국에 상봉시켜줄것을 정식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아리랑〉이 시작부터 팬클럽만. 좋은 징조요. 한데 그 사람의 친구라는 동무는 누구니까?》

《〈통일장〉 담당안무가 림진우동무입니다. 그 교포음악가의 이름은 전상음이라고 전에…》

전상음이, 음악가, 사색은 한순간 지나간 세월의 갈피들을 빠르게 번지다가 한곳에 멈춰섰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미소를 지으시었다. 10여년 전에 림진우에게서 들은 기억이 나시였던것이다. 그때 림진우는 친구때문에 빚어진 불행을 말씀드리며 얼마나 괴로웠던가.

《아, 그렇지. 전상음이라, 내 진우동무에게서 그의 말을 들은적 있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침내 왔다는거군. 만나보았답니까?》

《죄송합니다. 장군님, 제 미처… 림진우동무한테 인차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일없소. 아마 만났겠지. 옛친구가 아니요!》

그렇다, 만났을것이다. 림진우, 원래 안목이 넓고 정에 어린 사람이니 처음에는 괴롭겠지만 나중엔 받아들일것이다. 아픔이 가서지면 필경 소꿉시절로 돌아갈것이고, 그다음엔 풀밭에 드러누워 부드러운 황혼이 비껴 때까지 회포를 나눌것이다. 아니, 둘다 예술가이니 청을 돈구며 예술담을 나눴을지도 모르지. 무등 자신의 일처럼 기쁘시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송수화기를 바꿔들며 본화제로 들어가시었다.

《내 줌전에 동무들이 CD원판에 수록하여 올려보낸 〈통일장〉의 대본을 보았습니다. 동무를 찾은것은 〈통일장〉 대본때문인데 원동무, 하나 묻지요. 동무보기엔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오?》

《…》

수화구에서는 정적이 흘렀다. 한동안 지나서야 일군은 대답드리었는데 목소리는 어떤 중압감에 눌리운듯 하였다.

《사실 〈아리랑〉 국가준비위원회사업은 지금 그 통일장때문에 전진하지 못하고있습니다. 몇달전부터 대본창작을 시작했는데 그 어간에 벌써 세번씩이나 공회전을 하였습니다. 모든것은 장담담당안무가인 림진우동무에게 달렸는데 어떻게 된

셈인지 이번에는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준비위원회에서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려고 그 세 번째 대본을 올렸습니다.》

《세번째라.》

그이께서는 송수화기를 고쳐주시었다.

《혹시 림동무의 건강상태가 나쁜건 아니요?》

《일없습니다. 원기도 왕성하고 전처럼 아침 운동도 정상적으로 하고, 그저 작품때문에 고민할 뿐입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얼핏 벽시계를 쳐다보고 나서 말씀을 이으시었다.

《진우동문 지금 집에 있겠구만. 어쩐다? 본인의 얘길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그 동무는… 작품창작때문에 5월1일경기장에서 침식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군은 그이의 심중을 짐작했는지 이제 30분후이면 림진우가 새벽달리기를 하는데 자기가 가서 먼저 알려주고 준비를 시키겠다는 것이었다.

《아니, 그만두오. 본인을 만나는건 내 다시 대본을 보고 결심하겠습니다.》

일군을 만류하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송수화기를 놓으시었다.

창밖의 희부연 색조는 더욱 밝아지고 외롭게 들리던 못새의 울음소리가 이제는 하나의 무리를 이루며 새벽기운을 완연히 느끼게 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쏘파등받이에 깊숙이 묻으셨던 옷몸을 일으키며 CD원판을 손에 드시었다. 곧 컴퓨터화면에 《분별의 장벽을 짓부시고》라는 장제목이 나오며 모의화면들이 흘러가기 시작했다. 장내용은 대체로 이러하였다.

통일가요의 선율이 울리는 속에 암전이 해소되면서 분홍색, 노란색, 미색저고리를 입은 출연자들이 등장하여 백두산과 한나산을 배경으로 춤을 추다가 맨 마감에 붉은색의상으로 바꾸며 바닥천체에 거대한 붉은색 조선지도를 그리는 것이었다.

두번째로 보시였지만 처음의 인상과 다른 것은 작품대본이었다. 물론 대본에는 창작가의 노력이 웅당하게 깃들어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수단과 표현방식에서의 혁신적인 지향에 국한된 것이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 21세기에 우리 민족의 운명개척과 자주적발전에 도움을 줘야 할 문제에 대하여 극히 추상적으로 형상되어있었다. 작품대본을 2000년 한해에 고착시키고 이해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변들을 그루박아 재현시켜놓은것만 봐도 잘 알수 있었다. 물론 작품의 시공간무대를 한해에 고착시켜 형상할수도 있다. 그러나 생경한 정치적 구호나 웨침을 가지고 관람자들의 심장을 움직일 수 있단 말인가.

그이께서는 천천히 탁우에 손을 뻗쳐 록음기단 추를 누르시었다. 집무실에는 관현악 《청산별에 풍년이 왔네》의 음악이 울리었다. 인차

김정일동지께서는 작품세계에 깊이 잠겨드시었다.

어데라없이 젓빛안개에 묻혀있는 전원, 눈부신 아침노을, 선물은 농촌마을의 새벽서정을 넘어 진군의 전야를 알리는듯 한 민족타악기와 현악기의 화답소리를 계기로 커다란 폭을 가지고 박력있게 흘러갔다.

각이한 의미를 가진 선물들의 도도한 흐름이다. 휘몰아치는 리듬에 떠받들려 선풍을 일으킨다. 선물은 아득히 치솟은 계곡들, 절벽들을 치달아오르기도 하고 용용히 사품치는 대하의 모양을 편상시키기도 하다가는 오후해빛이 내려앉아 노니는듯한 살찐 가을의 풍만한 대지를 표현하기도 했다.

어느덧 작품은 현악기들과 금관악기들의 선물이 격렬하게 교차되며 충주제를 주고받는 마지막부분에 이르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저도 모르게 옷몸을 약간 드시며 선물에 귀를 기울이시었다. 매번 이 대목에 이를 때면 그이의 심중은 이름할수 없는 환희와 열렬한 공감으로 끓어번져 애정이 북받치곤 하시었다. 서주부에서부터 풍기는 구수하고 친근한 느낌, 작품전반에 일관하게 흐르는 통강기나리의 구성진 가락이며 풍년가의 흐들떡진 선물, 줄기찬 휘모리장단들이 그려내는 새벽풍경, 전원묘사, 로동장면들과 같은 그 모든 회화적화폭들이 이 부분에 와서는 하나로 합쳐지며 하늘로 나래치는 천리마의 군상이 환히 보이였기때문이다.

그랬다. 표현수단에 있어서 추상성이 다분한 음악예술도 이렇게 시대를 감득할수 있는 회화적화폭을 충분히 펼치는데 예술의 그 모든 표현방식을 마음대로 리용하여 사람들을 공감시킬수 있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창작자인 진우는 왜 작품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었다.

림진우, 자신도 모르게 답답해나신 **김정일**동지께서는 팔걸이에 엮은 왼팔에 몸을 비스듬히 기울이며 의문이 질게 배인 긴 숨을 조용히 내쉬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 진우를 처음 만나보신것은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준비하던 때였다. 그때 그이께서는 어느 소회의실에서 진우가 맡은 개폐막장을 도해로 그려가지고 설명하는것을 들으시면서 높은 충실성을 안고 당이 준 과업을 수행한 그의 깨끗한 정신세계를 들여다보시였고 넓은 예술가적안목을 느끼시었다.

설명이 끝난 뒤 **김정일**동지께서는 진우를 따로 만나시어 장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이께서는 그날 참으로 의미심장한 충격을 받으시었다.

굽이굽이 고개도 많았고 험한 령도 많았던 그의 경력을 들으면서 림진우라는 한 인간의 인생사에 민족분열의 력사가 비껴있다는것을 느끼시였던 것이다. 그런데 그런 체험을 한 진우는 어째서 작품을 이렇게밖에 만들수 없었는가.

김정일동지께서는 송수화기를 들어 책임서기를 찾으시었다. 자신의 오늘 일정을 확인해보시니 진우를 만나볼 시간은커녕 조언을 줄수 있게 대본을 연구해볼 짬시간조차 없으시었다.

마침내 결심을 내리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책임서기에게 차를 준비하도록 이르시었다.

2

김정일동지께서 타신 차가 룡라도에 도착한것은 희푸르스름하던 문수벌 끝자락이 연황색기운으로 물들기 시작할무렵이었다. 룡라다리를 내려서자 운전사는 그이께서 알려주신대로 섬 번두리를 에워싼 룡환선도로를 따라 차를 몰아갔다.

정구장을 지나 이전의 백은탄부근에 이르렀을 때 앞시창너머로 담청색운동복차림을 한 어떤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다. 눈여겨보시니 림진우였다.

진우는 머리를 수그린채 꺼꺼부정해가지고 어째서인지 느릿느릿 걸어가고있었다. 경적을 몇번 울려서야 돌아보았는데 얼굴에는 번민의 표정이 질게 어려있었다. 인차 그것은 놀라움으로 뒤바뀌었다.

승용차에서 내리신 **김정일**동지께서는 황황히 인사를 올리는 그에게 다가가시었다. 그이께서는 진우의 손을 다정히 잡으며 인사를 나누고 그의 건강을 넘려해주시었다.

《허, 림동무. 옛사람들이 이르기를 하루사업의 성과는 첫아침의 기분상태에 있다는데 이 좋은 새벽에 왜 그리 얼굴색이 좋지 못하오. 환절기에 혹시 몸에 이상이 생긴건 아닙니까?》

《장군님, 고맙습니다. 장군님께서 늘 넘려해주신 덕분에 전 이렇게 오룩이 성성하고 모든게 무탈합니다. 그저 작품때문에, 제 앞치리를 바로 못해서 그렇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진우에게서 시선을 떼시었다. 그의 말을 들어보니 방금 시창너머로 본 림진우의 바르지 못한 거동이며 얼굴에 내비친 기색이 리해되시었다.

《동무의 〈통일장〉을 나도 보았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진우의 팔굽을 가볍게 잡으시었다.

《내 오늘 여기 나온것도 그 작품때문이니 우리 저기 유보도 휴식터에 내려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떻소? 시원한 강바람도 쏘일겸.》

조금 지나서 림진우로부터 그가 추구했던 작품의 의도에 대하여 들으시는 **김정일**동지의 안팎에는 착잡한 빛이 어리고있었다.

《그러니까 력사발전을 주도하는 우리 공화국이 있음으로 해서 민족의 분렬은 끝장날수 있다, 이것이 〈통일장〉에서 말하려는 기본주제이겠소? 옳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이께서는 머리를 저으시었다.

《한데 감흥이 잘 오지 않습니다. 통일을 하자면서 추상적이고 주관적이거던. 장전체에 관통되어있는 환희나 걱정같은 감정양상을 봐도 그래, 조선지도를 모두 붉은색으로 형상한것도 그렇고, 아무리 장표현방식이 함축과 비약이 기본이라고 해도 만사람을 공감시킬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야 하지 않겠소.》

김정일동지께서는 엇가로 낀 팔을 풀며 계속하시었다.

《잘 안되었습니다. 왜 이 장이 잘 안되었는가. 나는 〈통일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림진우는 들고있던 수첩에 원주필을 박았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통일장》에 내포되어있는 단점들을 지적하면서 때로 물음을 제기하시였으며 진우의 대답에 긍정을 표시하기도 하고 머리를 저으시기도 하였다.

고요한 이른새벽의 유보도휴식터에는 국내외의 정치정세며 예술의 제문제들을 두고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김정일**동지의 음성으로 짝 차는것 같았다.

《때문에 왜 이렇게 되었겠는가는 리해가 됩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것을 가지고 우리 민족의 녀를 흔들수 있겠는가? 없소. 〈통일장〉이 옳게 되자면 탐구를 더 해야 합니다. 〈아리랑〉과 민족의 력사에 대하여. 내 말이 리해가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장군님, 제 그 뜻을 새기고 탐구를 깊이 하겠습니다.》

《진우동무가 리해했다니 마음이 놓입니다. 〈통일장〉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할것 같습니다.》

믿음에 찬 음성으로 그를 고무해주고나신 **김정일**동지께서는 화제를 바꾸시었다.

《참, 내 잊었는데 좀전에 듣자니 전상음이라고 미국에 있는 옛친구가 왔다는데 만나보았습니까?》

《...》

《왜? 무슨 일이 있었소?...》

여전히 말없이 머뭇거리는 림진우이다.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으나 그것은 **김정일**동지로 하여금 실망을 금치 못하시게 하였다.

《그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뒤이어 솟아오르는 의혹, 그래도 처음의 기대가 너무나 커서인지 좀처럼 믿기 어려우시었다.

휴식터란간에 손을 얹으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용히 설레이며 무수한 버들잎모양을 그리는 수면을 응시하다가 진우에게로 돌아서시었다.

《전에 얼핏 들었었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한 일인줄 몰랐구만. 진우동무, 좀 들어봅시다. 무슨 연고로 옛친구와의 상봉을 거절하게 되었는가 그걸 말ियो.》

이윽고 림진우는 말씀드리었다. 처음에 그의 어조는 침착하였으나 차츰 떠듬거리기도 하고 의분

에 넘쳐있기도 하였으며 지어 분노에 떨기까지 하였다.

전상음, 그는 진우와 소꿉시절 동무이기도 하고 같이 고생하면서 예술가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기도 하다. 고구려무악전수차로 일본에 갔던 아버지가 간포대지진때 조선인대학살에 걸려 무참히 돌아가고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도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뜨자 진우네 집에 와 살면서부터는 쌍둥이형제나 다름없는 사이이기도 했고.

그 시절 진우네 가정은 어쩌보면 전상음이 하나를 위해서 산것이나 다름없었다. 서울에서 물지게장사를 하던 아버지가 어느날 차사고로 돌아가자 림진우는 누이동생 진애와 함께 저녁마다 다니던 녹거리야간무용전습소를 그만두었다. 아버지대신 생계를 유지해야 할 일도 그렇지만 음악에 뜻을 두고 부민관의 피아노연주자에게서 개별강의를 받는 전상음때문이었다. 차라리 셋이 벌어 한사람을 공부시키는것이 나았던것이다. 그 어간에 무슨 일인들 없었으랴. 물지게도 곱으로 메었고 서울역에 나가 가대기군노릇도 하였으며 때로는 행상군의 짐을 메다주려 백여리길을 걷기도 했다. 애먼굴면 일했으나 나날이 높아가는 강의료를 대지 못해 어느날엔가는 진애가 자기의 피를 팔아보탠적도 있었다.

그 일이 연고로 돼서인지 후에 그들사이에는 애정이 싹텄다. 전상음이 하숙집을 구해서 나간 이후 류다르게 오가는 그들사이를 진우가 눈치챘을 때에는 벌써 장래의 일까지 약속한 정도에 이르렀다. 나중에 진애는 전상음의 권고를 따라 조물공부를 하게 되었고.

혈연이상으로 그렇게 가까웠던 림진우와 상음이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한것은 과연 언제부터였던가. 나라가 해방되어서부터일것이다. 그때 그들은 각자가 하는 일들에 대하여 서로 비난의 감정을 품고있었다.

림진우가 미국인교수에게서 강의를 받으며 정치와 예술의 분리, 예술시장주의와 미국문화를 숭상하는 상음의 견해를 불쾌하게 여겼다면 전상음이는 《단독선거》반대투쟁을 비롯한 반미, 반리승만정치활동에 정력적으로 몸을 담그는 진우를 두고 비리성적인 예술가라고 힐난하였다.

한 인간의 진가를 알려면 고난속에 세워보라는 말이 있다. 그뒤에 일어난 조국해방전쟁, 그 전쟁이야말로 매개 인간의 정치적인념뿐이 아니라 윤리도덕적진가를 가르는 엄격한 시험장이었다.

1950년 가을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시작되자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으로 조직된 경비사령부협주단에 망라되어 림진우는 북으로 가는 길에 올랐다. 여기에는 물론 전상음이며 진애도 있었다. 일행은 순천근방에 이르러서 미군비행대의 폭격으로 서로 흩어지게 되었다.

이때 대렬에서 행방불명자가 생겼는데 다름아닌

상음이었다. 진우네들은 폭격에 이어 쏟아지는 적항공폭전대의 탄막속을 헤치며 그를 찾으려고 얼마나 무진 애를 썼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찾고찾던 상음이의 행처를 뜻밖에 알게 된것은 퍼그나 시간이 지나서였다.

림진우는 자기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해방된 남조선땅에 펼쳐진 토지개혁을 비롯한 공화국의 시책들이며 부민관에서 진행된 북반부예술인들의 공연을 보며 그리도 열변을 토하면서 찬양하던 상음이, 바로 그 전상음이가 미군징속기를 타고 머리우를 떠돌면서 진우와 진애 그리고 일행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대며 《자유세계》에로의 《탈출》을 설교하고있었던것이다.

진우는 피가 거꾸로 물키는것 같아 가슴만 쥐여 뜯었다. 그뒤에 뒤따르는것은 형언할수 없는 감정이였다. 제몸의 피까지 뿜아 강의료를 대준 사랑하는 처녀, 자기를 찾다가 적들의 흉탄에 중상을 당하여 담가에 실린채 사경에서 해매이는 애인을 버리고 일신의 안일을 위하여 도주한 상음의 윤리도덕적타락에 대한 분노였다.

미국놈에게 붙어 미국식부르조아문화를 숭상해온 지난 과거를 불문에 붙이고 재생의 길을 열어준 공화국을 배반한 전상음이라는 인간에 대한 증오였다.

림진우는 그날 추격하는 적들과의 총격전에서 어깨와 복부에 부상을 당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서 누이동생은 알일령고개밑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때 림진우는 진애의 눈을 감겨주면서 사랑하는 누이동생의 명복을 빌기에 앞서 전상음에게 저주를 퍼부었으며 어느때든 만나면 용서치 않으리라는 독한 마음을 굳혔다. ...

여기까지 말씀 올린 림진우는 마음을 다잡으려 는듯 말을 끊었다가 뿜어오르는 의분을 자제 못하겠는지 끝내 그대로 감정을 터치는것이였다.

《어제 다시 생각해보고 고려호텔에 갔됐습니다. 저를 찾아왔던 해외동포사업국의 일군이 그래요, 하고 극진히 권고한것도 있지만 해줄 말이 있어서 갔습니다. 당신이 조국이요, 친구요 하며 도대체 이 땅에 기웃거릴 체면이 있는가 그걸 말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장군님, 그 사람이 얼마나... 어려울 때 조국을 버리고 달아나서는 외국에서, 그것도 미국에서 피아노건반이나 두드리며 저만을 위해 살다가 갑자기 순결한 감정이 솟구쳤다는겁니다.

장군님, 저는 도저히 그 사람을... 정말...》

《?!》

한순간 유보도 휴식터에는 정적이 깃들었다. 유보도로 휘날어진 버드나무우듬지에서 우짚던 새들의 울음소리들, 금방 술렁이기 시작한 강물소리도 이 순간 어디론지 잦아버린듯싶었다.

《결국 그렇게 되었고...》

김정일 동지께서는 낮은 음성으로 뇌이시었다. 차츰 연황색기운이 진해져가는 새벽하늘을 바라보시며 말씀 없으시던 김정일 동지께서는 진우에게 천천히 머리를 돌리시었다.

《그 동포가 떠나면서 무슨 말을 한것은 없어요?》

《편지 한통을 해외동포사업국의 일군에게서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저으기 답답해나신 김정일 동지께서는 야전복 상의의 자크를 한뼉가량 내리그으시었다.

그이께서는 진우의 처사가 못내 불만스러우시었다. 물론 림진우의 심정은 이해가 되시었다. 사람이 살아가느라 하면 넘기기 힘들고 참기 어려운 일들이 더러 생기는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이따금 이런 경우에 부닥치면 자기이하로 처신할 때가 있는것이고.

그러나 혁명가는 민족문제앞에서 제도와 리념을 초월하여 현실을 볼 줄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김정일 동지께서는 깊은 우려에 잠겨 진우의 처신에 대하여 생각해보지 않을수 없으시었다.

무릇 인간은 제 손으로 만들어내는 창조물에 자기를 그대로 쏟아넣는다. 취미며 개성, 습관까지도... 인간정신을 재형상하는 가장 고급한 창조물인 예술작품인 경우 더욱 그러하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무심히 스칠수 없는 이 문제가 이번 《통일장》창작에 적지 않은 아니, 근본적인 영향을 주었으리라는것을 은연중 직감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진우에게 돌아서시었다.

《내 보기엔 일이 썩 잘된것 같지 않구만. 그 면에서 온 옛친구를 만나지 않다니.》

《...》

《지금 동무한테 편지가 있소?》

《저... 집에 있습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동안을 두셨다가 무거운 어조로 진우의 의향을 물으시었다.

《내 그걸 좀 봐도 일없겠소?》

《예.》

《그럼 나에게 보내주오.》

드디어 문수벌 동천하늘에 커다란 불덩어리가 불끈 떠올랐다. 삼시에 온 하늘에 적황색기운이 강렬하게 뻗쳐가면서 곧게 뻗어간 유보도며 술렁이는 수면우에 태양빛이 아깁없이 쏟아져내려 이른아침의 정서를 더욱 청청하게 해준다.

허나 김정일 동지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시었다. 정말 림진우는 해내겠는지, 뿌리깊이 박혀있는 그 감정이 하루이틀사이에 돌아선다는것은 참으로 힘든 일일것이다. 이제 《통일장》은 진우가 새로운 눈으로 현실을 감각할 때에야 비로소 나오겠는데 그때는 과연 언제이겠는지.

그이께서는 작품창작을 림진우에게만 방임해두지 말고 자신께서도 그를 도와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하시었다.

이날 아침 김정일 동지께서는 만사를 뒤로 미루시고 집무의 첫 일파로 전상음의 편지를 읽는것으로부터 시작하시었다.

3

진우선생.

소인은 이 편지가 선생의 손에 가닿게 될 때 진우선생이 어떤 심정에 계시리라는것을 잘 알고있으며 그것은 너무도 웅당한것이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제 럽치불구하고 펜을 든것은 비록 용서는 받지 못할지언정 글로라도 진애며 선생을 위로해드리고 수십년동안 시달려온 속죄의 중압감에서 잠시나마 벗어나보려는 괴로운 충동에서였소이다. 그러니 부디 가슴속 어딘가 깊은 곳에 여전히 남아있을 우정을 살려 이 전상음이라는 인간의 마지막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것을 아무쪼록 바라는 바입니다.

어제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지요. 무슨 생각인들 안했겠습니까. 이 상음이 의지가지할데가 없어 선생랑친의 인정에 끌려 그 집에 거처하던 나날들이 영화화면처럼 떠올랐습니다.

밤이면 늘 누덕누덕한 자그마한 포대기 한알을 가지고 장밤 밀고당기며 서로 제가 덮겠다 씨름하던 일이랑, 그때 한번은 선생이 너무 화가 나서 재밌게 일어나 포대기를 아예 체몸에 둘러감고 자다가 부친께 매를 당하신적도 있었지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애 상음이, 추웠지 하며 무척 미안해하던 그 거동, 진애가 내 학비때문에 피를 팔았다가 몸져누운 자리에서 내가 하두 눈물을 흘리니까 자식, 사내가 그만한걸 가지고 기집애처럼, 됐어, 후에 잊지나 말려무나 하며 나를 바라보던 그 선량한 눈빛도 잊혀지지 않았소이다.

그 시절의 갈피마다 새겨져있던 이런 고운 꿈들이 지나가자 뒤를 이은것은 새롭게 시작할수 없는 자기 인생에 대한 무서운 서러움이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늘 이르기를 음악이란 인간정신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예술이다, 네가 진정으로 음악을 하려거든 자기 마음부터 순수하게 가다듬고 일체 속세의 쟁론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음악을 전수하는 과정에 아버지의 말이 옳다는것을 깨달았습니다. 뿐만아니라 그뒤에 일어난 전란속에서 체험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할수 있었지요.

진우선생, 생각나십니까. 인민군의 뒤를 따라 북으로 가자는 선생의 권고를 내가 흔연히 받아들이자 그런걸 괜히 걱정했었지 하며 이 상음이의 어깨를 툭 치던 일을 말입니다. 그때 솔직한 나의

심정은 사실 이도저도 다 싫었고 가변적인 현실의 흐름에 휘말려돌아가기가 싫어졌었습니다. 내가 동의한것은 순 사랑과 우정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북으로 들어가는 길을 걸으면서 나는 자기의 행로를 뱅글뱅글 돌이켜보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로상에서 목격한 모든것—미군의 폭격에 폐허가 된 거리며 마을들, 사방 널려있는 시체들, 죽은 엄마의 젖가슴에 매달려 울어대는 어린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세상에 잠재하고있는 악을 보았고 그를 추동하는 무서운 힘을 두고 진저리를 치었습니다. 그 다음에 뇌리에 찾아든것은 이 길이 끝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것인가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물론 선생이랑 어느 사람들은 이제 인민군대가 틀림없이 재진격할거라며 확신에 차있지만 어쨌든 피는 계속 흘러야 하겠지요. 어느쪽이 이기겠는지는 그때 가봐야 알것이고 더는 이렇게 순종할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인정에 못이겨 리념간의 대결에 운명을 내맡기느니 차라리 그 어떤 주의주장의 간섭을 받지 않는 나의 음악, 오직 나의 예술세계에로 돌아가 거기서 안식을 찾고 인간에게 진정한 녀의 구원을 호소하고싶었습니다.

진우선생, 오늘에 와서 이따금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 저주로운 1950년의 늦가을, 미군비행대의 폭격을 당했던 그날이 내게 없었더라면 나의 인생은 다르게도 될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군 합니다. 허나 이것은 일종의 자기기만, 만약 그날이 없었더라도 상음이는 기어코 인생길을 역행했을것입니다. 이 전상음이라는 인간의 성장과 사고는 꼭 그렇게 행동하도록 충만되어있었지요. 진우선생, 바로 이 필연이 나로 하여금 폭격이 끝나자 당신들길을 떠나게 했소이다.

산을 내린 나는 서울로 향하다가 얼마 못 가서 미군에 억류되었습니다. 나를 취급한 정보장교는 예술가로서 인정적으로도 떨어질수 없는 선생이며 진애가 나를 따르도록 《귀순공작》에 협력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나로서는 물론 동의할수밖에 없었지요. ...

그 이후의 나의 인생은 《거침없이》 흘러갔습니다. 미국영주권을 얻어 《아메리카》 국민이 되었고 자기나름의 음악세계도 창조하였으며 그에 따르는 명예와 재부도 얻었습니다. 허나 나는 마음을 끝없이 우울하게 만들고 자기의 그 모든 존재 가치에 대하여 극심한 회의를 가지게 하는 잠재의식을 항시 느끼곤 했소이다. 그것은 깊은 밤 외롭게 두드리는 피아노건반에서 저도 모르게 흘러나오기도 하고 열광의 파도에 정신을 잠그고난 뒤 소리없이 갈마들기도 하였으며 세월의 년륜이 한 돌기씩 돌 때마다 항상 들군 했소이다.

그러던 어느해인가 이 상음이 연주여행차로 어느 한 나라에 갔을 때였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비록 1회공연밖에 하지 않았지만 연주회는 상상외로 관중의 가슴을 크게 울리었습니다. 우리들이

그때 진행한 연주회는 미국 백악관의 음악고문이며 저명한 작곡가, 첼로연주가인 로스프로보비치의 예술가로서의 은퇴공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그는 자기의 가장 우수한 창작품들만을 무대에 올렸는데 특히 첼로협주곡으로 개작한 드볼자크의 교향곡 《신세계》 2악장을 연주하였습니다. 연주회가 끝나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선생은 2악장에 왜 그리도 큰 애착을 가지고 연주했는가고.

예술가라고 할 때 누구나 훌륭한 작품을 만들겠다는 욕망을 가지고있으나 일생에 그런 기회가 차례진다는것은 극히 드물다, 왜냐하면 예술 그자체는 인간적인 모든것의 표현이므로 훌륭한 작품을 창작하자면 자기부터 고결한 인간이 되지 않고서는 안되기때문이다, 나의 이 작품이 다소나마 여러분께 기쁨을 주었다면 아마 내가 어머니 로씨야에 드리는 이 아들의 마지막하직인사로 간주하고 이것을 편곡했으며 연주하였기때문일것이다. 로스프로보비치의 대답이었습니다.

후에 알게 되었지만 그는 생의 말년에 이른 시기 조국방문과 함께 영주권을 요청했다더군요. 쏘련 외무성당국은 어려울 때 조국을 버리고 망명한 죄에 미국의 반소정책에 한몫 크게 기여한 반쏘분자였다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날 그가 사람들에게 한 말은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말하자면 심신을 괴롭히던 이름모를 중압감이 무엇때문이었는가를 한순간에 깨달았던것입니다. 한생을 반쏘반공의 길을 걸었고 자기식의 예술상야탑을 높이 쌓았던 로스프로보비치가 그런 결심을 했다는것은 그에게도 항상 리념을 초월한 신성한 감정이 있었다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날부터 나는 자기에게 계속 자문자답해보았습니다. 너 전상음이는 누구를 위하여 예술을 했는가, 너의 음악세계란 도대체 어떤것인가, 일생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술작품이라고 서슴없이 떳떳하게 자부할 작품은 얼마나 되는가? 없었다, 오직 자기를 위해서였다, 무엇을 했다지만 그것 역시 대국의 패권적리념인 《세계화》를 미화분식하는 이른바 《범인류적인》 작품이 아니었던가.

나는 무서운 좌절감에 휩싸였습니다. 량심은 그토록 자부했던 인생전부를 거부했던것입니다.

모든것을 포기했습니다. 연주회도 창작도 음악이라는 그자체를... 이제 이 전상음이라는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자기 본래의 모양을 찾고 거기에서 어지러워진 녀를 정화시켜 새롭게 사는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어간에 무슨 일인들 없었겠습니까. 내 조국의 한쪽 땅인 《한국》은 내가 침을 뱉고 떠날 때 그 모양으로 여전히 남의 껍질을 쓰고도 독립국가인체 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매번 수십년전 혐오를 느꼈

던 그 감정을 환기시키곤 했습니다. 하지만 북부조국은 그와 반대였지요. 북의 역사를 소급해보면 볼수록 다는 알수 없으나 명백한것은 북의 정치는 역시 6.25전쟁때 공화국치하에서 살며 체험한 그것, 진실로 변함없이 민중과 인간을 위해 베푸는 정치로구나 하는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북부조국은 참으로 강한 나라, 뜻이 고상하고 의지 강한 사람들이 사는 땅이라는것이었습니다.

지난 수년어간에 벌어진 북미핵대결, 여기서 나는 북부조국의 강대성을 더욱 절감하였습니다.

진우선생,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 상음이는 비에 잠겨있었습니다. 미국의 전투폭격기며 함선들, 미싸일들이 공화국을 위협하면서 핵사찰을 강요할 때 캔지스씨외교외의 시골식당 어두운 구석에 앉아 술을 말동무삼아 약소한 민족의 서러움을 통탄하고있었습니다. 그러나 공화국은 나의 이 나약한 억측을 보기 좋게 뒤집어놓았습니다.

핵무기전과방위조약에서의 탈퇴, 자국에 준전시 이행 선포. 진우선생, 그때의 온몸이 다 흠어지는 것 같은 걱정이며 환희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세계를 경탄케 하는 대지진같은 파격적인 사변들은 이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도대체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무엇때문에 세계 《유일초대국》이라 자처하며 비위에 거슬리면 주권국가 하나쯤은 하루아침에 짓뭇개버리는 미국이 자그마한 나라, 북부조국앞에서는 기신을 못하는가. 군사력때문인가, 물론 일리가 있는 견해입니다. 이북의 강한 군사력에 대해서는 미국과 서방이 한결같이 인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것때문만이 아닌것입니다.

그러던중 나는 치료차로 홍콩에 왔다가 이북에서 한다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선전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 알았습니다. 비록 몇개의 시사화면들과 잡지들이었지만 그것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금세기의 불굴의 정의투사로 우뚝 일어서서 세계를 굽어보며 자기 배짱대로 나아가는 정신을 나는 예술을 통하여 진실로 느꼈던것입니다.

예로부터 인류공동의 문화재보적가치를 가지는 예술작품의 창작가들은 가장 깨끗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시바빠 만나보고싶었습니다. 더우기 그들중에 옛친구가 있다는것을 알고 지난간 과거때문에 고민하고 우려했지만 그래도 하는 위안을 가지고 상봉을 선뜻 요청했겠지요.

진우선생, 이 전상음이는 과연 어떤 인간입니까. 내가 무슨 면목으로 선생앞에 나설수 있으며 나라는 인간은 과연 한부로 제 입에 예술과 인간에 대하여 떠올릴 권리가 있습니까.

언젠가 미들강 서북쪽 계곡에 갔다가 가파로운 여울목을 힘겹게 거슬러오르는 한마리의 송어를 본적이 있습니다. 알 쏠려 가는 길이었습니

다. 지고 상처를 입었던군요.

오르다가는 떠내려가고 그러다가는 오르고 물살이 빨라서보다도 먹지 못하는데다가 불행을 겪어 기력이 떨어져서일것입니다. 그래도 그놈은 완강한 노력끝에 여울목을 넘어서고야마는것이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생각하면 이 상음이는 송어라는 미물보다 못한 인간이지요. 들은데 의하면 송어는 제 고장에 알을 쏴러 가면서 거의나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치 나서자란 고향에 드릴 귀중한 새 생명에 일이라도 생길가봐 그러는지.

그런데 인간이라는 나는 이 땅을 뜬자체도 불효요 와서도 불효라 조국레찬의 자그마한 즉흥곡 하나 들고 오지 못했음에도 제 요구를 들어주기만을 바랐습니다. 나는 해외동포사업을 본다는 선생에게서 다 들었습니다.

내가 산을 내린 뒤에 생긴 불상사들이며 전후에는 나때문에 선생이 루명을 쓰고 잘못될번 했다는 것까지. 그런 아픔을 가진 진우선생이 어떻게 나를 편한 마음으로 만날수 있었겠습니까.

이제는 다 늦었습니다. 무슨 작품을 써볼가 해도 인간이 너무 어지러워졌고 인생을 다시 고쳐보려 해도 황혼이 질게 드리웠습니다. 럽치불구하고 만나서 백배사죄를 하고싶었으나 이 전상음이 하도 진 죄가 커 그것마저도 바랄수 없으니 진우선생, 소원은 그저 옛날처럼 진우야! 하고 목놓아 부르며 통곡을 하고싶은 심정이구려.

진애의 명복을 빕니다. 선생의 안위를 아무쪼록 바랍니다.

최많은 인간 전상음 상서

4

《음향실...》

림진우는 흠칫 상념에서 깨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저앞에 얼굴이 동글납작하고 키가 작은편인 50대 초반의 아동장안무가가 휴대용확성기를 메고 서있었다. 저으기 미안해난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후 첫 시간에는 아동장이 경기장바닥을 타게 되어있었는데 장치회를 하는 자리에 주책머리없이 그냥 앉아있었던것이다.

《어디 편찮으십니까?》

확성기로 다시한번 음향실을 찾고난 그 녀자가 진우에게 다가와 하는 말이다.

《아니, 아니요. 일없소. 그저 좀 두루 제 생각에 움해있다보니.》

《참모장동지가 선생님을 찾는것 같습니다.》

《그래?》

아마 전상음이와의 상봉문제때문일것이다. 아까 얼핏 그와 길을 어기었는데 성에서 취한 대책을 알려주겠다면서 오후에 만나자고 했던것이다.

《저, 선생님.》

걸음을 옮기려는데 녀성안무가의 목소리가 발목을 잡는다.

《몇개 동작을 고쳤는데 이제 좀 봐주지 않겠습니까?》

《허어—》

허거픈 외마디음성이 절로 나온다.

《제 작품도 못해서 찢절 때는 사람이 무슨 체면으로 보겠나. 봐야 바른 소리 한마디 못할거요. 일없소. 청희선생, 신심을 가지구 마저 완성해보우. 지금형편에선 난 조언을 줄 여유가 없구만. 참 미안하오.》

진우는 랑해를 구하듯 그의 어깨를 한번 잡아주고 나서 돌아섰다. 인차 그의 귀전에 경쾌한 음악 선율과 함께 자신심에 넘친 아동장안무가의 구령 소리가 들려온다.

진우는 통로를 따라 무겁게 걸음을 내디디었다.

요즘 림진우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괴로움을 안고 혼자 숙을 씹이며 모태기고있었다.

김정일동지의 믿음에 찬 격려에 따라서지 못하는 자기에 대한, 자기의 창작능력에 대한 격심한 좌절감과 불신때문이었다.

사실 한주일전 새벽 그이를 뵈고난 뒤 그리고 그날 오후 문화성 책임일군으로부터 그이의 말씀을 전달받고나서 림진우는 얼마나 흥분했던가.

《이제 진우동무에게는 자기 친구를 만나는가 안 만나는가 하는것보다도 통일문제, 민족의 운명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생활에서 찾으라고 일러주시오. 자기와 그 재미교포친구의 인생경로에서 말이요.》

이 말씀은 그날 **김정일**동지께서 문화성 책임일군에게 전상음의 편지를 돌려주면서 하신 가르치심이라고 한다.

그때부터 림진우는 새로운 결심을 품고 창작에 달라붙었다. **김정일**동지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자기와 전상음의 인생경로를 예술가적눈으로 탐구해보았다.

이따금 진우는 지나온 생의 길을 돌아보면 나는 남들보다 정말 류다른 아픔을 가지고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저으기 울적해질 때가 있다. 그러면 가슴이 예이는듯 하고 눈곱이 삼삼해난다. 아버지며 누이동생을 일찌기 잃었고 분렬로 하여 남에게신 어머니에게 편지 한장 보낼수 없었으니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있는이 몇이나 되겠는가.

《큰할머니 계속 삼촌을 찾았어요. 가실 때두 진우야, 진우야, 니가 정말 살아있느냐 하시며...》

홀어진 북남가족상봉차로 서울에 갔던 림진우는 조카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아들의 소식을 기다려 어느 한밤도 편히 주무시지 못했다는 어머니, 진우는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을 때 평생회한이 산처럼 밀려와 봉분에 얹어져

비석이며 상들을 어루쓸면서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야말았다.

사무치게 그리워났다. 어린 자식들을 배뿔리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나 공부를 시키려고 언제 한번 허리 펴볼새없이 고생하신 어머니, 이런 어머니를 위해 그 시절 아들은 무엇을 한것이 있단 말인가.

배뿔지 않게 차레지는 범벅음식에는 교외의 남새밭에 나가 배추며 무우꽂다리를 좇느라 해지는 줄 모르셨던 어머니의 고생이 깃들어있는것도, 두 부장사며 샅빨래를 하느라 썩살이 박히고 퉁퉁 부은 그 손에서 다달이 어깍임이 났던 학비가 나오는것도 다는 몰랐다.

그래도 어머니는 탓하신적이 없었다. 오히려 땀을 끼삼아 드시면서도 아들이 무용전습소에 다니는것이 대견스러워 그저 기뻐하셨다. 세월이 바뀌어도 어머니는 여전히 그 일을 그만두지 않으셨다.

《어머니, 좋은 세상이 왔는데 이제 그만두세요. 이 아들이 인차 큰사람이 되어 어머닐 호강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쟁때 일에 다몰려다니다가 어느날인가 집에 들어와 두부를 앓고있는 어머니에게 림진우가 한 말이였다. 그것이 어머니와 나는 마지막말인줄 알았더라면...

그러나 진우는 유독 자기만이 그런 체험을 하지 않았다는것을 새삼스럽게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전상음의 편지를 새롭게 음미해봐도 그래 마치 큰 숲을 이루는 하나하나의 거목, 지어 자그마한 잡관목에도 성장에 이르기까지 나뉘는 곡절이 있듯이 풍파사나운 력사의 길을 걸어온 이 나라 사람들 매 개인에게는 자기와 같은 체험은 다 있는것이다.

이젠 늙었나보다. 림진우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리였다. 정말 그럴수도 있다. 마른 나무가지에서 줄이 나온적이 있는가. 그렇지 않고서야 어쩌면 이다지도 막힐수 있단 말인가.

잠간 서서 경기장 천정의 전광장식을 올려다보던 림진우는 망연자실한 눈길을 아래로 떨구며 참모장방으로 가는 계단위에 올라섰다.

5

평천쪽 하늘자락을 희미하게 태우고있던 저녁노을의 잔광이 스러지자 기다린듯 밤의 장막이 샅시에 온 공간을 뒤덮었다. 인차 대기는 한낮의 마지막운을 밀어내는 초겨울의 랭기로 하여 몹시 선득해지였다.

한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도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전선시찰과 현지지도는 줄기차게 이어져갔다. 얼마전에는 조국의 북변에 자리잡은 광산련합기업소를 찾으시여 그곳 로동계급을 더 높은 최돌증산으로 고무추동하시였으며 다음날에는 칠보

산유원지를 찾아 놓고 험한 판모봉의 고개머 령들을 넘으시였고 이어 그길로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현지시찰을 진행하시였다.

그 바쁜시 나날속에서도 **김정일**동지께서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통일장》에 대하여 한시도 잊으신적이 없으시였다.

또다시 전선길에 오르신 이밤도 마찬가지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중심도로를 벗어난 야전차가 나라의 중부로 뻗어간 수도교외에 이르자 운전사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으시였다.

《차를 세우오.》

차에서 내리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멀리 5월1일경기장 상공에 시선을 보내며 부판을 가까이로 부르시였다. 낮에 《아리랑》의 훈련정형을 료해하시다가 《통일장》창작이 여전히 부진상태에 있다는것을 알고 걱정하던중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시였던것이다.

《부판동무, 우리 좀 늦더라도 사람 하나 만나 보구 떠납시다. 거 〈아리랑〉에 림진우안무가 있지? 요전에 퉁라도에서 만났던 동무 말이요. 그 안무가를 데려와 주오. 아마 지금 경기장에 있을거요.》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에 림진우를 태운 차가 당도했다. 여느 사람 같으면 이 한달사이에 벌써 두번씩이나 **김정일**동지를 뵈게 되어 무한한 기쁨에 싸여있으련만 그이께서 부르신 까닭을 잘 아는 림진우였기에 머리숙여 인사를 드리면서도 죄책감으로 하여 눈길을 어떻게 건사해야 할지 몰라하는 것이였다. 달빛에 번들거리는 야전차들의 앞머리가 모두 큰 도로쪽으로 향하고 서있는것을 보면서는 더욱 그랬다.

《〈통일장〉이 아무래도 걱정되어 동무를 불렀습니다.》

그와 인사를 나누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본화제에로 들어가시였다.

《그래 작품창작이 어떻게 돼가고있습니까?》

진우의 대답은 시원치 않았다.

《하느라고 하는데 아직 끝내지 못했습니다.》

《하고있는중이라.》 그의 안색을 더듬어보시던 **김정일**동지께서는 동안을 두셨다가 권고하시였다.

《진우동무, 어쨌든 〈통일장〉의 상은 알고있을테니까 어서 말해보오. 료관적으로라도 말이요.》

림진우의 얼굴에 피로운 기색이 한층 더 진하게 비끼였다. 진우는 말씀드리였다. 때로 갑자르며 두서없이 이야기하는 그의 어조는 몹시 침중하였다. 그러던 림진우는 나중에 끝내 자포자기의 심중을 토설하고말았다.

《장군님, 저는, 전 안되겠습니다. 장군님께서 진우가 겪은 체험이랑 그 상음이라는 사람의 인생경로를 귀히 여겨 여기에 방도가 있다고 가르쳐주셨습니다.

하나 우리들의 체험이 크고 우리가 겪은 아픔이

아무리 크다 해도 수령님의 혁명생애에 비하면, 장군님께서 선군장정의 길에서 겪으신 그 모든것에 비하면 무엇이겠습니까. …》

《…》

《제 이렇게 떼거지를 쓰는것이 배운될 행위라는것을 알고있지만 장군님, 솔직한 말로 저는 이번 작품이 자신없습니다. 이 림진우가 이제는 늙었나 봅니다.》

진우는 말을 마치고나서 무엄한 자기의 언행을 수습하려는듯 몸가짐을 바로하였다.

하회를 기다려 머리를 숙이고있는 림진우를 이윽도록 바라보시던 **김정일**동지께서는 그의 심정을 아랑있게 리해하여주시였다.

《허, 진우동무가 정말 로쇠가 온 모양이요. 수령님을 따라, 당을 따라 천만리를 걸어오며 별의별 우여곡절을 다 이겨낸 동무가 그런 약한 소리를 하는걸 보니.》

《…》

《림동무, 너무 실망하지 마오. 창작과정에 무슨 고충인들 없겠습니까. 그동안 나도 좀 궁리해본것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함께 토론을 해봅시다.》

몇몇이 총총한 밤하늘 저 멀리에서 별찌 하나가 긴 불꼬리를 끌으며 떨어졌다. 가까운 도로에서 때때로 차들의 동음소리가 들려오고 사이사이로 가을바람에 주변 가로수들이 설레는 소리만 들릴뿐 사위는 고요하였다.

인차 **김정일**동지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는 림진우로 하여금 이때껏 머리속을 뒤덮고있던 안개같은것을 하나둘 걷어내는것처럼 느끼게 하였다. 그리고 미지의 세계에로 등을 떠미는 것이였다.

《원래 예술이란 그 어떤것을 막론하고 사람들에게 정서적감흥을 주지 못하면 본래의 사명을 잃고마는 법이요. 정서적감흥이란 뭐겠소. 진실한 생활의 형상이 아니겠습니까? 동무의 작품이 공회전을 거듭한것은 바로 이것이 없었기때문이였소. 자, 그럼 우리 〈통일장〉의 내용들을 가까운 생활에서 하나하나 찾아봅시다.》

《…》

《일전에 나는 그 교포음악가의 편지를 보면서 림진우라는 한 인간이 걸어온 인생길을 더듬어보았습니다. 기억납니까? 13차축전때 그걸 나에게 들려주던 일을 말이요.》

《기억납니다, 장군님.》

《그럼 어디 말해보오. 진우동무는 어린시절 물지계를 지고 다니면서 무엇을 느꼈소? 그리고 작년에 홀어진 북남가족친척상봉차로 서울에 나갔을 때엔 무엇을 체험했고.》

림진우는 추억을 천천히 되살리며 대답올렸다. 어린시절 사무치게 맺혔던 감정이며 서울에 나가서 체험했던 그 모든것을.

《망국민의 설움, 분렬의 아픔이라. 그날 교포음악가의 편지를 보고서는 생각되는것이 무엇이였소?》

《그런 인간도 끝내는 제 땅을 찾긴 찾는구나 하는것이였습니다.》

《웁습니다. 동무의 인생길에는 민족의 어제날의 설움과 오늘의 아픔이 있소. 그런데 그게 어디 동무 한사람에 국한된것입니까. 아니요, 아까 내 말했지만 비록 걸어온 인생길이 달라도 우리 인민 한사람한사람이 다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여기 있는 이 장령동무들도 그렇고 동무의 그 친구도.》

《...》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13차축전때 남조선의 종교계와 〈전대협〉이 대표를 파견한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반공풍조가 아무리 우심하고 그로하여 이질성이 농후해졌다 해도 정이야 어디 가겠는가, 통일의 방도는 다르게 아니다, 민족의 매 성원들의 가슴에 천성으로 젖어 있는 민족애, 이것을 높이 사고 귀중히 여기는것이 리념우에 있는 통일의 진리이다라고 하셨소. 조선사람이라는 자각, 민족에 대한 사랑. 진우동무, 고향이 남조선인 그 재미교포음악가가 공화국 방문을 결심한것도 이런것때문이 아니겠소.》

말씀을 멈추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진우의 의견을 물으시였다.

《내 보기에는 이쯤되면 작품이 발불일 토양이 마련되었다고 생각되는데 립동문 어떻습니까?》

허나 립진우는 제때에 대답드릴수 없었다. **김정일**동지께서 자기의 생활속에서 작품이야기를 찾아 말씀하실 때부터 알지 못할 무엇인가가 형체를 점차 드러내는것에 정신이 온통 쏠리였기 때문이였다. 그래서인지 뒤늦게야 대답을 올리였지만 그의 어조는 퍼그나 두서없었다.

《틀거리가, 예 장군님, 감각이 옵니다.》

《틀거리가 섰다? 그러면 됐구만. 그럼 이젠 심장을 쩡 울리게 작품을 만들어볼수 있겠소?》

《할수 있습니다. ... 한데.》

김정일동지께서는 화제를 돌리시려다가 그가 말끝을 흐리자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였다.

《아직도 리해 안되는 점이 있는거구만.》

《아닙니다.》 서둘러 언행을 수습하는 진우였다.

《장군님, 이왕이면 제 미숙한 재기를 헤아려 마저 가르치심을 주셨으면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면까지 이야기해달라는거구만. 참 - 이런.》

김정일동지께서는 난색을 지으며 둘러선 장령들에게 묻는듯 한 시선을 보내시였다.

《허허, 이런 뎨 어떻게 하면 좋은가?》

《장군님!》

절절한 빛이 어린 그의 얼굴을 일별하시던 **김정일**동지께서는 난색을 거두시였다.

《정말 질군요. ... 흠 - 할수 없구만. 창작에 도움이 된다니. 그럼 조연이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소.》

또다시 뇌리속에서 어슴푸레한것이 벗겨지고 있었으며 심장의 박동이 커지는듯 하였다. 립진우는 **김정일**동지의 세계에 통채로 빨려들어가는감을 확실히 느끼였다.

《일전에 나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의 주제가인 〈아리랑〉을 들으면서 수난에 찬 민족의 역사를 새삼스럽게 돌이켜보곤 했습니다. 어제날엔 나라를 빼앗겨 불행했고 오늘은 분렬의 고통으로 편안한 날이 없고...》

그래서 나는 그것을 강조해주는 의미에서 서장의 〈아리랑〉 선율을 장 전반부에 울리게 하자는 것입니다. 후반부에는 요즘 보천보전자악단에서 지은 노래 〈우리는 하나〉를 넣고.

〈분렬의 장벽을 짓부시고〉라는 장제명은 신통치 못하오. 생경합니다. 〈통일장〉의 제명은 장 성격이나 전체 작품의 정신에 맞게 〈통일아리랑〉이라고 고치는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 보니까 마감에 조선지도를 그린 착상이 좋던데 색깔은 바꾸는게 좋겠소. 흰색으로 말이요.

문제는 배경대와 바닥형상인데 난 그에 대해서는 동무가 자기와 그 동포의 감정을 그대로 쓰면 된다고 봅니다.

어릴적 겪었던 망국민의 설움, 아들을 기다려 긴긴세월을 잠못 이루다 끝내 돌아가신 동무의 어머니, 머리에 백발을 엮고서야 비로소 진리를 찾은 옛친구.

립진우동무, 나는 우리 민족의 력사가 비긴 동무의 인생경로를 이렇게 덜지도 더하지도 말고 그대로 펼치면 될수 있겠다고 확신합니다.》

그대로, 덜지도 더하지도 말고.

《!》

불시에 거대한것이 홍벽을 쿵쿵 울리였다. 그다음, 다음순간 진우는 순식간에 밀려든 창조의 열정적이고도 무분별한 파도에 휘말려 끝내 자기를 잃고말았다.

섬팡이 번쩍인다. 암전, 조명, 배경대에 그려지는 재빛구름, 어두운 들판, 무정하게 드설레는 갈대숲,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가슴을 두드리며 절규하는 백발의 어머니와 아들의 모습, 진우를 목놓아부르는 상음의 얼굴도 보인다. 그와 동시에 민족의 수난사를 형상하는 바닥출연자들, 맨 나중에 뚜렷이 새겨지며 크게 물결치는 흰색의 거대한 조선지도.

그야말로 립진우는 이 순간 오래동안 잠자고있던 령감이 마침내 눈을 뜨고 작품전반을 누비며 명화폭들을 펼치는것을 가슴 후련히 느끼고있었다. 진우는 환희에 차서 내심 울고웃으며 계속 부르짖었다. 아니 저도 모르게 입가에서 새어나온다.

《장군님, 됐습니다. 이제는 다 알겠습니다. 정

말... 고맙습니다.》

그뒤에 들려오는 **김정일** 동지의 음성, 그것은 마치도 먼 하늘가에서 울려오는듯 하였다.

《보오, 방도는 동무에게 있지 않습니까. 진우동무, 사람은 정으로 사오. 그것이 없으면 살수 없고 혹 산다 해도 그런 인간의 눈에는 모든것이 어두워보일뿐이요. 예술도 같소. 갱생한 옛친구의 모습에서 진실한 감정을 읽을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술작품을 창작해낼수 있겠소. 인간은 커야 합니다. 뜨거워야 하오.》

김정일 동지께서는 림진우의 양양된 흥분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물으시었다.

《참 진우동무의 옛친구는 어떻게 하겠소?》

진우는 문화성이 취해준 대책에 대하여 대답드리었다.

《태달초에 오스트리아에 가는 성대표단에 망라되어 거기 가서 만나보려고 합니다.》

《3국에서 만나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조용히 되뇌이시었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진우에게 간곡한 어조로 당부하시었다.

《림동무, 그가 우리 공화국의 세상에서 생활한 날이 불과 서너달밖에 안되는데 그 어간에 진리를 깨달았으면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들도 용서받고 조국의 품에 안긴 일들이 어디 한둘이요. 동무의 옛친구가 그래도 말년예나마 조국방문의 길에 오른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장마에 시내물이 탕수가 되었다 해도 그건 한순간이지 바탕은 절대로 흐려지지 않거던.

진우동무, 옛날부터 숙인 머리는 बे지 않는다고 했소. 너그럽게 지나간 일을 삭이고 크게 마음을 가집시다.》

《잘 알겠습니다, 장군님. 제 좁은 소견을 가지고 그만 장군님의 뜻을 잘 받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이보오 진우동무, 한테 가진 왜 가겠소, 제 땅이 있는데. 오라고 합시다. 새 작품을 완성한 다음 문화성의 명의로 초청해서 〈아리랑〉 공연도 구경시키고, 내 의견은 아예 그의 음악회도 조직하면 좋을것 같구만.

림동무, 그때 다 계산하시오 불기도 치고 엄하게 꾸중도 좀 하고. 그러나 너무 되게 다블리진 마오》

그이께서 해학적으로 말씀하시자 둘러선 인민군 지휘성원들속에서 시원한 웃음소리가 터져올랐다. 그것은 부드러운 밤공기를 즐겁게 흔든다.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저편 키높이 서 있는 가로수사이로 《아리랑》 훈련에 참가한 학생출연자들을 실은 차행렬이 불빛을 흔들며 지나가는것이 보인다. 노래소리는 거기서 들려오고있었다.

4월도 봄명절 우리 장군님
초소의 병사들 찾아가는 길

야영을 떠나는 아이들 보며

차창에 손저어주시네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

...

《얼마나 좋소. 나는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 좋은 노래는 백천마디 말보다 뜻이 깊거던. 혁명이야 이런 멋에 하는거지. 자 동무들, 그럼 이제 한바탕 달려봅시다.》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던 **김정일** 동지께서는 유쾌한 어조로 일행을 재촉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진우에게 손을 내밀며 격려해주시었다.

《림진우동무, 한번 마음을 먹고 1900년대부터 오늘까지 민족의 백년사를 통채로 끌어안고 몸부림쳐보시오, 나는 진우동무를 믿습니다.》

《장군님, 고맙습니다. 제 꼭.》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모신 야전차일행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림진우는 그이께서 타신 야전차가 시야에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냥 그러고 서있었다. 자격지심과 회한이 끝없이 밀려든다. 내 한생 **김정일** 동지를 스승으로 모시고 그이의 뜻을 예술에 구현하느라 애썼지만 아직도 멀었다. 내 언제면 저분의 경지에 이르게 될가. 이르기는커녕 헤아릴수만 있어도 과분하리라. 허나 나는 그렇게도 안될것이다. 예술이란 원래 신성한것이어서 아무에게나 자기의 뉘를 주지 않는다. 오직 예술의 진가를 아는 참인간에게만 자기를 드러내는것이 아닌가.

그랬다, 5대혁명가국을 창조하던 나날들이며 집단체조,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비롯하여 지나온 예술창작의 길을 더듬어보면 뇌리를 강렬하게 치는것이 있다.

조국과 인민, 민족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안고 시대와 력사에 투철한 참된 인간, 진실한 예술가만이 희세의 기념비적예술작품을 창조할수 있는것이니. 아! 내 언제면 저분의 경지를 다 헤아릴수 있을까. ...

그로부터 1년후 문화성의 초청으로 조국을 방문한 전상음은 진우와 감격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본 소감에 대하여 이렇게 썼다.

《그저 놀랍기만 하다. 예술을 통하여 인식되는 정치의 고상한 뜻과 지향, 정치에 의하여 가미된 예술의 신선미, 이것은 마치 트리스탄화성처럼 서로 배리되는것 같지만 조화의 극치를 이루며 이름할수 없는 애정의 충동을 누를수 없게 한다.

사람들사이의 신뢰와 협조가 점점 사라지고 끝없는 고독과 우울, 패일에 대한 불신, 생물학적먹이사슬관계만이 존재하는 자본사회를 굽어보며 이런 예술작품이 등장하였다는것은 얼마나 다행스러

유쾌한 《걱정》

류정실

기다려
이날을 기다려
봄명절의 이 아침
해빛안고 찾아오신 장군님 기다려
연분홍진달래도 꽃망을 터쳤는가

새로 일어난 현대적인 오리공장
정갈한 일터에
장군님 모신 기쁨과 행복
사양공처녀들 얼굴마다 넘쳐나네

희한도 해라
살이 통통 오른 오리때
깨끗하고 산뜻한 오리사에 굶니는 모습
기쁘시여 기쁘시여
우리 장군님 흐뭇이 바라보시는데

류달리 큰 오리 한마리
그만 중심을 잃었네
무거운 몸 가누지 못하고
모재비로 넘어져 두발을 버둥거리는 모양
즐거이 바라보시던 장군님심중에
유쾌한 《걱정》자아냈네

—빨리 가서 저 오리를
일으켜주어야 하지 않겠소?

순간 즐거운 폭소 터졌네
기쁘시여 못내 기쁘시여
장군님도 웃으시고
일군들도 처녀들도 한껏 웃었네
웃음속에 눈가에는
뜨거운것이 핏— 돌았네

사랑하는 인민들에게
고기와 알을 풍족히 먹이시려
우리 장군님 바쳐오신 헌신의 그 나날
시련받던 그날들이 눈앞에 어려와
사양공처녀들은 자꾸 목이 메었네

이제는 너무 살이 올라
균형을 잡지 못하는 오리를 보시며
우리 장군님 환한 미소속에 그려보시는가
풍성한 식탁을 마주한 인민들의 웃음소리
보다 행복한 우리 조국의 밝은 래일을

유쾌한 《걱정》속에 터치시는
장군님의 호탕한 웃음소리
멀리 저 멀리 조국방 방방곡곡에 메아리쳐갔네
그 웃음소리에 실려
시련의 구름 가신 이 땅위에
강성대국 봄하늘이 창창히 열려오고있었네

은 일인가. 아폴로가 제아무리 예술의 신이라 할
지라도 이런것은 만들어내지 못할것이다.

이북사람들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명실공히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친작이라고 말하고있다. 〈통일장〉창작과정에 이 사람의 불민한 과거를 아셨지만 아량을 베푸시고 외려 친구를 허물한다 탓하며 예술과 인간, 민족에 대하여 하나하나 일깨워주셨다는 그분, 비단 〈통일장〉뿐이 아니라 〈아리랑〉의 다른 매 장들에도 그분의 인간애와 예술세계가 깃들어있다고 하니 과연 옳은 평론이라 하겠다.

사실 예술이란 인간성정의 근본인 정의 반영이며 그것을 낳게 하는 힘에 대한 송가이다. 이렇게 놓고볼 때 〈아리랑〉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절감한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에 대한 이북사람들의 절대적이고 순결한 충실성, 민족의 무한한 신뢰와 믿음이다. 한마디로 사랑과 인덕의 정치로 민족의 역사발전을 이끄시는 그분이 계시여 통일의 그날은 반드시 올것이라는 확신이다.

〈아리랑〉!

세월의 년륜과 언제나 따라올리며 이 민족의 마음을 저리게도 적셔온 이 노래, 해묵은 력사의 락업을 들추어보면 그저 세태며 풍월이요, 기껏해야 향촌자랑이였고 전민족적인 애가로 불리워졌던 1926년 그때에도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통탄과 슬픔을 터뜨리는 비가였던 이 〈아리랑〉!

그랬던 이 노래, 늘 울울한 비통과 애수에만 싸여있던 이 〈아리랑〉이 오늘 새로운 뜻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영광되게 들리는것은 바로 이때문이 아니었던가.

백번 듣느니 한번 보는것이 낫다는 속담이 있다.
사람들이여!

지금 이북에서 부르는 많고많은 〈아리랑〉곡조에도 있지만 그래도 평도자와 인민이 하나로 뭉친 이북의 무한대한 힘이 무엇인가를 알려거든 평양에 오시라. 아니, 우리 민족의 참된 모습과 고결한 인간정서를 보려거든 여기 룡라도에 와서 몇천 몇만이 하나가 되어 부르는 민족의 노래를 들으며 너도나도 우리모두의 심장을 하나로 달구어보자!》
라는...

태양의 품속에서 영생하는 작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이 발휘한 이 숭고한 충실성을 본받아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의 영웅전사들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주시고 끝없는 영광과 행복에 이끌려 주시는 수령님께 충성다하는것을 혁명전사의 신성한 혁명적의리로 여기고 수령님을 위하여, 당과 조국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싸웠습니다.**》

작가 리동규는 언제나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안고 생의 순간순간을 값있게 살았기에 최후도 수령님을 위하여, 당과 조국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마칠수 있었다.

작가는 1913년 가난한 품팔이군의 아들로 출생하여 보통학교를 다니고 13살부터 소년로동을 하였다.

그후 그는 《카프》(《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의 약칭)에서 신진으로서 적극 활동하다가 일제경찰에 체포되어 여러해 감옥살이도 하였다.

작가는 해방후 주체35(1946)년부터 출판보도부문과 교육기관에서 일하면서 창작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종군작가로 활동하다가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

작가는 이미 해방전 소년로동자로 나섰던 그때에 벌써 시를 쓰기 시작하였다.

그 첫 작품은 13살때 쓴것으로서 당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무산자아리랑》이다. 시는 거지꼴로 불리우던 빈민촌에서 태어나 뼈가 굳기 전부터 가혹한 노예로동을 강요당했던 그의 눈물겨운 생활을 담은것이였다. 작가는 자기의 눈물겨운 체험에 기초하여 하루일을 마친 뒤에도 석유등잔불아래서 한자한자 씹어가며 작품을 쓰게 되였다.

그후 작가는 자기의 눈물겨운 처지를 반영하여 창작한 단편소설 《우박》, 《여름》, 《어느 한로인의 죽음》 등을 발표하였다.

당시의 참담한 현실을 작가는 《노래를 부르는 자》에서 이렇게 절규하였다.

우리의 노래는 피끓는 노래
주먹을 쥐게 하고 이 갈게 한다

작가의 그 눈물겨운 생활에서 벗어나게 한 것처럼 기다리던 조국해방의 날이 왔다.

조국해방, 위대한 수령님께서 피어린 항일무

장투쟁을 벌려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안아오신 조국해방! 정녕 해방의 그날은 작가에게 있어서 일생의 크나큰 감격과 기쁨이 아닐수 없었다. 이 감격을 작가는 해방후 첫 작품 《우리의 노래》에 담았다.

작가는 이 작품을 남조선에서 일제패망의 소식을 듣고 만세소리를 높이며 서울거리를 달려나왔던 주체34(1945)년 8월의 그날에 썼으며 그후 작곡되어 소리판에까지 올리게 되었다. 계속하여 작가는 남조선에서 해방의 은인이신 민족의 위대한 태양 **김일성**장군님을 끝없이 흠모하며 연극 《태양을 그리는 사람들》, 《새벽의 노래》 등을 창작하여 공연하였다.

조국이 해방되었지만 남조선의 현실은 작가로 하여금 다시금 항거의 붓을 들고 나서게 하였다. 한것은 미제가 강점한 남조선현실이 일제시대와 더 다를것이 없었기때문이었다. 그러기에 작가는 남조선현실에 침을 뱉고 자기가 것처럼 동경하는 북조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고 인민이 주인되어 사는 참다운 어머니조국을 우리르게 되었다.

주체35(1946)년 6월 작가는 다른 문인들과 함께 것처럼 동경하여마지않던 북조선에 들어와 아버지수령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

작가가 다른 작가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의 품을 찾아 서울을 떠날 때 그의 안해는 임신중이였다. 북조선에 들어온 작가는 남쪽에 두고온 사랑하는 안해생각으로 잠을 이룰수 없었다.

작가의 그 생각, 그것을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모두 풀어주시였다.

사실 그때 아버지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한 연락원이 서울에 갔었다. 하지만 이런저런 사연으로 작가의 안해를 데려오지 못하였다.

이것을 아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작가의 가족을 데려오지 못한 연락원을 나무람하시며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가족을 평양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다시금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리하여 그 연락원은 다시 서울로 가게 되었으며 작가의 가족을 모두 위대한 수령님의 품으로 데려올수 있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작가의 가족이 평양에 온 다음 그에게 5칸짜리 살림집을 마련해주시고 식량, 이불, 부엌세간까지 일일이 보내주시였다.

참으로 이것은 친아버지만이 베풀수 있는 위대한 사랑이였다.

북조선에 들어온 작가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정치적신임으로 출판보도부문의 책임적인 직무

를 맡아하면서도 작품창작에 열중하였다.

그후 그는 주체37(1948)년에 민족간부양성의 중요한 기지의 하나인 평양사범대학(오늘의 김형직사범대학) 조선문학강좌장으로 파견되었다.

대학교원으로 일하면서 교육사업의 것처럼 바쁜 속에서도 작가는 많은 논문과 함께 우수한 작품들을 창작발표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품에 안겨 작가는 《복귀》, 《합성》, 《그 전날 밤》 등 소설창작과 함께 《현대조선문학사연구의 체계》, 《조선어문법 체계》 그리고 초고중문학교과서와 초급중학교 조선어문법교과서 등 많은 논문들과 교과서편찬사업에 진행하였다.

그러던 주체39(1950)년 6월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작가는 위대한 수령님의 방송연설을 높이 받들고 용약 전선에 탄원하였으며 수령님의 존함이 모셔진 종군작가의 신임장을 가슴에 품고 전쟁승리에 떨쳐나서게 되었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안해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믿고 따라야 하며 아이들을 장군님의 충직한 아들딸들로 잘 키워달라고 신신당부하였다.

종군의 길에 나선 작가는 인민군대와 함께 남으로 남으로 진격하면서 종군기 《해방된 서울》, 수기 《잊혀지지 않는 참상》, 현지실화 《함정골》, 종합종군기 《수원에서 광주》, 실화 《토지받은 농민들》 등을 써서 발표하였다.

락동강계선까지 나갔던 작가는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시기 조국통일의 그날을 그리며 남쪽에 계속 남아 싸울것을 결심하고 지리산에 떨어져 싸우게 되었다.

작가는 전쟁의 그 엄혹한 시기에도 자기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파견해주신 종군작가라는 자각에 넘쳐있었으며 더우기 자기가 해방후 북조선에 들어와 위대한 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만나뵈옵던 감격을 순간도 잊지 않고있었다.

주체35(1946)년 10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당시 민주조선사 편집부장으로 일하고있던 작가를 댁으로 불러주시었다.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마당에까지 나오시여 기다렸다고 하시며 작가를 따듯이 맞이해주시었다.

방에 들어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작가에게 담배까지 권하고 불까지 붙여주시며 서울에서 부인과 아이들까지 다 들어왔는가, 모두 건강한가를 친어버이심정으로 따듯이 물어주시었다. 그리고나시여 그이께서는 나라의 귀이며 목소리인 통신사를 빨리 내와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그에게 북조선 통신사 창립준비사업을 책임지고 할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맡겨주시었다.

이때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조용히

방에 들어오시여 어버이수령님께 식사시간이 되었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시계를 보시며 벌써 식사시간이 지났다고 하시며 작가를 손잡아 식탁으로 불러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차려주신 점심식사까지 대접받게 된 작가가 몸둘바를 몰라하는것을 보시고 우린 그저 이렇게 산다고 하시며 파곤한 만두국을 끓여오도록 이르고 제 집처럼 생각하고 마음껏 들라고 몇번이나 이르시었다.

이날 작가는 만두국에 몇가지 반찬이 전부인 우리 수령님의 점심상을 보면서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작가는 자신께서는 이토록 겸소한 식사를 하시면서도 지난날 남조선에서 사람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던 자기에게 사소한 불편한 점이라도 있을세라 모든것을 아낌없이 돌려주시는 어버이 그 사랑에 목이 짝 메여 수저를 들수 없었다.

작가에게 통신사창립준비사업을 맡겨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후에도 작가의 사업과 생활에 깊은 관심을 두시고 통신사창립준비사업에서 걸리고있는 모든 문제들을 일일이 최우선적으로 풀어주시었다.

그후 어버이수령님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핌속에서 주체36(1947)년 1월 1일 우리 나라에서 첫 통신이 발행되게 되었다.

그 첫 통신이 나왔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밤늦게까지 일하는 그에게 고급양복지와 구두를 보내주시고 그후에는 그의 출퇴근을 녀려하시여 고급승용차까지 보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

이런 크나큰 사랑을 받아안았기에 작가는 생사를 판가름하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오직 우리 수령님만을 따라나섰던것이다.

작가는 백두산위인들을 언제나 그리였기에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지리산인민유격대에서 자기의 본분을 지켜 용감히 싸울수 있었다.

그는 지리산에서 적들과 싸우던 마지막최후의 순간에 《**김일성장군**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고 장렬하게 희생되었다.

지리산인민유격대에서 작가와 함께 싸우던 동지들은 오늘도 말하고있다.

《리동규동지는 적구의 준엄한 환경속에서도 언제나 대원들을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으로 교양하였습니다. 그의 말은 조용하고 담담했고 심장에서 우리나온것이어서 설득력이 강하고 감화력이 컸습니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흠모심을 안고 살았기에 빛나게 생을 장식할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작가는 이미 우리결을 떠났지만 공화국 작가로서의 삶은 오늘도 살아있다.

세월은 멀리도 흘렀다. 하지만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작가의 고귀한 삶을 잊지

않으시고 그에게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었다.
주체83(1994)년 5월 어느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작가에게 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그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은
크나큰 사랑을 받아안던 날 작가의 안해는 이
렇게 말하였다.
《40여년전에 한 이름없는 전사로 전선으로 떠
나던 그이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품속에

서 영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이는 살아있어
요. 영원히 생명을 간직하고 살아있어요.》
적후에서 최후의 순간에 《김일성장군 만세!》
를 소리높이 웨친 작가는 오늘도 살아있다. 순간
을 살아도 값있게 산 그 삶, 영웅작가의 고귀
한 삶은 오늘도 우리 작가들과 군대와 인민의 기
억속에 영원한것이다.

림 영 주

시목음

국제친선전람관이 전하는 이야기

량 원 익

대 형 버 루

조선의 2월명절 전야에
평양에 못 닿으면 무의미하리라고
꿈에도 생각해온 중국의 벗
대형버루 선물로 안고
승용차로 급히 떠났다고

어느 한 제작소에서 그만
시간을 지체한 그
한생에 이런 촉박감 언제 있었으랴
비행장에 런락하고
전속으로 전속으로 달리었다오

지금은 진렬장에 놓여있는 대형버루
사상리론의 영재이신 우리 장군님
건강장수하시라
아름벌게 넓은 밤색뚜껑에
금홍빛 둥근 태양 사슴과 소나무들
방불하게 부각한 버루를 안고

퍼그나 달렸건만 아직도 먼길
이제 비행기만 놓치면

그토록 축원해온 마음뿐이라
낮과 밤 교대제로 백날을 바친
공예가들의 지성도 빛을 잃는데

어데도 비길데 없는 안타까운 그 마음
차창밖의 가로수도 리정표도 모두 놓히며
한초한초 하루같이 세이며 온듯
그만해야 불쑥 항공역에 들어서니
이 아니 꿈이런가 생시런가

눈물이 핑그르르...
비행기는 30분나마
리륙을 못하고
세관에선 엄숙한 거수경례로 통과시켜주고
승객들은 뜨거운 눈인사로 맞이해주고

그제서야 은빛날개 구름우에 등실 뜨니
아, 비행기도 승객들도 2월 16일!
태양을 향해 마중가는듯
태양이 펼쳐준 길을 따라 왔더라고
오늘도 대형버루는 전하여주오

장점들은 찾아온다

발악하는 제국주의아성에
최후멸망을 퇴성치며 선고하는
선군의 번개빛이
여기 정의의 장점들에 비졌는가

우리 장군님께
대통령들과 군사령관들이 올린
《디마스프장점》, 《요르단장점》
그리고 또 《돈 까자크장점》...

그 어느 장점을 높이 뽑아들어도
번뜩이는 빛발과 칼날면에 새긴 글발들
그것은 총대우에 사회주의도 있고
조국도 평화도 있다는
조선의 장엄한 선언에 대한
시대의 화답이기도 하거니

선군의 보검으로 이 땅에서 불구름 밀어내고

강성대국의 려명 안아오신 우리 장군님께
경의를 드리려 장검들은
대통령들의 집무실벽면을 떠나왔다
군사령관들의 작전대를 떠나왔다

지략으로 명성떨친 장군들의 장검도
천군만마 이끌고 질풍같이 내달으며
멸적의 기개 떨친 승리의 장검도
그이께 최대의 영광드리려
먼 산발아래 도시와 광야의 마을에서 왔다

용맹도 담력도 그이 슬하에서 다지려
영예도 위훈도 그이 우러러 빛내려
반미항전의 지휘소들에서

불같은 맹세안고 온 장검은 또 얼마

오, 정의와 평화수호의
모든 장검들의 념원을
위대한 보검속에 거머쥐시고
언제나 반제군사전선의 진두에 서계시는
절세의 선군령장 **김정일**장군!

보는가 세계여
오늘도 우리 장군님 찾아오는 장검들을
위대한 보검의 두리에
끝없이 뭉쳐지는 정의의 장검들을
장검들에 어리는 정의와 진리의 빛발을

하늘과 땅이 드린 증서

일찌기 하늘을 아버지로 믿고
땅을 어머니로 믿으며
무한대한 힘의 보호와
인간사랑을 갈망한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었구나

아메리카대륙의 한 원주민들
조상적부터 온갖 재난 막아달라고
하늘에도 빌고 땅에도 빌며 그려온
모래미술작품—
《하늘아버지와 땅어머니》

검고 푸른 두개의 나무판에
하늘아버지의 모습은 천체로
땅어머니의 모습은 식물로
번두리를 화살로 장식한
문화유산으로 전해지는 화폭

들어보자
아메리카대륙의 자선단체대표여
그대는 원주민도 그 후손도 아니건만
어찌하여 이 화폭 한점 소중히 안고
머나먼 대륙과 대양을 횡단해왔던가

그대는 보았구나 지구의 여러곳에서
쏟아지는 불비에 하늘땅이 뒤집힐 때

아이들의 하얀 연이 춤추며 날아오르는
선군조선의 맑고 푸른 하늘을

그대는 또 보았구나
자연의 재난속에 사람들 아우성칠 때
큰물진 도시에서 사랑의 직승기로
산모도 새 생명도 구원되어 인구가 더 늘어난
선군조선의 복받은 땅을

아 지구의 특별보호구역인듯
전설같은 이 현실
오랜 세월 인류에게 닥치는 재난을
한번도 막아줄래야 막아줄수 없었던
하늘과 땅이 먼저 보고 경탄했으니...

무한대한 힘의 보호도 선군
무한대한 인간사랑도 선군
그 방패 드시고 인민을 보살피시는
조선의 **김정일**장군
그이이시야말로 하늘아버지, 땅어머니!

내 두손높이 받쳐들고 자랑하고싶구나
이런 국보 내 조국에만 있다고 웨치고싶구나
세상 처음 하늘과 땅이
성인중의 성인이신 우리 장군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며 증서로 올린 화폭이여

○ 경구, 격언 ○

- 《시의 내용이란 진리에서 나옴이라 되는데로 가져다붙일수 없다.》
- 《잘된 시는 오래 짓씹지 않아도 제맛이 난다.》
- 《학문이 깊어지면 속도 넓어진다.》
- 《진리를 찾는데 재미를 붙이면 가난해도 굶주려도 근심하지 않는다.》
- 《시는 샘물과 같아 돌에 부딪치면 흐느껴 울부짖고 못에 고이면 거울처럼 비친다.》
- 《진리를 찾아 나아가면 정녕코 얻는바가 있다.》
- 《서거에 가득 책을 꽂아놓고 가난을 탓하지 말라.》
- 《부자의 재산이란 바람속 초불과 같다.》

장군님과 기업가 외 1편

김 경 남

정든 고향집에 온듯
잠 못 드는 평양의 밤
이밤 새면 정녕 떠나야 하는가
인생의 황혼을 사는 남녘의 기업가
이제 가면 존귀하신 장군님영상 다시 못 뵈을듯 해
마음의 안정을 못 찾던 기업가

저 먼 북방의 현지도길에서
기업가의 절절한 소원 받아안으신 장군님
늙은이를 먼곳까지 부를수 없다시며
정적짓든 천리밤길 달리시는 장군님
날밝아 가셔도 되련만
이밤안에 평양에 들어서신 장군님

집 떠난 어머니 기다리는 자식의 육감인가
야전차 경적소리, 귀익은 발자욱소리...
분명히 장군님이시다
황황히 달려나오는 늙은 기업가
뜨겁게 손잡고 하시는 장군님말씀
—현지도길에서 올라오다보니
이렇게 밤늦게 만나게 되어 미안합니다

한 인생에게 밝은 빛을 주시려
밤새워 오셨건만
오히려 미안하다 말씀하시니
수수년전 헤어졌던 어머니품에 안기듯
기업가는 장군님품에 얼굴 묻었네

한가정 둘러앉은 단란한 저녁상인가
오고가는 말마디도 한가정의 정든 이야기인데
장군님은 말씀하시네
늙은이가 불편해하니
팔걸이의자로 바꾸어드리라고

맺은 정 영원히 안고 살자
기념사진 찍어주실 땐
나이많은분을 가운데 모셔야 한다시며
기업가는 가운데 자신은 옆자리에 정하시고
기업가의 두손 꼭 잡으시고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선구자가 되라고
뜨겁게 고무해주셨네

아, 이끌어줄 손이 없어
황량한 들을 방황하던 기업가
이밤, 80고령에 인생의 첫결혼마 떼였는가
기업으로 애국애족하는 리치를 깨쳤는가
기업가는 심장의 고백 터쳤네
위인이 있어 애국애족을 위한 기업이 있다고
애국애족에 바쳐진 재부만이 빛을 뿌린다고...

세월은 흘러 기업가는 세상을 떠났건만
그밤의 이야기 저 하늘의 별들이 전설로 전한다
기업가일가에 대를 이어 철리로 전해주네

10월의 선언이여!

통일은 이제 소원만이 아니어서
그것은 확신이고 락관이며서
겨레가 거두어들일 열매여서
10월에 태어났는가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의 선언》이여!

그것 없이는 네가 태어날수 없고
그것 없이는 네 열매 무르익힐수도 없어
7천만의 넋을 모아
우리 장군님
6월의 선언과 더불어
금언으로 새겨넣으셨다
《우리 민족끼리》를

세기가 교차되는 력사의 그 기슭
우리 장군님

무성하는 그 6월에 고고성을 터쳐주시여
7년세월 거목으로 키워주신
아, 《우리 민족끼리》여!

10월의 선언이여
너는 《우리 민족끼리》거목우에
주렁진 열매가 아니더냐
자주의 열매
평화의 열매
화해협력의 열매...

그 열매
《우리 민족끼리》의 거목우에 주렁져서
남이 아닌 우리 민족끼리
가꾸고 무르익히는 열매여서
그 열매

품어안아 키워주는
선군의 총대우에 주렁저서
찬서리 내려도 얼지 않고
비바람 몰아쳐도 떨어지지 않고
그 어떤 잡균도 침습 못하리니

겨레여
우리 잡은 손 더 굳게 잡고
바치는 정과 열 더 뜨거우면
외세가 제아무리 우리 열매 탐내어도
보수가 제아무리 우리 열매 횡방놓아도
우리 열매

수 필

천지개벽에 대한 생각

김 달 수

하루가 다르게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는 선군시대에 와서 우리는 천지개벽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많이 쓰고 있다.

담고있는 내용과는 다르게 이제는 범상하게 들리는 이 천지개벽이라는 말의 의미를 나는 우리 마을의 전변앞에서 다시금 되새겨보게 되었다.

사리원시 교외의 정방산기슭에 자리잡고있는 우리 마을은 《돼지골》이라는 아름답지 못한 이름으로 불리워왔다. 그리 크지 않은 돼지목장이 자리잡고있었었다.

길성천이 흐르고 몇십채의 살림집과 돼지목장이 자리잡고있던 한적한 곳에 바로 현대적인 사리원 돼지공장이 일떠섰다.

이 공장은 건물들도 그렇고 지붕들까지도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등 여러가지 색깔로 단장하여 마치 동화속의 건물같았다.

맑은 날이면 그 여러가지 색들이 맑은 길성천물 위에 그대로 비끼는데 그래서인지 아지랑이가 피어나는 때면 마을 상공에 그리고 마을앞으로 시원히 뻗은 도로에도 아롱아롱한 무지개가 생겨나곤 하였다.

돼지공장이 일떠서자 나의 어머니가 이 소식에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나의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돼지기르기와 인연이 깊은터여선지 지금도 년로한 몸임에도 손에서 일을 놓지 않고있다. 해마다 많은 돼지를 길러 발전 소견설장과 인민군대에 보내주는 어머니는 언제인가 《황북일보》에 자그마한 기사의 주인공으로 소개되었던 궁지도 간직하고있었다.

어느날 내가 집에 들어서니 어머니가 이렇게 물었다.

《새로 일떠선 돼지공장에 가보았느냐?》

《예.》

《거기서도 돼지를 기르겠지?》

《예?》

《그런데 목장이라고 하지 않고 왜 공장이라고 하느냐?》

그때에야 나는 어머니의 말뜻이 이해되었다. 지

한알 허실이 없고
우리 열매
한알 쪽정이 없이
탐스럽게 무르익으려니

통일의 려명이 밝아온 6.15시대에
우리 민족끼리 무르익히는 이 열매
이제 이 열매 거두어들일 땐
우리 겨레 손잡고 환희에 넘쳐
통일의 해님 우러러
큰절을 드리자

금까지 돼지란 수공업적인 방법으로 키우는것으로만 알고있는 어머니였다.

그래서 나는 저 공장에서는 가정에서와는 달리 먹이공급으로부터 청소, 온도조절까지 모두 자동적으로 하고있다는것을 설명하였다.

《그래도 〈뜨물〉을 먹여 키우겠지?》

어머니는 종시 이해를 못한듯싶었다.

나는 주름살이 더욱 깊어진듯싶은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제는 돼지기르는 일을 그만두지 않겠는가고 묻고싶었다.

언제부터 하고싶던 말이였다. 년로한 몸에 돼지를 키우느라 별의별 곳은일을 다 하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민망스러웠던터였다.

나라의 곳곳에 현대적인 돼지공장들이 일떠서고있는 오늘 년로하신 어머니가 일손을 놓는다고 나 무람할 사람도 없지 않는가.

몇십년을 돼지기르기에 정열을 바쳐오고있는 어머니는 돼지라면 모르는것이 하나도 없는 《돼지박사》가 되었다.

돼지목장에서도 이따금 어머니를 모셔가곤 하였다. 거기에 한다하는 수의사들이 수도룩하였지만 어머니앞에서만은 허를 내두르곤 하였다.

《돼지라는건 그저 먹고 자고만 하는 짐승이니 뭐니뭐니해도 먹이에 신경을 써야 하네. 저 눈알이 빨간 돼지를 보게. 아침에 소금에 절였던 풀을 그대로 삶아주었지.》

지금까지 돼지기르는 일은 어머니의 뻔수 없는 일과로 되어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시내중심에 번듯하니 일떠선 다층살림집 입사증도 두번씩이나 사양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어머니, 매일 저와 함께 돼지공장에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불쑥 나온 말이였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대적으로 꾸려진 공장에서 생산되는 돼지들을 보고나면 혹시 어머니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그러자꾸나.》 어머니도 순순히 응하였다.

그 다음날 나는 어머니와 함께 돼지공장을 찾았

다. 몇번 취재하는 과정에 낯을 익힌 몸매가 흰칠한 공장기사가장이 우리를 안내하였다.

우리는 위생소독을 한 다음 흰 위생복을 입고 구내에 들어섰다. 색조화를 이룬 수십개의 호동들은 하나같이 산뜻하였는데 그때문에 파랗기만 한 하늘까지도 여러 색깔로 아롱아롱해보였다. 처음 오는 사람들은 돼지공장이 아니라 어느 이름난 휴양소에 오지 않았는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여기가 엄지돼지들이 있는 호동입니다.》

기사장이 앞의 호동으로 우리를 이끌며 하는 말이었다.

드넓은 호동에 짝 들어찬 돼지들을 바라보며 어머니는 감탄했다.

《돼지들이 정말 많긴 많구나.》

어머니는 한곳으로 다가가 돼지의 크기를 손뼉으로 가늠해보더니 놀라는 것이었다.

《에그, 이놈이 그레봐도 120kg은 더 넘겠구려.》

《예, 석달반짜리들입니다.》

어머니의 눈이 화등잔만큼이나 커졌다.

《여기서는 뭘 먹이게?》

기사장이 빙그레 웃으며 옆에 있는 빨간 단추를 누르자 한두줄가량의 먹이가 그릇우에 팍 쏟아졌다.

《우리는 이 배합사료를 먹여 키웁니다. 여기서는 돼지를 키우는 모든 공정들이 다 자동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이 수백마리의 돼지들을 한명의 관리공이 키우지요.》

어머니는 입을 향하니 벌린채 아무 말도 못한다. 《돼지박사》가 여기에 와서 병어리가 된셈이다.

매 호동들을 차례로 돌아보며 우리가 새끼돼지 호동으로 갔을 때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요것들은 하루에 몇번씩 목욕을 하는 우리 새끼돼지들보다 더 깨끗하구나.》

컴퓨터조종실로 기사장은 우리를 안내하였다.

《여기서도 수천마리의 돼지들에게 먹이는 배합사료를 단 한명의 운전공이 만들어낸답니다.》

정말 보고 듣는것들마다 모두 회한한것들이었다.

《어머니, 이 공장의 한채의 호동, 하나하나의 설비들에도 우리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이 깃들 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 이런 현대적인 돼지공장을 빠른 기간에 일떠세우도록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몇년전 12월 몸소 여기에 찾아오시여 이제는 인민들에게 고기를 더 많이 공급하게 되었다고 그렇

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앞으로 공장을 잘 꾸리고 관리운영을 정상화하여 더 많은 돼지고기가 인민들에게 차례지게 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안은 충격이 너무 커서인지 어머니는 공장을 다 돌아보고나서도 선뜻 발걸음을 떼지 못하였다.

한가정의 식탁에 고기를 드문히 놓자고 해도 얼마나 많은 품이 들어야 함을 너무도 잘 아는 어머니였다. 이 나라 인민들모두에게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바쳐가시는 그 로고가 헤아려져서인지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굽을 찍었다.

우리가 마을 언덕우에 올라섰을 때 어머니는 다시 돼지공장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정말 우리 장군님께서 나를 위해 저 공장을 세워주신것만 같구나. 말이야, 이렇게 바라보니 우리 마을이 정말 멋있구나. 이런걸 보고 천지개벽이라고 하지.》

그 말을 듣는 나의 가슴도 뭉클 젖어들었다.

아, 우리 장군님.

《삼복철강행군》의 나날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훌륭한 인민을 위하여 땀을 흘리며 강행군할 때가 제일 마음이 편하고 백날을 호강하는것보다 더 좋다고 하신 말씀이 나의 머리를 친다.

우리 인민을 잘살게 할수만 있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와야 한다는것이 우리 장군님의 의지였다.

바로 그래서 이 나라 곳곳에 인민들을 위한 현대적인 돼지공장, 닭공장들을 수없이 일떠세우고 계시는것이 아닌가.

우리 장군님 바치시는 인민에 대한 그 헌신의 자욱자욱이 있어 우리 《돼지골》마을도 이렇듯 짧은 기간에 인민의 무릉도원으로 천지개벽을 한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천지개벽된 현실이 우리를 마중하는 선군시대, 이 시대를 령도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고마움에 잠긴 나의 눈앞에 길성천우의 마을에 비낀 무지개가 안겨왔다.

돼지공장이 생겨 우리 마을에 피어난 무지개.

정녕 그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마련된 우리 조국의 행복상이었다.

무지개 비낀 아름다운 사회주의선경은 우리 마을뿐아니라 이 나라 곳곳에 수없이 늘어나고있다. 그 미래는 정녕 아름다운것이리라.

조 선 속 담

말

- 고기는 씹어야 맛이 나고 말은 해야 맛이 난다
-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듣지 말라
- 관속에 들어가도 막말은 말라

- 귀소문 말고 눈소문 내라
- 말 안하면 귀신도 모른다
- 문바른 집은 써도 입바른 집은 못쓴다
- 바람벽에도 귀가 있다
- 벽에도 귀가 있고 돌에도 입이 있다

값높이 떨어라, 조선지식인의 빛나는 삶을

—장편소설 《달라진 선택》을 두고—

김선일

민족의 녀과 기상을 안고 조선지식인의 긍지와 보람을 인류지성의 링마루에서 값높이 떨어라.

이것은 급병으로 위기에 처한 한 해외동포를 치료해주었으며 국제적인 고려의학강습에 강사로 출연하게 된 의학대학 교원이며 의사인 주인공의 형상을 감동깊이 그린 장편소설 《달라진 선택》(강선규 작)이 우리에게 하는 강렬한 호소이다.

소설은 교원과 의사, 기자 등 지식인들의 평범한 생활을 시대적 높이에서 독특하게 그려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소설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늘 목격할수 있는 평범한 생활의 본질을 드러내며 평범한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있는 숭고한 정신세계를 전형화하여 보여주어야 한다.》

소설은 대학교육부문을 취급한 작품이다.

강성대국건설을 실력으로 받들어나가는 우리 지식인들의 심장은 어떻게 고동쳐야 하는가를 예리하게 파고든 소설의 형상세계는 극히 자연스럽다. 그러나 거기에는 뚜렷한 자기의 목소리가 있고 격동하는 시대의 숨결이 있다.

1. 이젠 《새땅》이 아니다

흔히 작가에게 있어서 자기의 발, 창작의 터전을 가졌는가 못 가졌는가 하는것은 창작적개성을 조건짓고 그 성공을 담보하는 중요한 전제이다.

폭넓고 다양한 현실생활을 한들의 작가에 의해서도 한두편의 작품에 다 담는다는것은 불가능할뿐 아니라 그럴 필요도 없다.

어차피 작가는 생활의 어느 한 분야를 취급하면서 시대와 인간에 대하여 말하게 된다.

창작의 터전문제는 이렇게 제기된다.

지난 시기 우리 문학사를 더듬어보아도 그렇다. 로동계급작가, 농촌작가, 전쟁작가 등으로 불리운 수많은 작가들이 성과적인 작품을 내놓고 뚜렷한 창작적개성으로 우리 문단을 빛내이는데 이바지하게 된것은 그들이 자기 창작의 믿음직한 터전을 가지고있은것과 관련된다.

혁명이 전진하고 시대가 발전할수록 새로운 생활분야가 끊임없이 개척되고있는 오늘 우리 문학의 주제영역이 부단히 확대되어야 할것은 명백하다.

여기서 우리 작가들이 먼저 눈을 돌려야 할 분야는 자기가 발붙이고 선 생활이다.

작가도 역시 인간인것만큼 생활밖에서 존재할수는 없다. 그런데 작가가 그 어떤 비상한 인간성격을 찾아 헤매이면서 류다른 생활분야를 모색한다면 창작에서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자기의 몸에 배인 생활속에서 어깨를 맞붙이고 사는 사람들의 세계를 깊이 파고들 때 의의있는 종자를 발견할수 있고 기름진 생활화폭을 창조할수 있다. 즉 체험문학을 할 때 성과를 바랄수 있을것이다.

장편소설 《달라진 선택》이 독자들의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비결은 무엇보다도 탁상문학, 취재문학이 아니라 체험문학을 한것과 관련된다.

소설은 선군시대, 정보산업시대 대학지식인들의 삶의 가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있다.

이 문제를 의학대학과 병원이라는 무대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 한마디로 소설은 새 세기 대학교육문제를 취급한 작품이다.

대학교육부문은 사실 우리 문단에서 이여의 주제영역에 비해 크게 관심이 돌려지지 못한 분야이다.

지난 시기 지식인문제, 교육문제를 취급한 소설들이 적지 않게 창작되었지만 대학교육문제는 별로 다치지 못했었다. 이여의 작품에서 간접적으로, 보충적으로 취급한것이 고작이었다.

결국 대학교육부문은 우리 소설문학에서 독자적으로, 정면에서 취급되지 못한 《새땅》이었다고 할수 있다.

그런데 대학교육을 취급한 중편소설 《교정의 룰리》가 나왔다. 《새땅》이었던 대학교육부문에 첫 보습을 박은 작품이라고 할수 있다.

작가는 이러한 창작경험과 자기의 오랜 생활체험에 토대하여 이번에 다시금 대학교육부문을 취급한 장편소설을 내놓았다.

늦은감은 있지만 대학교육부문을 취급한 장, 중편소설이 나오기 시작한것은 의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지난 력사적시대에도 교육문제, 인재문제가 중시되어왔지만 정보산업시대에 들어선 오늘처럼 교육문제, 인재문제가 그토록 크게 나선 때는 일찌기 없었다.

세계적으로 치열한 두뇌전이 벌어지고 지식경제 시대가 급속히 발전하고있는 오늘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은 대학교육의 질적강화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사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들마다 국제적인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인재양성에 얼마나 열을 올리고있는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혁명발전과 세계적인 추세를 예리하게 통찰하시고 선군혁명명도의 나날 교육부문, 특히 대학교육부문에 대하여 커다란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고계신다.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에서 돌아오시는 길로 나라의 과학기술인재양성의 원종장인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찾으신 력사의 자욱에서 그리고 쉬임없이 걷고 걸으시는 선군장정의 길에서 수많은 대학들을 찾으시여 주신 귀중한 가르치심에서 우리는 대학교육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강성대국건설을 떠메고나갈 인재양성에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가슴뜨겁게 느낄 수 있다.

지난해에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강성대국건설에서 기본은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 높은 수준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교육사업에서 틀어쥐고나갈 문제들에 대한 강령적가르치심을 주시였다.

현실은 대학교육주제작품을 훌륭히 창작하여 교육혁명을 적극 추동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이러한 때 장편소설 《달라진 선택》이 나온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수 없다.

대학교육부문을 취급한 첫 장편소설이다.

이제는 대학교육부문이 우리 문학에서 더는 《새땅》이 아니다.

기름진 토양에 여문 종자를 심고 가꾼다면 알찬 열매를 거두리라.

2. 《항생초》에 비긴 인생의 가치문제

인간에게서 삶처럼 귀중한것은 없다.

삶을 떠난 인간의 존재자체를 생각할수 없는것 이기에. 하다면 귀중한 삶을 어떻게 빛내어야 하는가. 다시말해서 값있고 보람있는 생을 빛내이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장편소설 《달라진 선택》이 해명하려고 한 기본문제이다.

소설은 그 어떤 비상한 정황에서 발현되는 극적인 인간성격을 그리면서 이 문제를 밝히려고 하지 않았다.

소설에서는 오늘날 우리 지식인들의 평범한 일상생활 그대로를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그리면서 인생의 참된 가치문제를 제기하고있다.

의학대학 교원이며 의사인 주인공 고원초와 그

를 둘러싼 다양한 인물들의 성격형상이 이 문제해명에 바쳐지고있다.

주인공 고원초의 또하나의 이름은 《항생초》로 불리우는것이다.

세상에 없는 약초이름인 《항생초》, 여기에 주인공의 성격적특질이 집약되어있다.

항생초, 한마디로 그는 남에게 덕을 입히는 사람이다. 다시말해서 대중에 대한 복무와 헌신을 일상적인 생활로 체질화한 인간성격이다.

학생들을 교육교양하고 환자들을 치료하는 나날에는 물론이고 탄광마을진료소에 실습을 나가있는 동안에도 언제나 그 어떤 사심이나 타산도 없이 남을 위해 자기를 깡그리 바쳐가는 인간, 그가 《항생초》이다.

대학졸업생들을 위한 축하모임장면은 그의 이러한 성격적특징을 잘 보여준다.

《...졸업생동무들! 우리 수령님께서 한평생 그리도 열렬히 사랑하시며 품어주신 우리 인민, 위대한 우리 장군님께서 제일로 아끼시고 내세워 주시는 우리 인민을 위하여 진심으로 자기를 바쳐 갑시다. ...》라고 말한 주인공은 《한생의 소원》이라는 자작시를 읊는다.

가없는 하늘아래 드넓은 대지
여기서 사는 사람 그 얼마일가
이 몸이 한모금 맑은 물되어
그네들 타는 가슴 적서준다면
아, 짹아도 기쁨 넘칠 나의 한생아

부귀로 누리는 삶 좋다 하지만
복무의 희열에야 어이 비기랴
내 정성 한떨기 웃음이 되어
그늘진 얼굴들에 피어난다면
아, 꽃처럼 아름다울 나의 한생아

미완성자작시를 학생들이 이렇게 마무리했다.

끝까지 걸으리라 변함이 없이
우리 당 이끄는 복무의 길로
나의 삶 한줄기 숨결이 되어
인민의 심장속에 스며든다면
아, 죽어도 영원히 살 나의 한생아

남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 삶, 여기에 《항생초》의 중요한 성격적특질이 있다.

그의 이러한 성격적특질은 탄광을 위해 한목숨 서슴없이 바친 아버지와 언제나 못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인재가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 자기에 게 침구술을 배워주고 참된 의학자의 자세를 가르쳐준 옛스승에게서 물려받은것으로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정신도덕적품모를 체현

한것으로 된다.

소설은 헌신과 복무의 정신을 체질화한 《항생초》의 성격특질에서 복무능력의 준비는 매우 중요한것이라는것을 강조하고있다.

즉 높은 실력을 소유하는것, 이것은 지식인이 사회와 집단을 위해 복무할수 있는 실제적인 기능으로서 이 기능이 없다면 바치고싶어도 바칠수 없다는것을 심각하게 제기하고있다.

시퍼렇게 자랄 때도 약이 되고 베어서 말리워도 약이 되는 약초처럼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을 송두리채 바쳐가는 인간, 바치는데서 생의 기쁨과 보람, 긍지를 찾는 인간, 여기에 시대적전형으로서의 《항생초》의 개성이 있고 삶의 가치가 있다.

《항생초》, 그는 때로 남의 《리익》과 《존엄》을 짓밟는 《파오》를 범하기도 하고 사업질서와 규률을 어기기도 하는 인물이다.

왜 그런가.

복무와 헌신을 체질화한 《항생초》에게 있어서 대중과 집단보다 자기 만족을 위한 타산부터 앞세우면서 처세기교에 매달리는 인간들을 용서할수 없었으며 자신의 깨끗하고 떳떳한 행위로 하여 그들의 어지러운 《타산》과 《리익》에 손실을 주게 된것과 관련된다.

소설은 여기에서 형식주의인생관의 타매문제를 제기하고있다.

의학대학병원 부원장인 부경산을 놓고 보자.

그는 자기의 직업과 사회적직위를 리용하여 불로소득의 기회를 조성하며 사리사욕을 채우는데서 능란한 재간을 가지고있다. 겉으로는 사회와 집단을 위해 일하는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상으로는 자기 리익을 추구하는 형식주의인생관이 그에게 자리잡고있는것이다.

환자치료, 논문지도, 제자들과의 관계 등에서 부경산의 이러한 생활방식이 일관되어있다.

대외사업부문에서 일하는 일군의 처제를 자칭 입원치료해주시기로 한것도 그리고 대학졸업후 중요직책에서 일하는 제자를 만나 그토록 반가와한것도, 말쑥없이 통과될 문제를 설정하고 기존자료를 이리저리 맞추어 학위론문을 완성하는 비결을 가르쳐준것도 실상은 자기의 리해관계로부터 출발한 것이었다.

소설은 이러한 부경산의 성격적면모를 예리하게 분석하면서 의학대학 교원인 주인공 고원초의 높은 자질과 헌신적복무정신으로 하여 그의 타산적인 계획이 실패하며 타매되는 과정을 그리고있다.

형식주의인생에 대한 가차없는 타매는 어느 한 기업소의 책임비서로 일하는 홍무갑의 대학시절 학파토론지도를 통해 《정신적계산칙》을 마련해주는데서도, 탄부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요란한 소리를 내며 《아름다운》소행을 발휘하여 자기의 체면을 살리고 소문과 평가를 얻으려는 석

탄공업성 국장의 안해인 인민대학습당 사서 현명순의 리기적인 타산에 대한 말없는 비판에서도 매우 예리하게 드러난다.

소설은 이러한 형상을 통해 지식인들이 사회주의체도를 위해 성실히 복무하면 사회주의우월성을 더 높이 발양시키는데 이바지할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사회주의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 기여할수 없다는 심각한 사상을 밝히고있다.

특히 혁명적군인정신이 내려치고있는 오늘날 자기자신을 위한 인생을 사는것보다 더 큰 죄악은 없다는것을 힘있게 강조한 여기에 이 작품의 사회적문제의 예리성이 있고 시대성이 있다.

무한한 헌신과 높은 복무능력을 가지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는 삶이야말로 우리 식 사회주의를 빛내이고 자기의 생을 가치있게 빛내이는 길이 있다.

이것도 소설이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진리이다.

그렇다, 지식인의 삶의 가치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복무의 크기에 비례한다.

3. 웃는 일요일

소설의 제7장 제목은 《웃는 일요일》이다. 발견적인 맛이 깃든 이 제목은 얼핏 보아도 독자들의 마음을 흥그럽게 해주면서 기대감을 가지게 한다.

무슨 내용일가?

어느 일요일 고등교육도서출판사 기자인 주문석이 고원초에게서 의학강의를 받으려고 계획하였다가 갑자기 허리병으로 쓰러진 예술단의 배우를 주인공이 치료해주는것을 목격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작품은 이러한 내용을 통해 주인공이 지닌 높은 의술과 뜨거운 인간애를 보여주면서 《바치는 능력》에 관한 문제를 해명하고있다.

여기에서 이 소설의 독특한 구성상문제를 말할수 있다.

우선 기자인 《나》의 설정문제이다.

소설에서 《나》는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대학교원들의 자질과 능력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경험집을 내놓기 위해 의학대학에 취재나온 기자이다. 작품은 《나》의 취재과정을 따라 이야기를 전개시키고있다.

이로부터 소설은 일정한 사건줄거리가 없이 이러저러한 생활일화와 여러 인물들의 체험을 묶어 놓는 형식으로 구성을 짜고있다. 《웃는 일요일》도 이러한 구성의 한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현실주제소설에서 구성은 경제실무적인 문제나 과학기술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으로 사건이 엮어지면서 이 과정에 맺어지는 여러 인물들의 호상관계를 파고들어 인간문제를 해명하는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이 소설은 《나》를 설정하고 그가 주인공을 비롯한 다양한 인물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의 시점에 비낀 인물들의 성격을 파악하는 과정으로 작품의 사상주제적과제를 해결하고있다.

총 13개의 장(서장과 종장은 제외)으로 되어있는 소설은 이렇게 구성되면서 매 장마다 뚜렷한 형상과제를 제시하고 생활의 진리를 하나하나 밝혀내고있다.

《〈행복이란 무엇이고 삶의 희열이란 무엇이었나. 인민을 위해 자기가 하고싶은 일에 마음껏 몸을 잠근 사람만이 누리는 만족감이고 기쁨이라고 나는 생각하네.〉》

—제2장 《재미를 깨우친 추억》에서—

《〈앞으로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 자기가 하는 일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때문에 하는 일인가를 랑심적으로 검토해보고 대중의 요구앞에 몇몇한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을 때 시작하시오.〉》

—제5장 《〈항생초〉의 유래》에서—

《〈학생! 남의 눈치를 보면서 남의 인정이나 받자고 가지는것이 조선사람의 넋인줄 알아?... 우리의 의학은 과학이기 전에 넋이야!〉》

—제12장 《사랑이 하는 부탁》에서—

...

이처럼 일관한 사건줄거리를 짜지 않고 일화무음식으로 구성을 엮으면서 매 일화토막들에 작품의 사상주제적과제에 이바지할수 있는 《보석》을 하나씩 박아넣은 여기에 이 소설의 중요한 구성상특성이 있으며 형상기교가 있다.

《웃는 일요일》에서 소설의 중요한 형상수법을 찾아볼수 있다.

즉 고원초에게서 의학강의를 받으려고 했던 《나》의 계획이 뒤틀리는 과정은 이 소설에서 뒤집기수법을 매우 능숙하게 구사하고있는 실례의 하나로 된다.

다 아는것처럼 형상수법은 오랜 세월에 걸쳐 다듬어지고 보편화된 형상창조의 효과적인 방법이다. 문제는 다양한 형상수법을 오늘의 시대적미감과 인민대중의 취미에 맞게 다양하게 살려써야 형상의 질을 보장할수 있다는데 있다.

이 소설에서 뒤집기수법은 곧 《나》의 계획과 예상이 뒤집어지는 과정이며 이 과정이 곧 소설의 이야기발전과정이고 독자들이 소설의 세계에 흥미있게 끌려드는 과정이다. 여기에 여느 작품들처럼 남녀간의 애정선을 일관하게 그리지 않고도 예술적흥미를 보장한 주요한 비결의 하나가 있다.

소설은 초기 부정산으로 내정했던 취재대상을 고원초로 바꾸는 과정이다. 제목그대로 선택을 달리하는 과정이다. 이것이 소설의 기본형상계기로 되고있다.

일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경원시당하는 고원

초가 존경과 찬탄의 대상으로, 믿음과 기대를 주던 부정산이 실망과 허무를 주는 대상으로 바뀌는 과정은 곧 참다운 시대적전형에 대한 옳바른 인식과정으로 된다. 형상은 이렇게 창조된다.

《나》는 작품의 사상주제적과제해결에서도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놓고있다.

《나》는 결코 인물들을 객관적으로 투시하는 3자적위치에만 있지 않다.

주인공의 사업과 생활을 보면서 그의 정신세계를 리해하며 주인공의 정신적높이에 이르지 못한 자신을 질책하며 다잡아나간다. 이러한 《나》의 관점은 곧 독자들의 관점과 일치하다.

이로하여 《나》로 하여금 작품의 호소성과 교양적의의를 뚜렷이 살리고있다. 이러한 《나》의 설정은 귀중한 실천적경험으로 된다.

《웃는 일요일》, 제목에서부터 웃음과 랑만이 넘쳐난다.

이것은 비단 이 장에서만이 아니라 소설전반에 흐르는 양상적특성이다.

소설은 심각한 사색의 세계와 밝고 랑만적인 생활정서를 조화롭게 결합시키고있다.

소설에서 밝고 랑만적인 정서는 오늘의 시대적 본질을 진실하게 그리면서 주인공을 비롯한 인물들의 성격적특질을 옳바로 묘사한데서 산생된것이다. 그것은 주로 익살과 통담, 기지있는 재담식구성으로 엮어진 대사조직과 많이 관계된다.

《...속으로 끙끙 갑자르다가 얼결에 한마디 내뱉었는데 그것은 내가 듣기에도 눈앞이 아찔할만큼 거북스럽기짝이 없는 어망처망한 소리였다. 〈집승이 허리를 다쳤을 때도 저렇게 침을 놓으면 나올수 있나?〉

〈영?〉

한가스레 내려드리웠던 넓은 거죽을 한순간에 닳끔 걷어올린 고원초의 커다란 눈이 화등잔처럼 휘둥그래졌다.

나는 속으로 아차하며 나의 부끄러운 랑설을 깨닫고 허끝을 깨물었다. 하지만 모르쇠를 하고 미웁한 말을 한마디 더 었었다. 실언도 정색하면 진담으로 보일 때가 있는 법이다.

〈왜 그렇게 풍만한 놈처럼 두눈을 홉뜨나? 진심으로 묻는데... 요먼저 촌에 있는 처남네 집에 가니까 크고 잘 생긴 개가 허리를 상해서 꿈쩍 못하더라 말일세.〉

대드는 나를 부리부리한 눈길로 한참이나 쳐다보던 원초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삼키느라 랑볼이 뻗뻗해지며 어깨를 떨었다.

〈...그래서... 누가... 아니라나?... 나를 임자 처남댁... 개한테 데려가고싶은가?〉

겨우 말을 마친 원초는 고개를 젓히며 폭소를 터뜨리었다. ...〉

구급환자를 치료하는 마당에서 뜻밖에 터져나온

전당, 전군, 전민이 우리의 사상, 우리의 투쟁방식에 의거
하고 우리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켜
21세기의 새로운 대고조력사를 창조해나가야 한다.

|| 공동사설에서 ||

수 필

새 세기의 전변이 맺어준 인연을 두고

조 인 영

우리 나라 굴지의 과수생산기지의 하나인 고산
과수농장은 나에게 추억깊은 고장이기도 하다.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에 심었소
심었더니 마을에 꽃이 피었소
...

텔레비죤이나 방송에 이 노래가 나올 때면 나는
랑만적이며 은은한 노래선물에 잊을수 없는 흥안
의 청춘시절을 떠올리곤 한다.

나의 청춘시절의 귀중한 땀방울이 스며여있는
잊지 못할 고장인 고산과수농장!

서쪽으로는 웅건한 마식령산줄기가, 동남쪽으로
는 아아한 철령산줄기가 병풍처럼 둘러쳐있는 가
운데에 울퉁불퉁한 기복을 이룬 구릉지대가 넓게
펼쳐져있다. 바로 이 고장이 철령과 《신고산타
령》으로 유명한 고산군이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지도하신 력사적인 북청회
의결정을 받들고 온 나라에 사과나무심기열풍이
일 때 나도 동무들과 함께 고산군에 나가 사과나
무를 심었었다.

그때 우리는 앞날에 대한 희망에 넘쳐 힘든줄을
몰랐다. 하루에 몇십그루의 나무를 심고도 저녁이
면 저녁대로 지칠줄 모르고 노래를 불렀다. 정말
힘이 넘쳐나는 시기였다.

나무를 심으며 그때 우리 세명은 약속했다. 우리
심은 이 나무에 첫 열매가 달릴 때 다시 만나자,
이 나무의 사과를 먹으며 우리 과거를 추억하자.

하지만 앞날을 기약할수 없는것이 사람의 운명
이여선지 그후 우리 셋은 만나지 못했다. 인민경
제 각이한 부문으로 서로 흩어져 일하다보니 사과
나무밑에서 만나자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
나 그 아쉬운 마음을 고산과수농장에 훌륭한 과원
이 펼쳐져 해마다 사과가 주렁진다는 도일보의 소
개기사가 메꾸어주곤 했었다.

그후부터 나도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에 심었
소》 이 노래를 즐겨부르곤 하였다.

그렇듯 강한 애착을 가지고 추억의 한 갈피에
떠올리던 고산과수농장이 력사에 류례없는 《고난
의 행군》의 여파를 입게 되었다.

60년대에 심어놓았던 키 큰 사과나무들이 늙어
버린데다 농약이 없고 거름과 비료를 제대로 주지
못하여 병들고 시들어버린것이였다. 그래서 종업원
들은 아픈 가슴을 부여안고 한때, 두대 죽어가는 고
목들을 찍어버리지 않으면 안되었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듣고 나는 마치도 내 살불이가 병든
것처럼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내가 걱정이나 하고있을 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고산과수농장을 새 세기에 청춘과원으
로 그 면모를 일신시켜주시였다.

지난해 위대한 장군님께서 고산과수농장을 현지
지도하셨다는 감격적인 소식에 접하고 나는 당장
농장으로 취재의 걸음을 달리였다.

정말 감개무량하였다. 천지개벽이란 이런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첫순간에 마음을 그러잡았다.

우리와 만난 지배인 신태송동무는 이곳 과일나

복소, 주인공도 웃고 《나》도 웃고 환자도 웃
고... 독자들도 웃는다.

소설은 대목대목마다에서 웃음을 살리고있다.
한없이 맑고 랑만적인 웃음을...

비록 물질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못하다 해도
사상정신적으로는 그 누구보다 부유한 사람들의
웃음을...

신심과 락관에 넘쳐 여유작작하고 배심있게 사
는 사람들의 세계가 참으로 밝게 안겨온다.

시대의 숨결이 맥박치고 시대의 정서와 랑만이
넘쳐나는 소설이다.

물론 소설의 형상세계가 완벽하다고 말할수는
없다. 타협할수 없는 인물들에게 가차없이 《불
침》을 놓는 고원초의 성격에서 풍기는 비양조적
인 색채, 웃음을 살린다고 하여 웃음을 위한 웃음
으로 될수 있는 경향은 앞으로의 창작에서 경계해
야 할 요소라고 본다.

×

소설은 읽을 맛이 있고 깨우치는바가 큰 작품이
다. 독자들은 이런 작품을 요구한다.

무들과 운명을 함께 해온 고난과 변혁의 나날을 감회깊게 회고하였다.

아버이장군님께서 키낮은 사과나무를 많이 심어 과수부문에 일시적으로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사과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데 대한 강령적 가르치심을 주시었을 때 이곳 노동자들은 장군님의 말씀을 관철하기 위한 토의에 토의를 거듭하였다. 허나 당장 키낮은 사과나무를 심고싶어도 그것은 마음뿐이었다.

그들에게는 한그루의 키낮은 사과나무모도 없었고 《고난의 행군》을 하고있는 나라에 손을 내밀 수도 없었다.

오직 자력갱생의 혁명정신만이 이들의 정신력의 원천으로 되어야 했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손땀을 흘리고 일어설념을 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또다시 철령을 넘어 전연초소로 나가신 소식이 전해졌다.

노동자들앞에 나선 지배인동무는 철령을 우러러보며 열정적으로 웨치였다.

《동무들, 여기는 철령이 바라보이는 과원입니다. 이 시각도 아버지장군님께서 저 철령마루에서 우리 과수농장을 내려다보고계실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비어있는 과수밭들을 보실 때마다 그이께서 얼마나 가슴아프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로지 비어있는 땅에다 새 품종의 사과나무를 짝 채우는것으로 선군장정의 길에 심혈을 바쳐가시는 아버지장군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려야 합니다.》

철령이 바라보이는 땅! 이 말이 주저앉을번 했던 만사람의 심장에 불을 지켰다.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지배인의 호소에 따라 온 과원이 펼쳐일어났다.

그들은 엄동설한에 북부고산지대의 심산유곡을 살살이 뚫으면서 매자씨를 한줌두줌 구해들이었다. 벼랑턱을 돌아오르다 지쳐서 떨어진적은 그 얼마며 산간마을 주민들이 삶아주었던 언감자마저 떨어져 눈우에 지쳐 쓰러진적은 그 얼마였던가.

피와 땀으로 바꾸어온 매자씨들에서 새싹이 움트고 2중접그루붙이기를 비롯한 새 기술에 의하여 드디어 자체의 힘으로 키낮은 사과나무모를 생산해냈다. 그리하여 텅 비었던 과원을 새롭게 단장시키는 한편 농촌문화주택건설도 힘있게 밀고나갔다.

끝간데없이 펼쳐진 청춘과원에 레년에 없이 온갖 과일꽃들이 한꺼번에 흐드러지게 피어 향기를 풍길무렵, 아버지장군님께서 소문도 없이 고산과수농장의 청춘과원을 몸소 찾아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과일밭들이 멋있다고, 대단하다고 치하시면서 몇년전에 인민군부대들에 나갈 때 보니 과수원이 텅 비였었는데 지금은 짝 찼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자신께서 철령을 넘나들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어떻게 하면 많은 과일을 먹일수

있겠는가 하는데 마음을 썼는데 과수농장의 면모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신된것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하시였다.

기쁨에 넘치신 그이의 말씀에 농장일군들은 눈곱이 뜨거워졌다.

조국의 안녕과 군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수없이 철령을 넘나드시며 고산땅의 과원에도 늘 관심해오신 그이의 은정에 머리가 숙여지였다.

끝간데없이 펼쳐진 청춘과원을 만족하게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키낮은 사과나무를 많이 심은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고산과수농장종업원들의 사상정신상태가 매우 좋다고, 그들에게 자신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시였다.

그 뜨거운 말씀에 감격한 일군들이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고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 장군님 계시여 우리는 일어설수 있습니다.)

나는 감개무량한 심정으로 아버지장군님께서 서 계시었던 뜻깊은 곳에서 철령이 바라보이는 청춘과원을 다시금 둘러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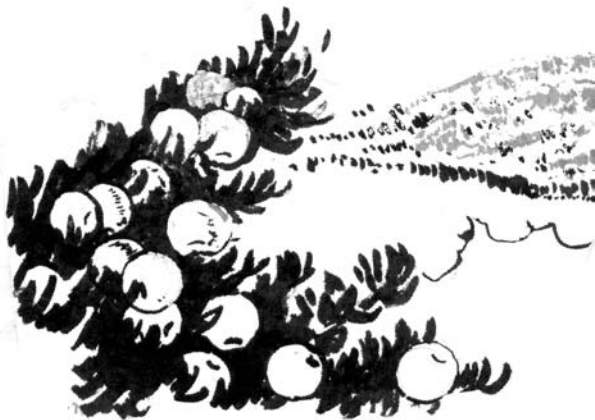
나는 행복한 운명이다.

아버이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고산과수농장을 창설할 때 청춘의 희열과 땀을 바친 내가 오늘은 작가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손길아래 청춘과원으로 전변된 농장을 소개하는 글을 쓰게 되었으니 이 인연을 선군시대의 행복한 운명이라고 어찌 말하지 않을수 있으랴.

젊었던 그 시절 내가 심은 사과나무는 찾아볼수가 없다.

하지만 그 나무밑에 함께 묻은 꿈은 선군시대에 와서 더욱 아름답고 휘황하게 현실로 피어났다. 줄기가 휘도록 달린 사과열매들이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 꽃피워주신 우리의 꿈이고 미래이다. 철령을 넘나드시며 가꾸어주신 우리 인민의 행복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심혼이 자욱자욱 어려있는 철령이 바라보이는 인민의 과수원, 이것이 바로 선군의 총대로 지키여지는 우리 조국과 인민의 행복을 보여주는 풍경이라고 생각하니 한없는 감회가 나의 발걸음을 떼지 못하게 하고있다.





숲속의 돌배나무

리영환

1

우리 마을 뒤산은 돌배나무들이 많은데다가 돌배맛이 류달라서 일명 《돌배고개》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고개에는 나무들이 짝 들어차고 이끼돋은 효자비며 털너비, 망두석 같은 것들이 드문드문 박혀있어 한낮에도 무서운 공포감을 자아내곤 한다.

이 령마루에 오르면 세갈래길이 나저 있는데 갈림길어구에는 해묵은 돌배나무 두그루가 서있다. 돌배나무는 껍질이 터슬터슬 갈라터지고 가지들이 뿌죽뿌죽 돌아났지만 봄이면 하얀 꽃을 피우고 여름에는 무성한 잎새를 펼치여 령을 넘는 길손들에게 서늘한 그늘을 던져주곤 하였다. 락엽이 훑날리는 가을에는 숲속에 넘치는 돌배향기에 취하여 사람들이 그저는 못 지나가곤 한다. ...

나는 지금 이 돌배나무밑에 서있다. 7월의 찌는 듯 한 해빛이 쏟아져내렸지만 나무밑은 서늘하였다. 푸른 잎새를 한껏 펼친 소소리높은 돌배나무를 바라보며 나는 생각한다.

(나는 왜 여기로 왔던가?)

그럴만한 사연이 있다.

래일은 전승절이다.

이날을 맞으며 학생들이 영웅인 나와의 상봉모임을 요구해왔다. 아이들은 내가 어떻게 영웅이 되였는가를 알고싶어한다.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 우리측 령해에 몰래 기여든 적함선, 단속, 불복, 피할수 없는 치렬한 격전, 우리의 경비정은 그대로 육탄이 되여 적함선을 들이받았다. 거대한 폭음, 섬광, 불길... 나는 죽지 않고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물위에 떠서 사흘낮 사흘밤, 아마도 나는 이 사흘동안에 인생에 겪을 고초를 다 겪은듯싶다.

...이번에도 나의 이 전투담을 또 들려주어야 하겠는지?

왜 그런지 나는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싶었다.

땡기처럼 오불꼬불한 령길을 따라 소형버스 한대가 달렸다. 버스안에는 등산복을 입고 색안경을 낀 주옥리인민병원 녀의사들이 앉아있었다. 그들은 지금 마을에서 80리가량 떨어져있는 북대봉에 약초를 캐러 가는 길이다. 한쪽 구석에는 네발을 묶은 검정돼지가 실려있었다. 술에 취하였는지 그들은 별로 요동치지 않았다.

녀의사들은 마치 원족이라도 가는듯 사기들이났다. 키가 자그마하고 얼굴이 동그스럼한 윤혜순원장이 먼저 선창을 떴었다.

빼꼭새가 노래하는 곳
사랑하는 내 고향일세
...

신이 나게 내달리던 버스는 령마루에서 잠시 멈춰섰다. 돌배나무밑에 낮익은 군관이 서있었던 것이다. 후리후리한 키, 군모밑에 희끗거리는 머리칼... 그는 윤혜순의 남편 정태복이었다.

이야기하고싶어 입이 간지러웠던 녀의사들은 때를 만난듯 겨끔내기로 떠들어댔다.

《어야나, 철국이 아버지로우나.》

《그런데 어떻게 여기 와계실가? 혹시 바래주려나온게 아니야?》

《글쎄말이야, 며칠있다 돌아오겠는데... 쉽지 않은 애처가야.》

정태복은 녀의사들에게 모두거리로 인사했다.

《회의가던 길에 잠시 다리쉽하됐습니다. 약초를 많이 캐가지고 오십시오.》

버스가 움직였다. 정태복이 손저어 바래왔다.

돌배나무밑에 서서 손을 흔드는 정태복의 모습이 멀리 보이자 녀의사들은 또다시 소곤거렸다. 원장선생 부부금슬이 보통이 아니라거니, 초저

녁구들 더워야 새벽구들 덥다고 천살이 넘었는데도 아직 처녀총각때처럼 달달하게 산다는등...

령길을 내린 빠스는 청천강기슭을 따라 기세 좋게 달렸다. 길옆에는 버들이 설레이고 파란 하늘에는 햇살같은 흰구름이 두둥실 떠갔다. 싱그러운 바람, 들크무레한 향기...

자기네 원장을 칭찬하는것인지 시샘하는것인지 한참 떠들어대고난 녀의사들은 다시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윤혜순은 행복에 겨운 녀의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수집은듯 미소를 지었다.

갑자기 소동이 일어났다. 술취했던 돼지가 깨어나 꿀꿀거리기 시작하였던것이다. 녀의사들이 놀라서 경악을 지르자 돼지는 더 기승스럽게 요동쳤다. 앞다리가 풀린 돼지는 비틀거리며 운전칸으로 뛰어들어갔다. 불의에 봉변을 당한 운전사는 당황하여 어쩔줄 몰라했다. 빠스가 비틀거렸다.

일행중에서 유일한 남자인 구강과의사 연두칠이 얼른 달려가서 돼지 뒤다리를 힘껏 잡아당겼다. 그 경황속에서도 박진아가 연두칠을 놀려댔다.

《아이고, 새서방님. 힘을 좀 쓰라구요. 그래가지고야 아들을 보겠어요?》

종자수탸이라고 불려도 별로 타내지 않는 연두칠이 헐떡거리며 맞장구쳤다.

《약국장선생, 아무때봐도 짐승들은 이놈처럼 안컷들이 말썽이라니까요. 얼른 와서 주둥이를 좀 묶어주시우. 소란해서 못 견디겠수다.》

연두칠이 돼지를 타고앉아 호소했으나 녀의사들은 멍때는듯 한 소리를 내지르는 돼지에게 선포다가설념을 못했다. 그런데 윤혜순이 어느사이에 배낭끈을 풀어가지고 와서 돼지주둥이를 꾹꾹 묶는것이였다. 연두칠은 할수없이 꿀틀거리느 돼지를 타고 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제서야 녀의사들은 한시를 놓이는듯 얼굴에 내뿜은 땀들을 씻었다. 잠시도 가만있지 못하는 박진아가 이번에는 윤혜순에게 말을 걸었다.

《요즘 원장선생이랑 철국이 아버지랑 참 별나요. 오늘 철국이 아버지가 바래주러 나온걸 봐도 그렇고... 뭐가 이상스럽지 않아요?》

《이상할게 뭐가 있어요. 자, 또 노래나 부르자요.》

윤혜순은 얼른 말꼬리를 돌려버렸다. 녀의사들은 언제 소동이 일어났던가싶게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

취여보면 한줌인 자그만 손에

...

조용조용 노래를 따라부르는 윤혜순의 눈앞에는 연연중 남편의 얼굴이 떠오르는것이였다.

차창앞으로 서서히 다가섰다가는 슬그머니 물러나는 산봉우리들처럼 남편과 련결된 추억의 단편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갔다. ...

의학대학을 졸업하고 주옥리병원에 자원하여

온 윤혜순은 효자령너머 마을을 담당하게 되였다. 하여 그는 위생가방을 메고 매일과 같이 령을 넘어 다녔다.

그러던중 그는 두그루 돌배나무에서 초간히 떨어져있는 절벽우에 벌집이 매달려있는것을 보게 되였다. 부지런히 꿀을 날라들이는 벌들의 모습은 처녀의 호기심을 부쩍 부추겨댔다.

(저 벌집의 꿀을 따다가 환자에게 먹였으면...) 몇달동안 주의깊이 살펴보았지만 벌집에 관심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드디어 처녀는 결심하였다.

어느날 처녀는 수건과 솜모자, 솜바지저고리, 솜장갑으로 온몸을 중무장하고 뚱기적거리며 위태롭게 절벽을 뚫아올라갔다.

뒤늦게 《습격자》를 발견한 군인이 달려왔다. 그는 효자령통신초소 초소장 정태복이였다. 감히 누가 평화로운 자연을 파괴하려 한단 말인가? 그는 고함을 지르려다가 그만 두었다. 혹시 《습격자》가 놀라서 떨어지길라도 하면 어쩌랴싶어서였다. 앞미운대로 낭떠러지밑에 서서 《습격자》를 아니꼽게 바라보기만 하였다.

아무리 솜옷을 껴입었다고 하지만 벌이란 놈들은 습격자가 나타나자 단방에 쏘아뿔구려고 웅웅거리며 모여왔다. 새까맣게 달려드는 벌들을 털어버리느라고 헛손질을 해대던 윤혜순은 그만 발을 헛디디여 앓 비명을 지르면서 굴러떨어졌다.

이때 밑에서 안절부절하던 태복이 날째 습격자를 받아안았다. 떨어지는 힘이 쏟던타인지 《습격자》는 그의 손을 거쳐 땅바닥에 떨어져 대굴대굴 굴다가 서둘러 솜모자와 수건을 벗었다. 그 순간 정태복은 놀라서 입을 항 벌렸다. 《습격자》는 뜻밖에도 중발머리의 처녀였던것이다. 수건짤새로 어느새 새어들어간 서너마리의 벌들이 처녀의 눈과 코, 입술을 쏘아놓았다. 처녀의 얼굴은 순간에 보기 흉하게 불어났다.

처녀는 아픔속에서도 사정을 하였다.

《저... 미안한대로 저 벌집을 좀 따주시요. 제가 담당한 환자에게 약으로 쓰려고 그러합니다.》

정태복은 퉁퉁 부은 처녀의 얼굴이 우습기도 하고 꿀을 공짜로 얻으려 했으니 그 대가로 차레진 봉변이라고 욕해주려다가 참았다. 오죽 환자에 대한 정성이 지극하였으면 처녀의 몸으로 버랑우의 벌집을 털 생각을 다 했겠는가! 그는 감동되었으며 다리를 풀친 처녀를 부축하여 병원에 데려다 주었다. 그날 처녀는 말하였다.

《제가 담당한 마을에 독고남이라는 해병영웅이 있어요. 하반신마비가 와서 침상에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요새는 몸이 약해져서 음식도 삭이지 못하고 즐기침을 하고... 너무도 젊은 나이에 나래가 꺾인 그를 보면 막 눈물이 나요. 이건 동정은 아니예요. 조국을 위해 피를 흘린 그가 왜 누워서 앓아야만 하나요? 누구보다 행복을 누려야 할 영웅이 말이에요. 전 그의 병을 고쳐주고싶어요. 영웅이 일어나 이 땅을 마음껏 걷게 하고싶단 말이에요.》

우선은 허약해진 그의 몸을 추켜세워야 해요. ...》

(그래서였구나!)

정태복은 새삼스럽게 처녀의 얼굴을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렇게 알게 되었으며 돌배나무 서있는 숲속길에서 자주 만나곤 하였다.

처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령을 넘어 다녔다. 독고남을 위하여 할수 있는 정성을 다 바쳤다. 위탈에 좋다는 꿀도 얻어다 먹이고 천식에 좋다는 까마귀열도 먹였으며 마비된 다리의 신경을 재생시키기 위하여 뜸과 전기찜질을 하루도 번지지 않고 해주었다.

왕진을 가는 녀의사와 통신선로를 검열하는 초소장은 돌배꽃 피고 무르익는 봄이나 가을이나 빈번히 맞다들리곤 하였으나 인사말이나 나누면 서둘러 헤어져가곤 했다. ... 누가 먼저 고백하였는지는 모르나 어느 가을날 깊은 밤 끊어진 통신선을 찾아, 잃은 환자를 찾아 눈길을 함께 헤쳐가던 그들은 그만 길을 잃어버려 밤새껏 산속을 헤맨것이 계기가 되어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잔치가 끝난 다음 그들은 효자령으로 올라갔다. 윤혜순이 정태복에게 돌배를 따달라고 졸랐던 것이다.

《...독고남전사가 군대로 떠날 때 도로관리원을 하는 아버지는 저 돌배를 한배낭 따주며 말하더래요, 부디 고향을 잊지 말라고...

솔직히 그때 독고남은 배낭이 무거워서 버리려고 했대요. 하지만 아버지의 당부가 생각나서 차마 버리지는 못하고 신병훈련소까지 지고갔대요.

그러다가 얼마 지나서 배낭아구리를 풀어보니 그동안 말랑말랑해진 돌배향기가 병실안에 가득차더라나요. 그것을 본 신대원들은 사탕, 과자파우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돌배만 맛나게 먹더래요. 독고남전사는 달디단 그 향기가 고향냄새같아서 돌배 몇알을 침대머리에 놓았대요.》

윤혜순은 가지끝에 매달려 간들거리는 돌배들을 가리키며 몇알만이라도 따달라고 《응석》을 부렸다.

《...독고남영웅은 사흘동안 물우에 떠있을 때 왜 그런지 돌배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히더래요. 그는 그 향기를 맡으며 아픔을 이겨냈대요.

난 저 돌배를 따다가 영웅전사의 침상머리에 놓아주고싶어요. 그러면 아마 돌배향기가 기막힐 거예요.》

정태복은 웃초리에 위태롭게 매달린 돌배를 모조리 따서 모자에 담아가지고 내려왔다.

《당신 정말 그 영예군인을 건게 할수 있소?》

윤혜순은 눈을 새침하게 내리깔고 말하였다.

《이젠 그의 위병도 다 나았고 몸도 퍼그나 좋아졌어요. 그가 뭐했는지 알아요? 자기는 영웅칭호도 앉아서 받았고 경애하는 장군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였을 때도 앉아서 만세를 웨쳤대요. 이제 소원이 있다면 한번 일어서서 우리 장군님 만세를 웨쳐보고싶은거래요.

이 소원을 누가 풀어주어야 하나요?...

전 어떻게든 그를 꼭 일으켜세우고야 말겠어요.》

정태복은 안해의 가슴에 돌배를 안겨주었다.

《요 이악쟁이... 당신은 다 좋은데 좀 차거워보이는게 흠이요. 이제부터 일부러라도 웃으며 사오. 웃음은 인간의 재부이며 의술의 절반이라는 말도 있지 않소. 난 당신이 돌배처럼 환자들에게 향기로운 의사가 되어주기를 바라요.》

...감회깊은 어제날의 추억이 오늘도 빠스안에는 은은히 감도는듯싶다. 정녕 추억많은 돌배나무와 숲속길은 그들부부에게 있어서 사랑의 길이었으며 행복의 길이었으며 웃음의 길이였다.

군관사택에서 리병원까지는 돌배령을 넘어 10리길이 된다. 신혼살림을 할 때에는 정태복이 이따금씩 퇴근하는 윤혜순을 데리러 병원에 오곤 하였다. 아들, 딸이 생기면서부터는 남편이 마중을 오지 않았지만 아이들을 업고 끌고 다니느라고 숲속의 밤길이 무서운줄을 몰랐다.

하지만 이제는 온갖 애착이 깃든 병원과 정든 숲속길과 헤어져야만 한다. 남편이 부대 지휘부에 올라가서 담화를 한것이다. 조동되겠는지 승급하겠는지는 두고보아야 알겠지만 어쨌든 직무가 변동되는것만은 분명하였다. 이것이 윤혜순에게는 기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병원을 떠나야 하기때문이다.

정녕 주옥리인민병원이 소문나기까지에는 그의 남다른 수고와 진정이 고스란히 담겨져있다. 병원은 그의 한생이였고 꿈이였고 보람이였고 사랑이였다. 하지만 시간문제일뿐 어차피 남편을 따라가야 한다. 아아, 이 무슨 일이란...

《어찌겠소. 당신한테 미안하지만 어디에 가든지 인민의 사랑을 받는 의사가 되면 될게 아니요.》

남편의 살뜰한 위로와 애무는 녀인의 섭섭한 마음을 조금씩조금씩 덜어주었다. 옳다, 남편의 말이 옳다. 30여년동안 정든 병원을 떠나기는 아쉽지만 다른데 가서도 여기 병원에서처럼 환자들을 위해 복무하면 될것이 아닌가? 그러니 갈 땐 가더라도 가는 날까지 성실하게 일하자.

병원에서는 올해에 어떻게 하든 렌트겐실을 새로 짓자고 하였다. 그랬던것만큼 윤혜순은 렌트겐실이나 지어놓고 떠나가면 여한이 없을것 같았다.

(빨리 약초채취를 끝내고 돌아와서 렌트겐실 건설에 착수하자.)

그러면서도 가슴 한구석을 알알이 흘러내리는 생각이 있었으니 그것은 독고남의 병을 깨끗이 고쳐주지 못하고 가게 되는 안타까움이였다. 그동안 오른쪽다리의 마비는 풀었다. 이제는 왼쪽다리의 신경만 회복시키면 될텐데 좀처럼 차도가 없다. 나의 의술이 부족해서인가? 정성이 모자라서인가? 그것은 이상한 아픔이 되어 가슴을 찢어냈다.

윤혜순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녀의사들은 신바람이 나서 노래만 불러댔다.

...

그 수고 아신다면 사랑하시라

...

아직도 벌이 드문드문 나오곤 한다는 북대봉의 험한 령들과 아름답드리진대들이 쓰러져있는 깊은 골짜기들에는 별의별 약재들이 다 있다. 삼주, 쥘팡이, 오미자, 마가목...

아츠러운 비탈을 뚫아오르고 가시덤불길을 헤쳐야 하는 약초채취는 녀의사들에게 있어서 힘에 부치는 노동이었으나 그들은 대중고려약품을 자체로 생산리용하기 위하여 봄, 가을 어김없이 여기로 오곤 한다.

하루에 한배낭, 간단치 않은 량이다. 새벽 일찌기 떠났다가 저녁늦게야 돌아온다. 불룩한 배낭을 이고지고 돌아오는 행색은 말이 아니다. 다리를 풀쳐 절뚝거리리는 녀인, 벌한테 쏘여 눈이 퉁퉁 부은 녀인, 머루를 어찌나 많이 따먹었는지 입술이 파랗게 물든 녀인, 밤청대라도 했는지 얼굴에 온통 솟김덩이칠을 한 녀인... 녀의사들은 천막에 이르기 바쁘게 지쳐서 풀썩풀썩 쓰러진다.

하지만 제일 많은 약초를 캐가지고도 제일 먼저 돌아온 윤혜순은 상글거리며 의사들의 배낭을 받아내렸으며 품종별로 간간히 선별을 한 다음 저울로 달아보고야 따로 천막을 친 창고에 가져다 넣곤 하였다. 그리고는 말없이 경쟁도표의 빨간 줄들을 올렸다. 녀의사들은 서로 지지 않겠다고 절뚝거리면서도 다음날이면 지평이를 짚고 산으로 오르곤 하였다.

약초채취는 힘겨우면서도 녀의사들에게는 즐거운 야영생활이기도 하였다. 하루일이 끝나면 맑은 개울물에 온몸을 씻고 찬물에 담그어놓았던 오리고기를 푸짐히 끓여먹는다, 청취와 버섯채를 곁들여... 그러면 하루의 피곤이 가뭇없이 녹아버리는 듯...

별들이 총총한 밤, 녀인들은 천막천정에 전지들을 매달아놓고 벽작 떠들며 웃놀이를 했다. 이럴 때면 《딱따구리》라고 불리우는 박진아의 기세가 대단하다. 위생검열을 하면 관리위원장의 집이라도 융화묵과할줄 모르고 예방주사를 놓으면 한밤중이라도 회의 간 리당비서를 기다려 마지막 한사람까지 주사를 놓고야마는 이 드살센 녀인은 어리무던 해보이는 연두칠을 동생처럼 주물러댄다.

《아이고, 연두칠동무. 무슨 옷패를 그렇게 막 내던져요. 허튼생각 하는게 아니예요. 남자 하나 있다는게... 선생때문에 또 졌어요.》

귀바퀴가 닭의 번두처럼 벌겋다고 해서 녀의사들은 연두칠을 악의없이 《번두칠》이라고 놀려대곤 한다. 항상 녀인들의 포위속에서 살아야 하는 연두칠은 그런데 습관된듯 능청스레 변명한다.

《아 거, 약국장선생이 옷패를 내려칠 때마다 치마바람이 일어 이마가 선득선득한게 정신을 차리겠더라고요. 쫓쫓, 웬 치마바람이 그렇게 센지? 나때문에 졌으니 내 약국장선생 뭉까지 내리다.》

이러며 연두칠은 왕다래 한웅큼을 꺼내놓았다. 무안을 당한 박진아는 이 종자수탸같은것을 꼬

해 먹겠다면서 연두칠의 등을 마구 두드려대고 연두칠은 간지럽다고 꺄꺄 웃고 녀의사들은 천막이 떠나갈듯 꺄꺄거린다.

녀의사들이 웃고 떠들며 즐거운 한때를 보낼 때 윤혜순은 창고에 홀로 앉아 의학책을 보고있었다. 그에게는 어디 가든 짬만 있으면 책을 보는 습관이 있었다. 통나무로 만든 탁상우에서는 등잔불이 소리없이 타오르고있었다.

(어째서 오른쪽다리는 마비가 풀렸는데 왼쪽 다리는 감도가 없을까?)

벌써 며칠째 책을 보면서 원인을 밝혀내려 했으나 알수가 없다.

천막밖에서 다시금 녀의사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윤혜순의 가슴속에는 머지않아 저정다운 동무들과 헤어져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남편한테서는 무슨 소식이 없는지?) 피곤이 몰려서인지 졸음이 온다. 그는 살며시 눈을 감고 추억의 오솔길을 더듬어나갔다.

...그의 고향은 주옥리가 아니다. 그는 탐사대원의 딸로 태어났다. 어린시절에는 어찌나 공부를 잘하고 이악했던지 총각애들도 학급장인 그한테 꿈쩍을 못했다. 웬 녀석이 놀리느라고 그의 빈 밥판에 개구리를 잡아 넣었는데 그는 그 개구리를 보고 놀라지도 않았으며 도리어 가지고 놀았다. 그는 이런 녀자였다.

그는 신경학박사가 될것을 꿈꾸었었다. 그래서 의학대학으로 갔으며 최우수생으로 박사원생이 되었다. 대학에서는 졸업하면 대학교원을 시키는가 연구사로 떨어지고 점찍어두었었다.

그런데 어이하어 농촌의사가 되었던가? 가물 가물 조을던 윤혜순은 그만 잠들어버리고말았다.

...오시였다. 수삼나무며 은행나무며 두충나무며 메대추나무가 숲을 이룬 주옥리 진료소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오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녀의사와 간호원의 손을 따 뜻이 잡아주시며 녀성의사들이 간간하여 아주 병을 잘 본다고 치하의 말씀을 해주시였다.

...깜빡 잠들었던 윤혜순은 꿈에서 깨어났다. 아니, 그것은 꿈이 아니였다. 수령님께서는 해방후에도 여기 진료소를 찾아주셨고 전후에도 또 찾아오시였다. 이밤 그날에 수령님께서 하셨다는 말씀이 우렁우렁 들려오는것만 같다.

...사람들속에서 병을 없애자면 농촌의사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 농촌진료소들을 리병원으로 꾸리고 병원은 병원마다 환자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

아, 인민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의 말씀을 어이 잊을수 있으랴. 우리 인민들을 병에 대한 근심걱정을 모르고 오래오래 살게 하려는 그이의 사랑에 목이 메여 (당시 윤혜순은 주옥리진료소에 실습을 왔다가 이 감격적인 이야기를 전달받았고 이 병원으로 올 결심을 하였었다.) 윤혜순은 대학 연구사로 떨어지라는 권고도 마다했고 신경학박사가 되려던 꿈도 뒤로 미루었다.

과연 인간의 가치란 무엇인가? 인간의 명예는 무엇으로 빛나는것인가? 그것은 자신만을 위한 명예이기에 앞서 인민에게 바치는 헌신성이었다.

환자가 없게 하는것이 자신의 소원이라고, 환자 없는 마을을 만들라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말씀은 처녀의 가슴을 울리었다. 처녀는 알았고 방향 전환을 하였다. 인간의 아름다움, 인간의 가치는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에 의하여 결정된다는것을...

환자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윤혜순은 30년을 고스란히 바쳐왔다. 이제는 물리치료사이며 입원실이며 약제실이며 식당, 먼적외선한증탕 등 덩지큰 건물들을 현대식으로 지어놓고 큰병원 부럽지 않게 모든 치료를 다 할수 있게 되었지만 일을 하고 또 해도 무엇인가 모자라는것만 같아 자꾸만 더 일하고싶은 윤혜순이었다. 그래서 올해에 낫은 렌트겐실을 허물고 새롭게 다시 짓자고 했는데 벽돌공장에서는 계획의 여분이 없다고 하면서 좀 기다려달라고 하였다. 어디 가서 벽돌을 얻을수 없겠는지? 토끼를 찍어 집을 지으면 어떻게?...

윤혜순의 생각은 다시금 독고남에게로 되돌아와 떨어졌다. 그동안 독고남을 일으켜세우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써왔던가? 신경통에 좋다는 약초가 어디 있다면 천리라도 달려가 캐다 먹었다. 좋다는 온천에도 데리고다녔고 멀리 바다가의 감탕도 쳐다가 찜질해주었다. 정전이 되면 자전거발전기를 돌려서라도 전기찜질을 번지지 않았다.

한편 최근의학기술발전추세와 《침혈사전》을 연구하면서 새롭게 《레이자치료기》를 만들었다. 침대신 침혈에 레이자빛을 주사하는 기구이다.

그것이 효력을 나타냈는지 오른쪽다리의 신경이 살아났다. 신심이 생겼다. 그런데 왼쪽다리는?

왜?, 왜?, 왜?... 분명히 레이자빛이 요진통을 찌르지 못하는것 같았다. 다시말해서 필요한 침혈에 빛이 가닿지 못하는것이다. 그렇다면 빛의 세기를 높이면 될것이 아닌가? 꼭 될것만 같다.

흥분한 윤혜순은 의료기구공장에 찾아가 용량이 큰 《레이자치료기》를 만들어줄것을 주문하였다.

이것이 석달전에 있는 일이다. ...

윤혜순의 생각은 여기에서 끝났다. 전지불을 켜든 박진아가 문을 열고 들어왔던것이다.

《왜 혼자 계세요. 어디 편치 않은가보지요?》
또다시 천막쪽에서 떠들썩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윤혜순은 아프기라도 한듯 낯을 찡그려보였다.
《갑자기 어금이가 썩서 그래요. 인차 낫겠지요.》

박진아는 모를 일이라는듯 야릇한 미소를 지었다.

《원장선생은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있군요. 선생은 지금 고민을 하고있지요?》

윤혜순은 정통을 찢어냈다. 박진아는 말하였다.

《얼마전에 부대장이 병원에 찾아왔더군요. 그는 나와 김보정선생에게 이 병원에서 원장선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는가고 물었어요. 우린 한결같

이 원장선생이 없으면 안된다고 했지요. 그때는 그 말을 무심히 들어넘겼는데 요즘 이따금 깊은 생각에 잠기곤 하는 원장선생을 보니 뭔가 짙이는게 있어요.》

박진아는 윤혜순의 표정을 살피며 찍어 물었다.

《혹시 철국이 아버지가 승급하는게 아니예요?》

윤혜순은 숨이 딱 막히는듯싶었다. 자기가 번민하는 문제를 동무들이 비슷이 알고있다고 생각하니 터놓지 못하고 살아온 자신이 죄스럽기도 하고 창피스럽기도 하였다. 박진아는 윤혜순의 마음은 아랑곳없이 아픈 곳을 해집었다.

《원장선생은 만약 남편이 조동된다면 병원을 떠나야겠지요?》

창고안에는 숨막힐듯 한 침묵이 흘렀다.

박진아가 조용히 말하였다.

《원장선생이 갈거라고 생각하니 〈고난의 행군〉 때가 생각나는군요. 그때 원장선생은 저에게 뭐라고 했어요?》

잊을수 없는 그 시절이 생각난다.

...원장으로 갓 임명된 윤혜순은 무엇부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랐다. 제국주의자들의 봉쇄책동과 뜻하지 않은 자연재해로 하여 나라형편이 어려워지자 병원안의 일부 의사들은 손맥을 놓고 다른 직업으로 옮겨갔으려고 했다.

먼저 박진아가 윤혜순을 찾아왔다.

《원장선생, 전 고향으로 갈가 합니다.》

윤혜순은 안타까이 사정을 하였다.

《진아선생은 우리 병원에서 제일가는 실력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떠나가면 우리 병원은 어떻게 됩니까?》

《저도 그건 알아요. 하지만 치료받으러 온 환자에게 약을 제대로 주어보내지 못할 땐 막 눈물이 납니다.》

윤혜순은 몇번이고 설복하였다.

《그렇다고 가버리면 환자들은 누가 치료합니까? 모자라고 부족되는 약을 자체로 생산하여 리용해야 해요. 더구나 선생은 약제사 (그는 함흥약학대학졸업생이었다.)가 아니예요. 전 행복도 불행도 우리결에 함께 있다고 생각해요. 창조하면 행복이 오고 노력하지 않으면 불행만이 남게 될거예요.》

박진아는 한번 먹은 마음을 굶히려고 하지 않았다.

《원장선생의 말씀은 리론적으로는 옳아요. 그러나 저의 처지도 좀 생각해주세요. 세대주가 없는 저한테 아이들은 넷씩이나 돼요. 소독수땀새를 말으며 진찰이나 하며 살아가기에는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제 나이가 중년이 지났고요. 아마도 저한테 차례진 학구적인 욕망의 한계는 지나가버린것 같어요. 그래서 전 친척들이 있는 동해쪽 바다가마울에 가서 도움을 받으며 의지하여 살고싶어요.》

《아니, 서둘러 의사를 그만둘 생각은 말아요. 의사적능력의 한계는 나이에 비례하지 않아요. 전 안 보내겠어요.》

윤혜순은 박진아의 말을 매정하게 잘라버렸다. 박진아가 아연하여 되물었다.

《정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 묻겠어요. 원장선생은 이 병원에서 일생을 살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윤혜순은 즉석에서 대답해버렸다.

《그래요. 전 이 병원과 함께 한생을 살겠어요.》

《남편이 조동된대두요?》

《그때에도 제 마음에는 변화가 없을거예요. 너 자라고 해서 자기 운명에 대하여 결심 못할것은 없다고봐요.》

다음날 윤혜순은 병원총회를 열었다. 그는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 말하였다.

…동무들은 환자없는 농장마을을 꾸리겠다고 자진하여 우리 병원에 온 동무들이예요. 그런데 일시 생활이 어렵다고 가버리면 어버이수령님께서 다녀가시고 귀중한 가르치심까지 주신 이 병원을 누가 지키나요? 사회주의를 수호하는 길이 멀리 있다고만 생각지 마세요. 전 나라가 어려울 때 어깨를 들이밀줄 아는 사람이 진짜배기에국자라고 말하고싶어요.

전 이 자리에서 엄숙히 권고합니다. 어려울 때 자기 일터를 버리고 제살 궁냥만 하는것은 래일에 대한 신념이 없는 사람들만이 갈길이라는것을.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피와 땀으로 약초를 가꾸고 채취하여 대중고려약을 생산해야 합니다.

우리는 독고남영웅까지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해야 환자없는 마을을 꾸렸다고 뿔뿔이 말할수 있는것입니다.

전 우리 병원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열거할것을 이 자리에서 호소합니다. 오직 붉은기만이 우리를 지켜줄것입니다. …

원장의 호소는 다른 일터를 넘겨다보던 의사들의 가슴을 꿰뚫었다. 그들은 순간이나마 그릇되게 생각하였던 자신들을 뉘우치며 박수로 호응하였다.

그날 저녁 윤혜순은 넉넉치 못한 쌀자루를 털어 보자기에 싸들고 박진아의 집을 찾아갔다.

《진아선생, 우리 힘들어도 한해만 참자요. 곤난한 식량문제도 우린 자체로 해결해야 해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해 부지런히 일해보자요.》

박진아는 쌀보자기를 밀어놓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원장, 내 생각이 짧았어. 이진 도로 가져가요.》

…그날부터 녀의사들은 농사군처럼 일했다. 새벽에도 빈땅을 찾아 일구고 저녁에도 어두울 때까지 김을 땀다. 오전에 담당구역을 땡이처럼 돌아보고는 늘 작업복을 걸치고 포전으로 나갔다. 그들은 약초만을 심지 않았다. 앞그루로 감자나 밀보리를 심고는 뒤그루로 약초들을 심었다. 약초사이사이에는 강냉이들을 심고 가을무우, 배추도 심었다. 2모작, 3모작의 결과로 그들은 첫해에 벌써 식량문제를 해결할수 있었으며 대중약은 거의

나 자체로 생산할수 있게 되었다. 몹시 힘들었고 바빴다. 하지만 그들은 앉아서 걱정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으로 나라를 받드는 공민이 되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하였는가? 사적건물을 비롯하여 치료실과 입원실을 현대적으로 꾸렸다. 주변 부대군인들이 성심성의 도와주었다. 제약설비를 만들어 고려약도 짱짱 만들어냈다.

나날이 병원은 유족해지고 인민군병사들과 영예군인, 전쟁로병들에게 정상적으로 보약을 공급하여 《3대혁명붉은기》병원이 되었다. 이렇게 되자 녀의사들은 우리 원장이 하라는것은 뭐나 다 하겠다고 하면서 한가지이상의 약기를 다루고 시를 외우고 노래이야기로 위생선전도 하였다.

병원에, 마을에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하였다. …

웃음소리 들썩하던 천막이 이제는 조용해졌다. 벌써 잠들지는 않았을텐데…

윤혜순은 타드는 입술을 감빨았다. 10년전에 박진아에게 한 말을 이제와서 변명하게 될줄 어이 알았으랴. 생활이란 참으로 알곶은것이다. 이제 나는 박진아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

딱해하는 윤혜순을 보고 박진아는 장난꾸러기 소년처럼 고소를 머금었다.

《난 원장선생이 가지 못할거라고 생각해요. 아 니, 우리 녀의사들은 안 보내겠어요.》

박진아는 웃음을 거두고 심각해서 말을 이었다.

《원장선생은 자기 일터, 자기 병원을 지키는 길이 우리의 생활을 지키는 길이라고 자주 말했어요. 그런데 병원을 버리고 가겠다는거예요? 물론 남편이 조동되어가기때문에 조건은 정당해요. 하지만 철국이 아버지를 설복하여 여기에 떨어질수도 있지 않아요. 내가 군대물계를 잘 모르고 하는말이긴 하겠지만… 원장선생은 남을 위하여 헌신적인것만큼 자신을 위해서도 용감해야 합니다. 원장선생한테 용기가 없다면 제가 철국이 아버지한테 말해보겠어요.》

물이야 불이야 갈겨대는 박진아의 입심을 당해낼 사람은 없다. 그만큼 일에서도 정열적이고 투신적이기에 윤혜순은 박진아를 남달리 믿으며 자리를 비울 때에는 그에게 원장사업을 대리시키곤 한다. 박진아의 말에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그것은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뽐아놓은것이기때문이다. 하다면 윤혜순, 너는 왜 망설이는것이냐?

박진아는 한결 가라앉은 목소리로 애원하듯 말하였다.

《원장선생, 가지 말아요. 원장선생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좀 더 일하면 아마 영웅이 될수 있을지 몰라요. 부디 30년간 쌓아올린 공로를 빛도 없이 포기할 생각은 말아주세요. 우리 병원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윤혜순은 가슴이 찢르르해왔다. 명예! 과연 내가 이름이나 내고 영웅이 되자고 일해왔던가? 그는 어디에 가든 인민의 사랑을 받는 의사가 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설사 내가 가고 다른 사람이 원장사업을 한다고 하여도 나만큼 못할 법은 없다, 사람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인민을 위하여 어떻게 복무하는가가 중요한것이다, 나는 군관의 안해이다, 군관의 안해는 군인이나 같다, 군인에게는 명령에 복종할 의무만 있는것이니 나는 남편을 따라가는것이 옳다, 새 일터에 가서도 여기 병원에서처럼 일하면 그만이다. 그는 남의 말을 하듯 중얼거렸다.

《당분간은 박진아동무만 이 일을 알고있으라요. 그리고 가고 안 가는건 약초채취나 끝난 다음에 보지요. 그때 대답하겠어요.》

박진아는 미덥지 않은 표정이었지만 수긍하였다.

《좋아요. 하지만 오늘 밤은 저희들과 함께 윗 놀이를 하셔야겠어요. 모두들 기다려요.》

그 말에 윤혜순은 눈물이 났다. 고마웠다. 자기의 마음을 밝게 해주려는 녀의사들과 함께 한밤을 웃고 떠들며 보내고싶었다. 그는 일어섰다. …

3

약초를 한차 캐가지고 돌아온 녀의사들은 곧 목화따기에 달라붙었다. 그들은 빈땅을 일구고 목화를 심어 약솜으로도 쓰고 해산한 녀성들에게 애기포단도 만들어주며 배피를 만들어 병사들에게 공급하기도 한다.

윤혜순은 당장 렌트젠실을 짓는것이 급선무였지만 벽돌이 없어 마음만 바재이고있다. 남편한테서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소식이 없었다. 의료가구공장에 전화해보니 레이자치료를 다 만들었다고 한다. 목화수확만 끝나면 가서 가져와야겠다.

녀의사들은 오전에는 담당구역을 돌아보고 오후에는 목화따러 나오곤 했다.

어느날 담당구역을 돌아본 의사들이 다 돌아왔는데 유독 연두칠이만이 오지 않았다.

윤혜순은 할수없이 연두칠을 빼놓고 담당구역안의 환자상태를 료해하기 시작하였다.

총화가 끝날 무렵 자전거를 탄 연두칠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들어섰다. 그는 싱글거리며 말했다.

《원장선생님, 벽돌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윤혜순은 가장 큰 걱정거리를 덜게 된것이 반갑기도 했지만 영문을 알수가 없어 다급하게 되물었다.

《그건… 무슨 소리에요?》

혈색이 좋아 귀바퀴까지 불깃불깃한 연두칠은 땀을 씻으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였다. 벽돌공장진료소에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보철을 해주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여가분의 벽돌을 받아오기로 했다는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자체로 생산한 약도 좀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건 유무상통이 아닙니까.》

연두칠의 말대로 하면 벽돌문제는 쉽게 풀리는 셈이다. 처음 윤혜순은 큰집을 벗은듯 안도의 숨을 내쉬었으나 다음 저도 모르게 불안스러워지는것을 느꼈다. 여가분의 벽돌이 없다고 하던 벽돌공장사람들이 왜 갑자기 벽돌을 주겠다고 했을까? 연두칠이 그만큼 수완가란 말인가? 어쩐지 벽돌공

장사람들에게 의료봉사를 해주고 벽돌을 얻어온다는것이 뭣뭣 못해보였다. 물론 리병원에는 자체로 생산한 고려약들이 남아돌아간다. 그렇다고 그것을 마음대로 처분하는것이 우리의 생활방식에 맞는것인가?… 아니다.

윤혜순의 생각은 착잡해졌다. 당장 연두칠에게 계약을 취소하라고 추궁하고싶었지만 선뜻 말이 나가지 않았다. 연두칠이도 병원을 위해서 한 일이고 자기 또한 머지않아 떠나가게 될것이라고 생각하니 차마 아픈 말이 나가지 않았다. 그는 사르시 눈을 감으며 조용히 물었다.

《연두칠동무, 오늘 담당구역은 다 돌아보았어요?》

연두칠은 좀 우물쭈물하였다.

《예. … 8작업반은 돌아보았는데… 독고영예 군인네 집은…》

윤혜순의 숨결은 저도 모르게 빨라졌다.

(독고남영웅한테 안 가보다니? 그만큼 뜬치료와 레이자치료를 번지지 말라고 강조했는데…)

사회의 혜택속에 만복을 누려야 할 영예군인. 그래, 연두칠에겐 백번 존대하고 최대의 봉사를 해야 할 영웅의 건강이 걱정스럽지도 않더라 말인가? 그리고도 큰일이나 하는것처럼 벽돌공장으로 가다니…

윤혜순은 참을수 없었다. 갈 땀 가더라도 할 말은 해야 한다는것을 그는 뼈아프게 느꼈다.

《연두칠동무, 오늘 치료지시료에 뭐라고 되어있어요? 독고남동무에게 레이자침을 꼭 놓으라고 했지요? 그런데 동문…》

연두칠은 황황히 변명하였다.

《사실 전… 녀의사들의 힘든 일을 덜어주려고…》

윤혜순은 조용히 도리머리를 저었다.

《아니예요. 인정과 근본을 혼돈하지 말아요. 모든 사업에서 사람의 생명을 첫자리에 놓는것은 우리 의사들의 근본이에요. 이 근본을 잃으면 의사로서의 사명을 상실하고 우리의 생활질서도 지킬수 없어요. 연두칠동무는 오늘중으로 벽돌공장과 계약의 취소를 취소하여야 하겠어요. 난 이 문제를 그저 스쳐보내지 않겠어요.》

녀의사들은 한껏 긴장해졌다. 원장이 연두칠에게 이제 무슨 처벌을 내릴지 알수 없었기때문이다.

돌연 무거운 정적을 깨뜨리며 박진아가 일어섰다.

《원장선생님, 연두칠동무에겐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그 동무에게 벽돌공장에 갔다오라고 하였습니다.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윤혜순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그는 박진아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한동안 노려보았다.

《정말 유감이군요. 난 약국장동무가 그렇게 나을줄은 몰랐어요.》

윤혜순은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힌듯 가볍게 한숨을 내불었다.

《됐어요. 모임은 이만하겠어요. 다들 오늘같은일이 없도록 명심하자요. 그럼 점심식사를 하고

목화밭으로 나와주세요.》

늘 웃고 떠들던 녀의사들이었지만 오늘은 생각이 깊은 모양 심각한 표정으로 원장방을 나갔다. 의사들이 다 나가자 박진아는 섭섭한듯 말했다.

《난 원장선생이 너무나한것 같아요. 벽돌때문에 원장선생이 걱정하기에 우린 도와주고싶어 벽돌공장에 갔던거예요. 그런데...》

윤혜순은 가슴이 뜨끔하였다. 떠나는 자기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그랬다고 생각하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러나 양보하지 말아야 할것이 있으니 농사군은 죽어도 종자만은 배고 죽는다고 하지 않는가. 그는 가슴이 아프지만 말하였다.

《우린 어떤 경우에도 의사의 근본과 생활의 원칙을 어겨서는 안돼요. 생각해보세요. 독고남동무가 어떤 사람이예요. 그는 영웅이예요. 우리는 그를 이 세상에서 가장 떼뻗이 내세워야 해요. 그런데 연두칠동무는 그의 마비를 고칠수 없는것처럼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대중대중 치료하는척 하고있어요. 전 이것을 용서할수 없어요.》

박진아의 입술이 팽팽해지며 파들파들 떨렸다. 이어 한쪽입귀가 들리며 뺨소같은것이 흘러나왔다.

《그래, 원장선생은 아직도 독고남영웅을 일으켜세울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의외에도 윤혜순의 입가에는 침착한 미소가 어렸다.

《그럼 뭐 지금까지는 거짓이었나요. 난 어제도 믿었듯이 오늘도 믿어요.》

박진아는 묘하게 입술을 오무려뜨렸다.

《놀라운데요. 원장선생이 떠나간대두 고칠수 있단 말이에요?》

윤혜순은 숨이 딱 막히는듯싶었다. 이번에는 박진아가 웃었다.

《저를 매정하고 까다로운 여자라고만 생각지 말아주세요. 난 원장선생의 진심을 알고싶어 그래요.》

강타! 눈앞에서 불씨가 튀어났다. 이 말에는 뭐라고 변명할수가 없다. 그렇다, 나는 가면서 어떻게 독고남의 병을 고칠수 있다고 장담할수 있겠는가?

두번째 강타!

《이제는 독고남영웅도 중년나이에 이르렀어요. 정말이지 우린 할수 있는것만큼 다했어요. 할진대 그를 꼭 일으켜세워야 한다는 원장선생의 견해는 너무도...》

박진아는 말을 채 맺지 못한채 입술을 감쳐물었다. 하지만 윤혜순은 그가 못다한 말이 어떤것인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심장이 활랑거렸다. 불쑥 의학대학 박사원에 다니는 딸 신옥이 생각이 났다. 윤혜순은 자기가 이루지 못한 청운의 뜻을 딸에게서 찾으려고 신옥에게 신경과를 전공시켰다. 이제는 그가 졸업할 때가 되었다. 신옥이를 여기 병원에 데려오면 어떨까? 그가 나대신 독고남의 병을 마저 고쳐주었으면? 그런데 오겠다고 할까? 왜 그런지 딸을 믿고싶어 그는 말하였다.

《독고영웅은 물위에 떠서 사흘낮, 사흘밤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마비가 왔어요. 그런데 약국장동문 불치의 병도 아닌데 왜 끝까지 치료해볼생각은 않고 주저앉는거예요. 전 이것이 분해요.》

난 그를 어떤 일이 있어도 일어서서 만세를 웨치도록 만들겠어요. 내 힘으로 안되면 내 딸이라도 데려다가 꼭 고쳐주겠어요.》

윤혜순은 어떻게 그 말이 튀어나왔는지 몰랐다. 그러나 그의 가슴속에는 그렇게 하고야말 결심이 굳게 자리잡았다.

《약국장동무, 우린 독고남영웅을 일으켜세우기 전에는 그 누구도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했다고 말할수 없어요. 난 약국장동무가 두번다시 약한 소리를 하지 않기를 바래요.》

성격이 드세다는 박진아였지만 종시 참지 못하고 두손으로 입을 싸쥐었다. 그는 흐느꼈다.

《원장선생은 너무도 모질어요. 가는 사람의 너그러움이라든가 튼터라든것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연두칠동무에게 그렇게까지...》

박진아는 말끝을 맺지 못하고 뛰어나갔다.

윤혜순은 가장 가까운 동무한테 버림을 받은듯 온몸이 무너져내리는듯싶었다. 정말이지 내가 너무하지 않았는가? 아픔이 가슴을 쭉 찢고 지나갔다. 두눈에서는 소리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4

비웃을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윤혜순은 신심을 잃지 않았다. 그는 의요기구공장에 부탁했던 새형의 레이차치료를 가지러 떠났다. 새 치료기가 꼭 은을 낼것만 같았다.

겸사하여 의학대학에 들러 딸을 만나보았다.

윤혜순은 어머니가 온것을 반가와하는 딸에게 몇번 망설이다가 졸업후에 자기가 일하는 주옥리 병원으로 오지 않겠는가고 물었다.

신옥은 어머니가 온것을 반가와하면서도 리병원에 내려가는 문제는 좀 생각해보겠다고 하였다.

《어머닌 그저 병원밖에 몰라요. 왜 그런지 어렸을 때 병원에서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를 기다리며 밤깊도록 슬피 울던 생각이 나는군요.》

그 말은 윤혜순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정말이지 아이들에게 애뜻한 사랑을 기울이지 못한 그였다.

《어머닌 다 자란 오늘에도 딸의 장래는 생각지도 않는것 같아요. 박사원까지 졸업할 제가 꼭 리병원에 가야 할 필요가 뭐가요?》

누구에게나 희망은 소중한것이다. 그 희망을 순간에 달리할 결심을 어이 쉽게 할수 있겠는가.

여하튼 윤혜순은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왔다.

그가 돌아온 날 갑자기 의식을 잃은 독고남이 담가에 실려왔다. 쌍지팽이에 의지하여 한다리로 걸기련습을 하다가 허궁 넘어져 뇌타박을 입은것이다.

(얼마나 견고했으면 한다리로 걸기련습을 다 했을가?)

윤혜순은 구급대책을 세운 후 치료조직을 하였

다. 누구는 산소준비, 누구는 군병원에 왕진협 의회의뢰 등등...

《우린 어떻게 하나 영웅을 살려내야 합니다.》
녀의사들은 분주히 뛰어다녔다.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었던가? 피가 요구되면 서슴없이 팔을 내대고 뼈와 살이 요구되면 자기 뼈를 깎아내고 자기 살을 떼어주던 녀의사들이었다. 그렇게 물속에 빠졌던 아이도 살려냈고 불속에 뛰어들어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구원한 병사의 생명도 지켜냈다.

그들은 2명씩 교대제로 환자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할수 있는 정성을 다 쏟아부었다. 도병원의 유능한 박사선생도 모셔왔다. 그의 의술이 능해서였던지 환자는 실려온지 이틀만에 헛소리를 쳤다.

《탄알... 탄알이 떨어졌소. ...》

또다시 숨가쁜 소리... 아마도 생사를 판가리하던 해상격전의 나날이 떠오르는 모양이었다.

윤혜순은 기뻐다. 이것은 환자의 의식이 돌아서기 시작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이제는 신경을 부활시키기 위한 치료전을 벌려야 한다.

약물치료와 함께 하루에 3번씩 꼭꼭 뜸을 뜨고 레이자침을 놓았다. 했지만 환자는 사흘이 지나도 깨어나지 못하였다.

윤혜순은 울고싶었다. 저러다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그는 너무도 안타까와 모여앉은 녀의사들에게 말하였다.

《뇌타박에는 산비둘기풀이 즉효라는데 어디 가서 잡아올수 없을까요?》

이곳 효자령근처에는 산비둘기가 없다.

윤혜순은 이것을 뻔히 알면서도 너무 속상해서 해보는 소리이다. 의사들은 얼굴만 마주볼뿐 대답을 못하였다.

문득 윤혜순의 눈앞에는 청천강 솔바위섬절벽우에 한가로운 날아예던 산비둘기떼가 떠올랐다. 해쫓는 아침이나 해지는 저녁이면 무리지어 떠돌던 산비둘기떼...

(섬에 가면 산비둘기를 잡아올수 있지 않는가?)

의사들은 나갔다.

윤혜순은 홀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밖은 벌써 새까맣게 어두웠다. 그러니 이제는 섬마을에 갈수가 없다. 나루배가 섬으로 오가는 길손들을 건네여주는데 날이 저물면 섬에 배를 대고 나오지 않기때문이다.

윤혜순의 눈앞에는 헛소리를 치는 환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이때 불쑥 남편이 들어왔다.

윤혜순은 반갑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여 일어섰다.

《오셨어요... 무슨 소식이라도?》

정태복은 머리를 저으며 당신이 사흘동안 들어오지 않기에 찾아왔다고 말했다.

《미안해요. 구급환자가 생긴것을 알리지 못해서...》

《나도 알고있소. 그래 환자가 차도가 있소?》

윤혜순은 침만 꿀꺽 삼켰다. 며칠사이에 그의 얼굴은 파리해졌으며 입술은 까실까실 말라러졌다. 가볍게 한숨을 내쉬는 그의 뇌리에 피땀 한가

지 생각이 스쳐지나갔다.

(남자들이라면 얼마든지 섬까지 헤엄쳐갔다 올수 있지 않는가?)

그는 불쑥 남편의 도움을 받고싶은 생각이 났다. 나의 요구라면 그이는 마다하지 않을거야. 하지만 인차 도리머리를 저었다. 이제는 남편이 청장년이 아니다. 나이는 사람이 한밤중에 강물에 뛰어드는건 모험이다. 그러다 무슨 일을 치자고...

윤혜순이 무엇을 바라면서도 말 못하는것을 알아차린 정태복이 느슨히 물었다.

《당신 거동이 참 부자연스럽구만. 내가 혹시 당신을 도울 일이 없을까?》

윤혜순은 황황히 말머리를 돌렸다.

《아니예요. 신욕이 생각을 하겠어요.》 윤혜순은 팔을 데려와야 할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태복은 대수롭지 않은듯 빙긋이 웃었다.

《걱정마오. 내 그 애한테 들려오는 길ियो. 오겠대요. 전번엔 잘못 생각했다고 하더군.》

윤혜순은 눈물이 콧 솟구쳤다. 딸이 앞에 있으면 절이라도 하고싶었다.

남편은 애들처럼 주머니에서 돌배 몇알을 꺼내어 내놓았다.

《좀 따다가 쌀독에 묻었드랬소. 환자의 머리맡에 놓아주오. 어떻게 하든지 살려내야지.》

방안에는 금시에 돌배향기가 가득쳤다.

윤혜순은 남편의 격려가 고마왔다. 그는 언제나 힘이 되어주고 의지가 되어준다. 젊었을 때처럼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응석을 부리고싶었다. 남편에 대한 존경과 믿음이 갑자기 커지자 부지불식간에 저도 모르게 엄청난 요구가 터져나온다.

《여보, 지금 저와 함께 섬마을에 좀 갔다올수 없을까요?》

윤혜순이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정태복은 대범하게 머리를 끄덕였다.

《그러니 당신은 그것때문에 속썩이고있었구만. 환자를 위한 일인데 무엇을 마다하겠소. 난 당신이 조금섬을 물로 끌라고 해도 끌겠소. 비둘기풀은 아침에 먹이감을 찾아 들판으로 나가기 전의것이 더 약효가 있다던데 빨리 가지요.》

윤혜순은 고마와 눈물이라도 쏟고싶었다. 어제도 오늘도 친근한 동지로 새힘만을 안겨주는 살들한 남편!

잠시후 그들은 마을에서 초간히 떨어져있는 청천강반으로 나갔다. 검푸른 강물은 번들거리며 무겁게 흘렀다. 저 멀리 섬마을에서는 어서 오라 부르는듯 불빛들이 깜빡거렸다. 바람이 불어오자 백양나무가 우수수 몸을 떨며 락엽을 그들의 머리우에 뿌려주었다.

《여보, 너무 걱정마오. 나야 군대가 아니요. 내 얼른 갔다오겠소.》

바로 이때 웬사람 둘이 헐썩거리며 달려왔다. 의외에도 어둠속에서 연두칠의 목소리가 울렸다.

《원장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췌근거리며 달려온 연두칠은 와락와락 옷을 벗기 시작하였다.

《철국이 아버지, 섬에는 제가 갔다오겠습니다.》

《아니, 임자가?!》
 윤혜순과 정태복이 동시에 놀랐다.
 이어 박진아가 할짝거리며 다가왔다.
 연두칠이 울먹울먹하며 말하였다.
 《난 아까부터 원장선생을 지켜봤습니다. 전
 철국이 아버지가 무얼 하려는지 압니다. 저같이
 젊은것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하필이면 나이
 든분이...》
 연두칠은 목이 메여 다음말을 잊지 못하였다.
 그대신 박진아가 노여운 소리를 했다.
 《원장선생은 너무합니다. 어째서 이런 일은 원
 장선생 혼자만이 해야 합니까? 우리 병원엔 사람
 이 없던가요? 섭섭합니다.》
 연두칠은 물가를 향하여 저벅저벅 걸어나갔다.
 마치도 격전장으로 나가는듯 한 결연한 자세이다.
 《침방—》 물소리가 났다.
 어둠이 연두칠을 삼켜버렸다.
 《두칠선생, 같이 가자구.》
 정태복이 뒤따라 강물속에 뛰어들었다.
 윤혜순은 찻잔한것이 입안으로 흘러드는것을 느
 끼며 뜨거움에 잠겨 중얼거렸다.
 (여보, 소환을 앞둔 당신에게 이런 무리한 일을
 시켜서 미안해요. 난 자기밖에 모르는 여자지요?)
 박진아가 다가와 두손을 꼭 잡아주었다.
 《철국이 아버지는 참 좋은분이야!》
 그리고는 처녀시절처럼 반말을 하는것이였다.
 《혜순이, 확실히 난 의사의 근본을 잊었됐어.
 날 용서해.》
 윤혜순은 자기를 되찾은 박진아의 손을 마주잡
 아 흔들었다.
 《진아, 날 많이 욕했지?》
 강물은 사뭇치며 흐르고 백양나무는 더 세차게
 설레이었다.

5

치료전투는 며칠째 계속되였다.
 윤혜순과 도병원 박사선생은 지혜를 합쳐 독고
 남의 치료대책을 세워나갔다.
 치료실에는 정태복이 따다놓은 돌배의 냄새가
 향기롭게 퍼돌았다.
 어느날 윤혜순은 독고남의 왼쪽다리가 발가우리
 하게 혈색이 도는것을 보았다. 참으로 이것은 놀
 라운것이였다.
 기쁨은 다음날 갑절로 커졌다.
 독고남이 헛소리를 쳤던것이다.
 《선생님... 이제... 무슨 냄새입니까?... 우리 마
 을 돌배향기가 옅지요?》
 독고남은 분명히 방안에 떠도는 돌배향기냄새를
 맡고있었다. 이것은 그의 의식이 부활되어가고있
 다는것을 의미한다.
 윤혜순은 신심이 생겼다. 확실히 차도가 있다.
 새로 만들어진 레이자치료기의 효력일까, 아니면
 산비둘기골로 약을 내어 먹인 덕일까?
 윤혜순은 잠시도 독고남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밤, 잠들기 전에 레이자침을 놓아주던 윤혜순은

이상한 감촉을 느꼈다. 독고남의 왼다리가 약간
 꿈틀했던것이다. ... 가슴이 후두두 뻐다. 그러니
 다리신경이 살아났단 말인가?
 독고남이 깜짝 놀라도록 외마디소리를 쳤다.
 (그 헛소리치는가?)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독고남이 침상
 을 차고 벌떡 일어섰던것이다. 이게 꿈인가, 생시
 인가.
 레이자치료를 하던 윤혜순이도, 둘러섰던 의
 사들도 모두 두눈이 휘둥그레졌다.
 독고남영웅이 일어섰다?!
 세상에 기적이라면 이런 기적도 있는가? 어떤
 앓은뱅이는 벼락을 맞고 50년만에 자리를 털고 일
 어났지만 독고남영웅은 의사들의 정성에 떠받들
 려 일어섰다. 장하다, 영웅이여!
 비칠하는 그를 의사들이 부축하였다.
 독고남은 우뚝 선채 한동안 말이 없었다. 정지
 되었던 눈동자가 서서히 돌아가면서 의사들을 살
 펴보았다. 이윽하여 그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의 의식이 정상으로 되돌아온것이다. 이것은 우
 연이 아니다. 울것이 오고 될것이 된 필연적인 귀
 결이다. ... 독고남은 모든것을 알아차린듯 두손을
 높이 쳐들었다. 그의 두볼을 따라 눈물이 구울려
 내렸다.
 영웅도 울고 의사들도 울었다.
 윤혜순은 뜨거운것을 삼키며 장군님 우러러 마
 음속으로 보고를 드리었다.
 (경애하는 장군님, 20여년 누워있던 영웅전
 사가 오늘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 장군님 만세
 를 웨칩니다.)
 얼마나 바라고바라던 시각인가! 윤혜순은 온 세
 상을 얻은듯 한 환희에 휩싸였다. 그리고 만시름
 을 털어놓은듯 한 평온함에 사로잡혔다.
 (이제는 마음놓고 떠나도 되겠구나. ...)

×

나는 여전히 숲속의 돌배나무앞에 서있다. 바람
 이 분다. 푸른 잎새 흔드는 두그루 돌배나무를 바
 라보며 나는 생각한다. 내가 이렇게 대지를 확보
 할수 있으리라고 상상이나 해보았던가? 나는 우리
 마을 녀의사들을 통하여 오늘날 이 땅과 우리
 의 생활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새삼스러이 깨달았다. 애국이란 멀리 있는것이 아
 니며 영웅뒤에 진짜영웅들이 있다는것을...
 오늘 나는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련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결에 윤혜순원장은 없다.
 그는 남편을 따라 새 부대로 옮겨갔다. 어머니가
 일하던 병원에 지금은 그의 딸이 와있다.
 (그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있을까?)
 나는 말없이 설레이는 돌배나무를 그러안으며
 가버이 이마를 부본다.
 돌배나무는 제아무리 깊은 산속에 숨어있다 하
 여도 그 열매가 풍기는 향기는 온 숲속에 차고넘
 치는것이니 다시한번 말아보자, 돌배향기여! 다시
 한번 안아보자, 돌배나무여!

단편소설창작에서 생활세부형상문제를 놓고

김 경 윤

작은 그릇에 사회적으로 의의있고 심오한 인간 문제를 담아야 하는 단편소설창작에서 생활세부형상이 노는 역할은 자못 크다. 그것은 작가가 발견한 생활세부를 통해 작품의 전반내용이 보다 두드러지게 안겨오기도 하며 또한 그의 예술적효과를 높여 작품의 사상주제적내용을 보다 간결하면서도 정서적색채가 짙은 작품으로 만들어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수 있기때문이다. 작가의 깊은 철학적사색과 풍부한 정서가 숨배여있는 알찬 생활세부의 발견은 작가의 창작적재능을 엿보게 할수 있는 중요한 조건으로 되기도 한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전에 성과작으로 발표된 단편소설 《빨간 저고리》 [김정 작, 《조선문학》 잡지 주체95(2006)년 7호]와 단편소설 《숲에 깃든 닢》 [백명길 작, 《조선문학》 잡지 주체97(2008)년 5호]의 창작실천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반적으로 사상은 주관적인것으로서 추상적인 형태로 나타나지만 생활에 체현되어있는 사상적인것은 객관적인것으로서 구체적인 대상속에 생동한 형태로 나타난다.》

단편소설 《빨간 저고리》는 지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제와 맞서 싸운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발휘한 무비의 대중적영웅주의와 희생정신이 어떻게 발휘되었으며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빨간 저고리》라는 세부형상을 통해 감동깊게 그려낸 작품이다.

자신의 살점과도 같은 나서자란 조국산천을 한눈에 굽어보며 조국의 하늘을 믿음직하게 지켜가는 비행사 김산해와 그의 전우들, 전장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마다 기수를 낮추어 한바퀴씩 선회하면서 눈여겨보곤 하는 그의 고향마을인 개암골은 편대의 판심사로, 전우들 공동의 고향으로 이목을 집중시킨다.

작품은 이러한 설정을 한 기초우에서 멀리서도 인차 가려볼수 있는 빨간색저고리를 등장시킴으로써 공중에서 내려다보이는 녀동생 인혜의 모습을 대지의 숨결로, 굴함없이 억세게 싸우는 조국의 모습으로 승화시켜 작품의 정서심리적효과를 부단히 높이고있다.

애정과 기대를 가지고 출현한 빨간 저고리와 적기의 맹폭격으로 폐허가 된 고향마을, 그때부터 가뭇없이 사라진 빨간 저고리, 그로부터 오는 상

실감과 비통함, 전후사연이 적혀진 동생 인혜의 편지, 군대에 나가 전사한 녀동생을 대신하여 또 다시 고향마을에 나타난 빨간 저고리... 이렇듯 작품은 시종일관 련속 이어지는 빨간 저고리 세부에 형상의 초점을 집중하고 그의 예술적형상을 보다 심화시켜 원숙하게 그려내고있다.

《인혜를 대신해서 나타난 빨간 저고리, 어쩌면 인혜의 분신같이도 생각되는 빨간 저고리, 인혜는 전선으로 갔지만 개암골은 하늘의 매들을 위해 다른 빨간 저고리를 또 내세워주었다. 하늘은 저 빨간 저고리를 통하여 대지의 즙액을 빨아들이고있다. 이것이야말로 조국이 하늘의 매들을 위해 마련한 빨간 저고리의 계주가 아니고 무엇인가.》

보는바와 같이 작품에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숭고한 투쟁정신을 직선적으로 강조한 작가의 주정이나 설명이 없다. 오직 형상이라는 수단의 힘을 통해 그것을 펼쳐보인다.

작품에서 종종 보게 되는 이러한 개방적이면서도 대담한 문장활용은 작가의 높은 창작적안목과 함께 구체적이면서도 생동한 세부에 대한 관찰과 발견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단편소설 《숲에 깃든 닢》이 거둔 성과도 의의있는 세부의 발견을 빼놓고 생각할수 없다.

소설은 조국의 푸른 숲과 더불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자신의 귀중한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싸운 박제경과 그 일가가 지닌 조국애의 사상감정을 다름나무라는 세부를 통하여 비교적 원만히 그려내고있다. 조상대대로 다름나무와 남다른 인연을 맺고 다름나무숲을 가꾸며 목침장사로 유명해진 박제경이었던만 나라잃은 그 시절 일체의 발굽 밑에서 신음하는 이 땅, 심심산골의 다름나무숲도 탐욕에 주린 일체의 략탈에서 지켜낼수 없었다.

간악한 일제에 대한 분노의 표시로 자기 삶의 전부라고도 할수 있는 다름나무숲에 불을 지르는 주인공, 저주로운 세상에 항거해나선 자신이었던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빼앗긴 조국을 찾아주시고 문수봉에 오르시여 몸소 나무를 심으셨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자기의 잘못을 심각히 돌이켜보는 박제경, 바로 그러한 그였기에 그는 가릴치절한 전쟁의 포화속에서도 다름나무숲을 위해 자신의 생명도 기꺼이 바쳐싸운다. 주인공의 이러한 성격적특질은 다름나무라는 세부와 서로 조화되어 이채롭게 안겨온다.

산세가 험한 깊은 산골에서 자라는 다름나무는 재질이 굳고 나무결무늬가 아름다와 고급목재로서 손

색이 없다. 이 나무로 짠 가구는 백년이 지나도 모양새가 변함없고 집안의 별레까지도 몰아낸다고 한다. 인적이 드문 심심산골에서 사는 박계경 역시 성격이 호협하고 마음씨 착해 인심후한 목침장사로 소문났으며 곧고 강직하며 불의와 맞서 끝까지 자기를 지켜싸우는 그의 이러한 성격적기질도 다릅나무의 특성과 깊숙이 맞물려있다고 볼수 있다. 그리하여 다릅나무숲을 무대로 펼쳐지는 작품의 형상세계가 독특한 정서적충동을 가져오는것이다.

결국 작품은 다릅나무라는 세부의 발견으로 하여 씌여진 작품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조국산천을 가꾸어가는 숨은 애국자들을 그려낸 작품들은 많다. 하지만 그러한 작품들가운데서도 단편소설 《숲에 깃든 녀》은 다릅나무라는 세부의 도입으로 하여 이 계열의 작품들속에서 구별되는 자기의 개성을 살렸다고 말할수 있다.

단편소설 《빨간 저고리》에서 빨간 저고리의 도입은 작품에 담겨져있는 사상에술적내용을 《빨간색의 의미→빨간 저고리의 계주→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인민이 발휘한 대중적영웅주의사상》으로 확대하여 안겨주며 단편소설 《숲에 깃든 녀》은 세부형상이 《다릅나무→조국의 푸른 숲→사회주의애국주의사상》으로 함축되어 한눈에 확연히 안겨오게 하고있다. 이것은 세부형상이 작품의 전반내용을 정서적으로 직관화하여 두고두고 오래동안 기억할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된다는 것을 시사해주고있다.

생활에 체현되어있는 사상적인것이 구체적이며 생동한 대상속에 자리잡고있다고 하여 그 개개가 다 세부형상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노는것은 아니다.

작가의 철학적이며 깊이있는 사색이 안반침되지 못한 세부의 도입은 작품에서 사건과 사건, 인물들사이의 관계를 맺아주는 매개물로서의 역할이나

할뿐 작품의 형상을 보다 풍부화시키는 바탕으로는 되지 못한다.

작품창작에서 작가의 발견이 깃든 세부의 도입은 작품의 사상에술성을 높여주는 긍정적효과를 가져오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경우 작품의 전반적질을 떨어뜨리는 부정적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구체적이며 생동한 형태의 표상을 주는 생활세부는 작품의 감정조직과 구성을 보다 치밀하고 유기적으로 맞물려주는 수단으로 된다.

천리마시대의 아름다운 인간들을 사상에술적으로 훌륭히 그려낸 단편소설 《길동무들》에 도입된 생활세부는 오늘날에 와서도 좋은 참고로 된다. 이 작품에서는 새끼물고기세부가 도입된다.

벌방에서부터 산골까지 새끼에 불과한 살아있는 물고기의 혈차운반을 통하여 앞날에 대한 주인공의 리상과 지향, 성격이 안겨오며 까다로운 생육조건을 요구하는 새끼물고기의 특성은 작품의 형상을 보다 심화시킬수 있는 실마리를 준다. 결국 운반거리가 점점 단축됨에 따라 혈차손님들과 독자들은 주인공의 정신세계에 깊이 감동되며 마침내는 작품을 통해 웅근 한 시대를 보게 되는것이다.

보는바와 같이 구체적이며 생동한 형태의 표상을 주는 세부는 작은 용적에 심오한 사회적문제를 담아야 하는 단편소설창작에서 결코 무시할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는것을 우리는 알수 있다.

아무리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세부라 하여도 작가의 철학적사색이 안반침되지 않는다면 작품의 형상을 심화시킬수 없고 같은 사물현상이라고 하여도 그것을 대하는 작가들의 창작적개성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작품으로 독자들에게 나타날것이다.

작가들은 작품창작에서 세부형상이 노는 역할에 깊은 창작적관심을 돌려 창작실천에 적극 구현해나가야 할것이다.

상 식

시 화

시 또는 시창작과 관련한 이야기.

시화는 대체로 시평, 시론적인 특성을 가진다. 시화는 처음에 패설의 한 형태로 씌여지기 시작하였고 패설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고려 후반기에 나온 리인로의 《파한집》, 최자의 《보한집》 등에 들어있는 시에 대한 이야기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초기의 시화는 시창작과 관련된 일화들로 엮여져있다. 시평 혹은 시론적인 성격의 시화는 15세기 후반기부터 많이 창작되었으며 점차 독자적인 시화집들도 편찬되게 되었다. 서거정의 《동인시화》, 허균의 《성수시화》는 그러한 실례이며 흥만

종의 《시화총림》은 여러 시화집을 총서형식으로 묶은 책이다. 시화에는 저자의 미학적견해와 함께 시의 창작경향과 형상기교의 평가, 창작경험과 다양한 론의 등 많은 문학관계자료들이 소개되어있으므로 문예비평사와 문학사연구에서 사료적가치를 가지고있다. 그러나 시화들은 미학적견해를 체계화된 리론으로 전개하고있지 못하며 많은 경우 시창작과 관련한 일화나 작가 또는 작품에 대한 저자의 감상을 단편적으로 기록하여놓은데서 별로 벗어나지 못하였다.



백 명 길

《창석동무, 초소는 우리에게 맡기고 래일은 꼭 떠나라구. 고향의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리겠소. 동무야 중대를 위해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지 않았소. 참, 그리고... 이걸 반소.》라고 말하며 중대장은 제대병사 한창석에게 곱게 포개여진 파란 비옷을 쥐여주었다.

《어디에 가든 이 비옷임자를 잊지 마오.》

몇해가 지나도록 주인을 찾지 못한 파란 비옷! 그 비옷은 두해가까이 중대장이 보관하고있었다. 지금도 창석의 가슴속 한구석에는 그 비옷에 담긴 잊지 못할 이야기가 소중한 자리잡고있다.

《중대장동지, 고맙습니다.》

비옷을 받아들고 중대부를 나선 창석은 훈련장 가늠에 키높이 자란 감나무밑으로 다가갔다. 그밑에 줄줄이 놓여있는 통나무의자에 앉아 파란 비옷을 살펴보는 그의 머리속으로 추억의 물결이 파도쳐왔다. 제일 먼저 눈앞으로 다가드는 고향집 어머니의 인자한 모습!...

어머니, 보고싶은 어머니!

제대명령을 받은지 두달이 되어오지만 이 아들은 고향으로의 귀향길에 오르지 못하고있습니다. 어찌 쉽게 발걸음을 뻗을 수 있겠습니까.

아담한 중대병실, 고향집뜨락같은 중대앞마당, 그 변두리를 짝 채우고 늘어서서 가을이면 노오란 감알들이 주렁주렁 달리곤 하는 감나무들, 그 너머로 봄의 훈향속에 바라보이는 기름진 부업밭들...

어머니, 이제 이 아들은 이 정든 곳을 떠나야 합니다. 떠나면 언제나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가슴을 아릿하게 할 병사의 고향이어서 훈련장의 작은 돌부리 한개라도 더 캐내고 부업밭의 겨울난 호박덕대도 다시 손질해놓았습니다.

이제 더 무엇을 할수 있을까?...

정작 떠나자고 생각하니 저 훈련장 올라타니머로 보이는 갈림길앞에 선듯 마음을 진정할길이 없습니다. 그 갈림길의 한길은 역으로 나진 작은 소

로길, 다른 한길은 읍으로 향한 포장도로입니다. 소로길을 따라 시오리쯤 가서 기차를 타면 하루도 채 못되어 어머니가 계실 고향집에 들어설수 있으련만...

돌이켜보면 군사복무 전기간을 뗏뗏하고 후회없을 위훈의 나날로 아로새긴 제가 무엇때문에 고향으로 가던 걸음을 되돌려세워 돌아와 중대장동지의 집에 패를 끼치면서까지 이토록 귀향길을 망설이는것이겠습니까.

어머니, 지금 저의 눈에는 어머니의 모습과 함께 한 처녀의 모습이 안겨오고있습니다.

읍으로 향한 포장도로로 30분가량 걸어가면 만나볼수 있는 그 처녀때문에 사실 저는 선뜻 고향으로의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있습니다.

소독수냄새가 질게 풍기는 군병원 2층의 어느 한 입원실, 처녀들이 너도나도 즐겨찾는 분홍색장화를 신고 나는듯이 포전길을 누벼야 할 처녀가 어머니, 뜻밖의 일로 다리를 상해 쌍지팽이를 짚고 병원문을 나서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훌륭한 처녀들만 보면 지금 내 손에 들려져있는 이 파란 비옷의 주인으로만 생각되는 나의 마음...

어머니, 생각나십니까. 몇해전 이 아들이 고향에 표창휴가를 갔던 일 말입니다.

《감나무집 아들이 표창휴가를 온다우. -》

그때 통신원아바이가 자전거를 타고 재주나 부리는듯 한손 높이 흔들며 온 마을에 소리치던 일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하던 해에 개간한 수렁논에서 세벌짐매기를 하던 고향마을사람들이 손에 쥔 돌피도 버릴새없이 저를 반겨 달려오고... 그들뒤로 수염이 한뼘이나 자란 어미염소가 달랑달랑 새끼들을 거느리고 매애- 소리를 연방 지르며 줄줄이 따라서고... 언제인가 농장적인 모내기경기에서 모공급수들중 단연 1등을 하여 《기세손》으로 온 농장에 소문을 낸 쌍둥이어머니가 물묻은 손을 앞

자락에 묻히르며 혼장단 저의 가슴을 어루쓸던 일이 어제일이런듯 삼삼히 떠오릅니다.

《이걸 어쩌누. 아들이 표창휴가를 온것도 모르고 비료 실으러 갔으니...》

농장관리일군으로 일하는 어머니가 도에 비료 실으러 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한순간 허전한감을 느꼈습니다.

사실 고향의 모습이라고 할 때 누구에게나 첫 순간에 떠오르는것은 어머니의 얼굴이 아니겠습니까.

나도 군사복무의 나날 그 어느 한시도 잊어본적이 없는 어머니의 모습이어서 이웃들의 열마디 찬사도 어머니의 다심한 한마디의 목소리를 대신하지 못했습니다. 허나 그것은 순간의 느낌일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없이 고향에서 보낸 나날은 길지 않았으나 나는 그 나날에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뜨겁고 강렬한 고향사람들의 인정에 매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지곤 하였습니다.

모두가 끼니때면 저의 손을 잡아끌었습니다. 쌍둥이어머니는 순두부를 했다고 저의 손을 잡아끌었고 뒤집 순옥이네 검정닭곰을 해놓고 몇번이고 박우물에 잠그었댔다며 오늘은 양보하지 않겠다고 저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어머니, 그뿐인줄 아십니까.

관리위원장아바이는 자전거 앞바구니에 첫물복숭아를 따시고 두번씩이나 나를 찾아왔습니다. 정말이지 온 마을이 나를 위해 뛰는것 같았습니다.

고향마을사람들과 함께 이른아침 들판으로 나가 줄대같이 실한 벼포기들이 자란 논판에 비료를 주던 일이며 서산에 노을이 붉게 물든 저녁이면 통탕통탕 마을길로 돌아오던 트랙포르의 동음소리가 지금도 저의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습니다.

어머니, 이 아들은 그 나날에 사랑과 정으로 가득찬 고향, 천금을 준대도 바랄수 없는 군민의 정을 더욱 가슴뿌듯이 느꼈습니다. 내가 나서자란이 땅, 어머니와 다정한 이웃들이 가꾸는 무연한 앞벌과 내 고향 사람들이 가꾸는 무성한 숲을 가슴가득 안고 초소로 가고싶었습니다.

허나 비료 실으러 갔던 어머니가 돌아와 휴가를 끝내고 돌아가는 이 아들의 가슴에 안겨준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 그것은 언제인가 우리 마을에 찾아오시였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품소 보아주신 감나무였습니다.

온 마을이 감빛으로 물들어가는 그 풍경이 좋다고 못내 만족해하시면서 감나무마을이라고 불러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감나무를 보시고 그토록 만족해하시던 장군님의 모습을 잊을수 없구나. 이 감나무모를 가지고 가서 너희 초소에도 심어라. 장군님을 그리는 병사들의 마음이 이 감나무에 어리도록 정성을 다해가꾸어라.》

어머니가 나에게 안겨준 그 세그루의 감나무모

가 지금은 키높이 자라 온 중대구내에 붉은 감알들을 주렁주렁 매여달고 이제나저제나 장군님을 모실 그날을 기다리고있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안겨준 그 세그루의 감나무모를 가지고 초소로 떠나기 위해 역으로 나갈 때였습니다.

비룡강나루터 가까이를 지나던 나는 뜻밖의 일로 걸음을 멈추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간밤에 내린 소낙비로 무섭게 불어난 강가 나루터에는 강건너 3작업반으로 실어가는 비료마대가 쌓여있었고 그걸 운반해가는 3작업반의 고수머리청년은 오늘따라 고장이 나서 수리하러 간 발동선이 아직도 도착하지 않아 울상이 되어 걱정을 하고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당장 또 한소나기 퍼부어댈듯 검은 먹장구름이 꾸역꾸역 몰려들고있었습니다. 북대봉 너머에서는 벌써 한소나기 들부어대는듯 둔중한 우뢰소리가 간단없이 들려왔습니다.

역으로 나가던 저는 차마 발걸음을 땔수 없었습니다.

《동무, 그러고있으면 어떡하오. 나루배로라도 강을 건넵시다. 그러다간 비에 비료가 다 못쓰게 되겠소. 자, 동무는 배우에서 노를 젓고 난 헤엄치면서 배를 밀면 능히 강을 건널수 있을것 같소.》

나와 고수머리청년은 경황없이 나루배에 비료마대를 싣고 그우에 비닐막을 덮었습니다.

제방쪽우에 감나무모가 들어있는 배낭을 벗어놓은 나는 물속에 들어가 헤엄을 치면서 배를 밀었습니다. 배는 기슭을 벗어나자 세찬 물살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있는 힘껏 배를 밀고 노를 저었습니다. 아니나다를까 흐려있던 하늘에서 비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비발이 그닥 세차지기 전에 무사히 기슭에 배를 댈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강을 건느려고 물속에 들어서려고 하자 고수머리청년은 무작정 내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됩니다. 비를 굶고...》

《내 걱정은 마오.》

나는 청년의 바래움을 받으며 다시 강을 헤엄쳐 건넜습니다. 점차 비발이 세차졌습니다. 강물은 떨어지는 비방울로 죽가마뽀듯 했습니다. 저는 강을 헤엄쳐 건너가면서도 강쪽우에 벗어놓은 감나무모가 든 배낭이 걱정스러워 자주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만한 비면 배낭이 물범벅이 될텐데...

제가 강을 절반쯤 건넜을 때였습니다. 배낭을 벗어놓은 강쪽쪽에서 한 처녀가 한동안 머물거리다가 역쪽으로 난 길로 총총히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실 감나무모가 비에 상할 근심에 불안했던 저는 역쪽으로 사라지는 처녀의 모습을 보자 더욱 마음이 조급해났습니다.

진해가는 맥을 가다듬으며 강물에서 나온 내가 제방쪽으로 달려가니 놀랍게도 배낭이 파란 비옷으로 꼼꼼히 씌워져있었습니다. 소낙비여서인지 비는 인차 멎었습니다. 저는 비옷을 벗었습니다. 감나무모가 들어있는 배낭에는 한방울의 비도 새여들지 않았습니니다.

서둘러 강쪽에 올라선 나는 비옷주인부터 찾았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비옷입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나는 내심으로 비옷입자는 분명 그 처녀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비를 맞으면서도 감나무모가 든 배낭이 비에 젖을세라 비옷을 벗어 덮어주고 바람처럼 사라진 처녀...

나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그 처녀의 소행에 가슴이 찢릿해짐을 느끼며 손에 비옷을 들고 역으로 향한 길로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니다. 역쪽으로 가던 그 처녀의 모습이 생각나서였습니다.

역기다림칸에 들어서기 바쁘게 나는 비옷을 손에 들고 몇명의 처녀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모두 머리를 저으며 아니라고 하는 처녀들의 대답에 맥이 풀려 할수없이 배낭속에 비옷을 넣은채 초소로 떠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언제인가는 비옷주인인 그 처녀를 꼭 만나게 될것이라는 확신이 굳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러나 저는 아직도 그 비옷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나의 배낭속에 소중한 간직되어 어느 한시도 나에게서 떨어져본적이 없는 파란 비옷!...

한번은 그 비옷때문에 중대장동지로부터 심한 꾸중을 들은적도 있었습니다.

어느날 제가 병실에서 여가시간에 배낭정리를 하고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병실을 돌아보던 중대장동지가 저의 배낭에서 나온 파란 비옷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아한 눈빛으로 파란 비옷을 집어든 중대장동지가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창석동무, 동무야 구대원인데 어쩌면 이럴수 있소? 군인이 사민들의 물품을 가지고다니면 안된다는걸 모르오?... 이 비옷은 돌려줄수 없소》

나는 애원에 찬 눈길로 중대장동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비옷에 깃든 사연을 이야기하면 중대장동지가 감동이 되어 돌려줄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허끝에서 뱅뱅 도는 말을 끝내 더놓지 못하였습니다.

그 일이 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중대장동지가 저를 불렀습니니다. 제가 중대부에 들어가니 책상우에는 그 비옷이 놓여있었습니다.

《창석동무, 동무들로부터 이 비옷주인의 아름다운 소행에 대하여 다 들었소. 우리 인민군대를 그토록 믿고 위해준 그 처녀가 바란것이 무엇이겠소?... 구래여 말하지 않아도 잘 알리라고 생각하오. ... 인민들의 그 마음을 언제나 가슴에 새기고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기 위해 노력

하자구. 그리고 이 비옷은 내가 보관했다가 동무가 체대될 때 돌려주겠소.》

이렇게 되어 주인없는 비옷은 중대장동지가 보관하게 되었던것입니다.

어머니, 이 아들은 때없이 비옷주인의 얼굴을 제나름대로 그려보곤 합니다. 그때마다 분명 아름다운 인간미를 지녔을 한 처녀의 모습이 눈앞에 나타나곤 합니다. 나타난 처녀들모두가 자기의 비옷이 아니라고 도리머리를 젖습니니다. ...

문득 언제인가 중대에서 멀지 않은 린근농장에 농사일을 도우러 갔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날은 뽕얀 안개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날이었는데 농장원처녀들은 서로 약속하고 비옷을 사입었는지 모두가 파란색의 비옷을 입고있었습니다.

하기야 파란색은 처녀들이 좋아하는 색깔이 아닙니까. 그런데 한 처녀만은 유독 분홍색비옷을 입고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파란 비옷을 잃어버려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용기를 내어 물으니 처녀는 고운 눈을 깜박이며 까르르 웃는게 아니겠습니까.

《호호, 아니예요. 난 파란색보다 분홍색을 더 좋아해요.》

그렇게 물었던 저의 생각자체가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리석게 여겨지던지...

비옷을 두고 내가 생각에 잠길 때마다 전우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대장동지, 이젠 비옷주인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을겁니다.》

《웁습니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일이 어디 한두가지라고...》

어머니, 전우들의 말처럼 한 이름모를 군인이 가지고가던 감나무모배낭에 비옷을 덮어놓고 사라진 처녀의 소행은 우리 시대에 꽃피나는 가지가지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에 비하면 너무도 작고 평범한것이었습니다.

내가 그 처녀를 잊지 못해하는것은 몸소 우리 마을을 찾아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것처럼 만족해하시었던 그 감나무를 초소에 안고가려는 나의 마음을 그토록 귀중히 여겨준 그 진정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전 어떻게 해서라도 그 처녀를 꼭 찾아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대 병사들의 이름으로 총심의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꼭 그런 날이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저의 그 마음이 너무도 극해서인지 얼마전에 저는 그 비옷주인과 얼굴도 마음도 하나같은 한 처녀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의 마음은 조밥나무가 담담히 심어져있는 군병원 앞마당에 서있습니다. 저는 울렁이는 가슴을 안고 2층입원실 창문가를 그려봅니다. 창력에는 곱게 핀 국화꽃화분이 놓여져 있습니다.

햇빛은 파사로이 창가를 비치고 꽃은 활짝 피어
져있습니다. 하지만 그 입원실침대에는 때이르게
시들어진 한송이의 꽃같은 처녀가 누워있습니다.

어머니, 이제 무엇을 더 숨기겠습니까.

어머니의 품으로 달리는 이 아들의 발목을 붙잡
은것은 다름아닌 그 처녀였습니다. 처녀의 이름은
김진숙입니다.

며칠전 저는 진숙동무를 찾아가 숫저운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어머니와 사전토의도 없이 인륜대
사를 론한 이 아들을 부디 용서해주십시오.

아들가진 부모들이 다 그러하듯이 어머니도 인
물잡고 마음씨 착한 처녀들을 볼 때마다 마음
속으로 살며시 이 아들의 곁에 세워보곤 했을
것입니다.

제가 진숙동무를 알게 된것은 내가 제대명령을
금방 받았던 올해 1월말 어느날이었습니다.

올해 겨울 이 고장에는 어느해보다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제가 진숙동무를 알게 된 날도 눈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나와 오진철동무는 군
무의 휴식시간을 리용하여 눈사태로 두절된 이웃
농장의 통신선을 복구해줄데 대한 임무를 받았었
습니다. 물론 농장에도 수리할 사람이 있을테지만
군대가 인민을 위하는 마음에는 사심이 없어야 한
다며, 제대명령을 받았다는것은 알고있지만 한번
더 수고해달라며 중대장동지가 우리의 등을 떠밀
었습니다. 그래 나와 진철동무는 준비를 갖추고
길을 떠났습니다.

진철동무와 나는 통신선이 갈라진 곳에서 각기
헤어져 단독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우
리는 통신선의 상태를 검열하고 다시 그 자리
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내가 맡은 통신선로를 검열하고 무릎까지 빠지
는 눈속을 헤쳐 약속된 지점에 도착했을 때 진철
동무는 아직 당도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늘은 한바탕 눈을 퍼부어댈듯 한껏 흐려있었
습니다. 대기는 바늘로 얼굴을 콕콕 찌르는듯 차
거웠습니다. 지난밤부터 좀전까지 지루하게 내린
눈이 통신선우에 위태롭게 쌓아져있었습니다. 저
는 한시간나마 기다리다가 별스레 갈마드는 이상
한 예감에 못이겨 진철동무를 찾아 한걸음, 두걸
음 떠났습니다. 긴 장대기로 눈을 털어가며 작은
등성이를 두개나 넘었지만 진철동무의 모습은 보
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나는 참나무가 배꼽게
들어차고 햇빛도 잘 비치들지 않는 후미진 곳
에서 끊어진 통신선을 발견했습니다. 이 구역은
지형이 험한 곳이어서 눈사태가 자주 일어나 애
를 먹는 곳이었습니다. 더구나 통신선이 지나간
곳은 높이가 10메터는 실히 될 칼벼랑우여서 한
발만 헛디디면 벼랑아래로 굴러떨어질 위험한 곳
이었습니다.

끊어진 통신선을 쥐고 무심결에 벼랑밑을 내려
다보던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벼랑아래로 무엇인가 미끄러져내려간 자리가 뚜
렷이 나있었고 벼랑중턱에 뿌리박은 크지 않은 소
나무가지에는 끊어진 통신선이 걸려 바람에 흔들
거리고있었던것입니다.

저는 벼랑중턱에 걸린 통신선을 끌어올려 이어
놓은 다음 벼랑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벼랑밑에는
맹수들이 격투라도 벌린듯 눈이 어지럽게 파헤쳐
져있었습니다. 순간 무서운 예감이 나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나는 진철동무가 혹시 눈속에 파묻히지 않았을
가 걱정되어 여기저기를 마구 파헤쳐보았습니다.
그러던 저는 불그레하게 피가 퍼진 눈을 발견
했습니다.

《진철동무!》

진철동무를 찾아 사방을 둘러보던 저는 산아래
로 찍혀진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벼랑우에서 떨
어져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린 진철동무가 제 혼자
내려갔을리는 만무했습니다. 누군가 구원자에 의
해 업혀갔을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발자국을 따라 내달렸습니다.

발자국은 왁새봉밀을 감돌아 흐르는 금천강쪽으
로 나져있었습니다. 발자국을 따라가던 나는 금천
강을 가까이한 곳에서 그만 흔적을 잃어버렸습니
다. 군소재지로 향한 큰 도로여서 자동차바퀴자리
들이 엇갈린 자리만 보일뿐 어느것이 구원자의 발
자국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던것입니다.

턱에 닿은 숨을 몰아쉬며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진철동무를 업은 구원자를 찾을수 없었습니다. 제
가 멈춰선 앞으로는 물살이 빨라 대한추위에도 얼
어붙지 않는 금천강물이 사품치며 흘러가고있습
니다. 무심코 강건너편을 바라보던 나의 눈에 적
십자표식이 나붙은 리인민병원이 비껴들었습니
다. 분명 진철동무를 업은 구원자는 리인민병원으
로 갔을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강상류로 한동안 올라와서 얼음을 타고 강
을 건넜습니다.

나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타박상을 입은 진철동
무는 병원 구급실에 누워있었습니다.

《진철동무!》 너무도 기쁜김에 내가 진철동
무를 소리쳐 부르자 나이가 지숙한 병원 원장
아버이가 침착한 자세로 나를 제지했습니다.

《진정하오. 응급처치를 했으니 안심하오. 인차
깨어날거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인사는 내게가 아니라 저 처녀동무에게 해야
하오.》

원장아버이는 진철동무의 맞은편 침대에 신발을
신은채 누워있는 환자에게 고개짓을 해보였습니
다. 나는 그때야 진철동무를 업고 병원까지 온
구원자가 처녀라는것을 알았습니다. 자기보다 훨
씬 더 무거운 진철동무를 업고 시오리길이나 되
는 산골길을 달려온 처녀. 가슴속에서 뜨거운것이

울컥 치밀어올랐습니다.

처치도구함에서 칼을 꺼내는 원장아바이가 간호원처녀의 협조하에 장작개비처럼 찝찝하게 얼어붙은 솜신의 한귀통이를 빼어내고 신발을 벗겨내어서야 나는 처녀가 발에 심한 동상을 입었다는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나는 밖으로 뛰어나가 눈을 한웅큼 뭉쳐들고 들어왔습니다. 간호원처녀가 떨리는 손으로 채 녹지 않은 양말을 벗겨내자 시퍼렇게 색이 죽은 35 문정도나 되어보이는 처녀의 작은 발이 드러났습니다. 나는 크고 뜨거운 손으로 눈을 쥐고 처녀의 발을 문질렀습니다. 나의 손으로 눈녹은 물이 줄줄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물이 저의 마음속 눈물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처녀의 발은 심한 동상으로 피가 통하지 않았습니 다. 나는 눈으로 언독을 뽑아보려고 그냥 처녀의 발을 문질렀습니다. 간간이 들려오는 신음소리가 저의 가슴을 허뻛했습니다. 처녀의 발을 문지르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발이 얼었겠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진철동무를 구원한 처녀의 희생성은 정말이지 놀라운것이었습니다.

랭상모판에 쓸 활창대감을 봐두려고 산으로 올랐던 그 처녀동무가 벼랑에서 떨어져 의식을 잃고 쓰러진 진철동무를 발견한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진철동무를 들쳐업고 어떻게 그 먼 길을 달렸는지...

처녀동무는 생명이 경각에 달한 진철동무를 위해 그를 업은채로 금천강물에 서슴없이 들어섰던 것입니다. 아마 그때 두발이 강물에 젖으면서 동상을 입게 되었던것 같습니다. 장독도 얼어터진다는 대한추위에 강물속에 들어선다는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줄 어머니도 잘 알고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동무의 소행을 들었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그 강물을 상류로 에돌아 건너온 저의 행동이 생각되어 자책감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그와 함께 제가 휴가길에 가져온 파란 비옷이 머리속에 려상됨을 어쩔수 없었습니다.

리인민병원 의사들과 우리 중대 전우들은 물론 군병원 의사들까지 모두가 떨쳐나서 그들의 치료에 백방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진철동무는 사단군의소로 후송되었다가 인차 완쾌되어 초소에 설수 있었지만 처녀동무는 회복되지 않아 지금도 군병원에 후송되어 입원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동무는 비판을 모르는듯 우리가 면회를 갈적마다 웃는 얼굴로 대해주군 합니다. 그것이 더 우리의 가슴을 허뻛니다.

그 처녀동무는 이제 금방 망울을 터친 꽃송이나 같습니다. 움터나는 청춘의 꿈을 활짝 피워놓아야 할 처녀입니다. 이제 가정도 이루고 아이도 낳아 행복한 가정의 주부가 되어 생을 한껏 즐겨야 할 몸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 동무는 침상에서도 한뼘두뼘 손바늘로 배띠를 만들어 속탈이 있는 우리 분대 꼬마전사에게 보내어왔습니다. 그리고 중대장동지에게 보내는 편지에 자기 걱정은 말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토록 아끼시는 병사의 본분을 다해달라고 절절히 당부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동의도 없이 사랑의 고백을 터놓은 처녀가 바로 이런 처녀였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진숙동무를 사랑합니다.

며칠전 어느날 나는 진숙동무를 찾아갔었습니다. 그의 병치료에서 어느 정도 차도가 있다는 담당의사의 말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입원실에 들어섰을 때 진숙동무는 무릎걸음으로 한치한치 창가로 다가가고있었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그에게로 다가섰습니다. 어떻게 간호원의 방조도 없이 침대에서 내려섰는지 나는 영문을 알수 없었습니다. 나에게 눈인사를 하는 그의 손에는 물이 반나마 차있는 물고뿌가 쥐여져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나는 그가 창가에 피어난 화분에 물을 주려고 했던것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얼굴이 온통 땀투성이가 된 그의 모습에 감탄을 금할수 없어 나는 얼른 창가의 화분을 가져다 진숙동무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방긋 웃음을 보내며 고뿌를 기울여 화분에 물을 부어주었습니다. 진숙동무의 그 행동을 보면서 나는 꽃을 사랑하는 그의 인간적면모에 대해 다시금 새롭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꽃은 활짝 피었습니다. 그 타는듯 한 붉은 꽃송이를 바라보는 진숙동무의 얼굴에 생기가 넘친 웃음이 어려있었습니다.

사실 나는 두다리를 못쓰는 진숙동무를 바라보면서 그를 때이르게 시들어가는 꽃송이처럼 생각했던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진숙동무는 시들지 않고 더 활짝 피어난 꽃송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아마 진숙동무도 자기가 가꾸는 화분에서 약동해가고있는 자신을 보았을것입니다. 바로 그런 처녀였기에 그는 비판을 모르고 웃으며 생활합니다. 매일 아침저녁 화분에 물도 주고 혹시나 자기 발에 한줄금의 신경이라도 흐르지 않나 체 혼자 안간힘을 쓰며 일어서보기도 합니다.

어머니, 그날 저는 울렁이는 가슴을 다잡고 진숙동무에게 마음속 진심을 터놓았습니다.

《진숙동무, 난... 동무를... 사랑하오. 일생을 동무를 위해... 이진 나의 진정ियो.》

군대성격 그대로 백메터활주로를 달리듯 짧고 투박하게 사랑의 감정을 터놓았습니다. 그러는 저의 가슴은 불덩이를 안은듯 뜨겁게 달아있었습니다.

나의 고백을 듣자 진숙동무는 흠칫 놀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의 이글거리는 눈빛은 순간에 그를 태워버릴듯 했습니다.

동실한 얼굴에 언제 한번 그들이 저본적이 없는 처녀, 어릴 때 붉은 습관인듯 말할적마다 껌박이

는 유난히 큰 두눈, 진숙동무는 숫저운 눈길을 내리깔았습니다.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숙동무는 눈길을 내리칸채 힘겹게 말을 뱉습니다.

《분대장동지, 전 누구의 동정을 받으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느 소설책을 보니 사랑이 결코 동정이 아니라고 썼더군요. 그렇습니다. 동정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숙동무에 대한 저의 사랑의 감정은 일시적인 흥분이나 동정, 사회적인 의무감때문만이 아닙니다.

저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아끼시는 병사들에 대한 그의 헌신적인 사랑, 남을 위해 자신을 서슴없이 희생할 줄 아는 그의 숭고한 정신세계에 반했던것입니다. 이런 처녀에게 누구인들 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진숙동무가 절 이해하지 않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그래 진숙동무 우리 진철동무를 동정하여 그를 업고 찬물에 뛰어들었습니까?》

격한 나머지 툭 내쏘았다는게 엉터리없는 그런 질문이었으니... 꼬챙이로 화분흙을 파헤쳐주던 진숙동무 흠칫 놀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예요, 동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대장동지 너무해요.》

진숙동무 원망어린 눈길로 나를 바라보며 맴맴게 말했습니다. 쌍가풀진 호수같이 맑은 눈동자에 축축히 물기가 어려있었습니다.

어머니, 나는 또다시 진숙동무의 가슴에 못을 박은셈이 되었습니다. 나는 가슴속으로 소래처럼 쓰거운 자책의 맛을 느꼈습니다.

그 이튿날 다시 병원으로 찾아간 나는 그를 담당해서 치료해주는 녀의사를 만났습니다.

녀의사는 나이가 오십줄에 가까왔다고 생각되는 진중한 녀성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래 저에게는 진숙동무를 사랑할 자격이 없습니까?》

녀의사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분대장동무, 어제 밤 진숙동무 나의 품에 안겨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분대장동무의 그 진정이 고마워서 말이에요.》

저는 한자리에 굳어져 녀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숙동무 우리 시대가 자랑할만 한 훌륭한 처녀예요. 그리고 분대장동무의 사랑도 받아들이 자격이 있는 동무예요. 그런데 분대장동무... 저 혹시 이런 경우를 예상해본적이 있어요?》

《어떤 경우를 말입니까?》

《진숙동무가 두발을 영원히 못쓸수도 있다는걸 생각해보았는가 말입니다. 물론 그건 최악의 경우이긴 하지만...》

나는 서슴없이 대답했습니다.

《생각해보았습니다. 영원히 그의 두발을 대신하여 진숙동무의 의지가 될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대장동무, 정말 고맙군요. 진숙동무를 일생토록 변함없이 사랑해주기를 바래요.》

녀의사는 나의 두손을 잡아흔들며 진정에 넘쳐 말했습니다.

어머니, 의사선생의 당부는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부속에 얼마나 큰 기대가 담겨져 있는가를 나는 심장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어머니, 저는 가렵니다. 진숙동무가 입원해있는 군병원으로 말입니다. 읍으로 향한 포장도로로 30분가량이면 가닿을 그 군병원쪽의 하늘은 지금 진숙동무의 마음처럼 티없이 맑고 깨끗합니다. 그 길로 성큼성큼 내짚을 저의 발걸음은 또한 얼마나 기꺼운것이겠습니까.

그가 비록 일생토록 제발로 걸을수 없다 할지라도 어머니, 저는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그가 제발로 대지를 활보할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확신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한점의 그늘이라도 질세라 힘을 주고 용기를 주어 이끌어주고 내세워주는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있음으로 하여 나는 서슴지 않고 진숙동무의 앞날을 확신할수 있는것입니다.

가겠습니다, 어머니!

어째서인지 부디 그 파란 비웃의 주인이라고만 생각되는 진숙동무한테로 나는 가렵니다.

파란 비웃의 주인!

나는 이제야 내가 그토록 찾고 기다리던 그 파란 비웃의 주인을 찾은것만 같습니다.

군병원 의사선생님들은 그렇게 심한 동상을 입고서도 여적 상태가 악화되지 않고있는 진숙동무의 상태가 신심을 준다면서 여기서 더 치료해보자고 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계시는 고향마을에 진숙동무를 데리고가서 내 손으로 치료해주고 싶습니다.

어머니, 용서하십시오. 어머니의 품을 잊고선 순간도 살수 없는 이 아들이기에 자그마한 주저도 없이 어머니의 품으로 가려는것입니다. ...

통나무의자에서 일어나 갈림길쪽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는 창석의 머리우에서는 봄물이 오르기 시작하는 감나무아지들이 미풍에 흐느적거리고 있었다.

×

그 다음날 아침, 해빛이 따사로이 비쳐드는 병원정문으로 파란 비웃을 손에 든 진숙을 업은 제대병사—한창석이 성큼 나섰다. 해빛에 눈을 시그러뜨리며 가없이 맑은 하늘가를 새삼스러이 바라보는 그들의 앞으로 부대 정치부에서 보낸 승용차가 발동소리를 죽여가며 조용히 다가왔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0돐기념 전국문학축전 입선결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운동의 매 단계 총화사업은 창작된 작품의 질과 량에 기본을 두고 진행하여야 하며 좋은 작품을 쓴 작가들을 운동의 선구자로 적극 내세워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따라 공화국창건 60돐을 맞는 지난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력사적전환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벅찬 투쟁속에서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는 전국문학축전을 진행하였다.

전국문학축전에 입선된 작품은 다음과 같다.

△ 소설문학부문

단편소설 《열다섯번째 해》 백보흠 (4.15문학창작단 작가)

단편소설 《마지막휴식》 신용선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단편소설 《적동색머리수건》 황용남 (4.15문학창작단 작가)

단편소설 《봄향기》 박혜란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단편소설 《병풍덕》 정금녀 (평안남도 남포시 우산장장작실관리소 로동자)

단편소설 《가시오갈피》 김홍철 (평안남도 신양군 안평청년광산 로동자)

기행수필 《백두산찬가》 리명 (조선작가동맹 함경북도위원회 작가)

혁명전설 《백상루에 나타난 흰새》 김우경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 시문학부문

장시 《해돋이》 김만영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서정서사시 《내 고향의 별바위》 김남호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시초 《우리 아버지, 행복한 우리 집》 류동호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시초 《어머니에 대한 추억》 송명근 (강원도에솔단 작가)

시초 《삶의 노래》 김선화 (김일성종합대학 문학대학 학생)

련시 《눈물의 노래》 최태국 (비전향장기수)

서정시 《수령님과 인민》 박경심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서정시 《승리한 영웅들결에》 한광춘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서정시 《봄은 아직 멀리에 있어도》 류명호 (김일성종합대학 문학대학 교원)

서정시 《그날을 안고 그 봄날을 안고》 고남철

(조선작가동맹 평안북도위원회 작가)

서정시 《흙에 대한 답시》 문동식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서정시 《청춘과 추억》 주명옥 (조선작가동맹 함경남도위원회 작가)

가사 《내 고향 동구길 지나 전선으로 가셨네》 리명옥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가사 《비행사와 푸른 잔디》 주경 (조선작가동맹 강원도위원회 작가)

가사 《눈내리는 만수대》 홍철진 (문학예술출판사 기자)

가사 《자랑일세 옥류관》 문용철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가사 《축복받은 부부》 리연희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가사 《조소는 용사를 키워낸다네》 채동규 (조선작가동맹 황해남도위원회 작가)

△ 아동문학부문

단편소설 《소중한 싹》 량철수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단편소설 《해빛넘치는 집》 민경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단편소설 《먼 후날의 이야기》 최치성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동화 《고집쟁이할아버지》 김형운 (조선작가동맹 강원도위원회 작가)

동화 《거짓말이 진짜로 된 이야기》 김성현 (조선작가동맹 평안남도위원회 작가)

우화 《박쥐의 달자랑》 김성률 (조선작가동맹 평안남도위원회 작가)

우화 《으름장을 놓는 늑대》 문영철 (조선작가동맹 평안남도위원회 작가)

동시 《우리 앞집 웃음소리》 성연일 (조선작가동맹 황해북도위원회 작가)

동시 《야영지의 밤》 김정연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 고전문학부문

사화 《봉산탈놀이》 리빈 (조선작가동맹 황해북도위원회 작가)

△ 평론부문

평론 《위대한 선군민족에 대한 긍지높은 서사시적화폭》 권선철, 김봉민 (조선작가동맹 황해북도위원회 작가)

평론 《수령형상단편소설에서 철학성을 보장하기 위한 작가의 기교》 리정웅 (조국희해주교원대학 교원)

소설가 리병수의 작가수업 몇 토막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는 온갖 넓은 틀에서 벗어나 소설문학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기 위하여 더욱 분발하여야 한다.》

개성이 뚜렷한 작가라고 할 때 그것은 단지 그가 창작한 개별적인 소설들을 종합하여 내리는 일면적인 평가가 아니다.

작품과 함께 작가까지도 특징지을수 있는 완벽한 개성을 넘두에 둔다.

한생을 통하여 이러한 개성을 련마해온 작가들 속에는 소설가 리병수도 있다.

소설가 리병수의 작가적면모를 특징짓는 점은 우선 현실체험에 대한 성실하면서도 적극적인 자세와 립장이다.

이것은 리병수가 평양에서의 작가학원생활을 마치고 주동적으로 량강도의 어느 립산사업소로 보내줄것을 제기한 끝에 《량강일보》사 기자로 배치받은 하나의 단편적인 사실을 가지고도 충분히 립증할수 있다.

이미 평양에 가정이 있고 집도 있으며 수도에서 작가학원을 졸업한 리병수라고 볼 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작가가 되는데서는 대학수업도 중요하지만 자체독서, 자체습작, 특히 생활체험이 제일 중요하다는것이였다. 그러므로 학원을 졸업하고 비교적 몸매에 배인 산간지대의 생활속으로 다시 들어가야겠다고 결심하고 량강땅으로 자원해간것은 리병수로서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였다.

작가의 생활체험이 빈약한 상식적이고 도식적이며 무미건조한 작품이 아니라 생활체험이 진하게 습배인 개성적이며 독창적인 작품을 쓰자!

이것이 작가 리병수의 생활체험에 관한 자세와 립장이였다.

그는 그것을 실천에 옮기였다.

작가는 유년시절에 체험하였던 우리 인민의 비참한 생활고를 그대로 자기 소설들에 반영하였으며 《량강일보》사 기자로 있으면서 체험한 현실자료들이 그대로 그의 창작적밀천으로, 재산으로 되였다.

장편소설 《붉은 지평선》에 그려진 대부분의 장면들, 즉 고산지대 인민들의 실생활의 이모저모는 리병수자신이 유년기때부터 보고 듣고 느낀 아버지, 어머니들의 생활이며 작가가 겪어온 산 체험의 력사이다.

현실주제의 단편소설들을 창작함에 있어서 실재하는 인물들을 작품의 주인공으로 내세운것도 작

가의 현실체험이 낳은 귀중한 성과이다.

그는 《량강일보》사 기자로 있을 때 단편소설 《령북땅》, 《사나운 겨울》, 《설령의 딸》을 창작하였는데 그 주인공의 원형들은 다 작가가 직접 대해본 현실속의 인물들이며 그 작품들은 오늘 리병수의 창작을 특징짓는 가장 생동한 작품들로 인정되고있다.

소설가 리병수의 작가적개성은 또한 평론에 대한 그의 원칙적이면서도 성실한 자세와 립장에서 두드러지게 부각된다.

리병수는 평론에 대하여 다른 작가들에 비해 보다 적극적이고 성근한 태도를 보여주군 하였다.

일반적으로 작가들은 평론계에서 자기 작품에 대해 호평해주기를 은근히 기대한다. 그리고 비평이나 혹평에 대해서는 저마다 각이한 자세를 보여준다. 진정으로 공감하고 머리숙이는 작가도 있고 불만을 느끼면서 의견이 분분한 작가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호평보다도 비평을 대하는 자세와 립장을 보고 그 작가의 금세를 정하는 때도 있게 된다.

소설가 리병수인 경우 그는 평론에 대하여 허심하면서도 진지한 태도를 보여주군 하였다.

《발표된 작품의 이러저러한 부족점을 가지고 론의하는것은 내 작품에도 기다려지는 일이요. 아무리 긍정면이 많은 사람에게도 부정면이 있듯이 크게 성공한 작품에도 부족점이 있을수 있소. 그러나 결함을 론의한다는것은 독자들에게 무엇인가 자극을 주었다는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벌써 작가가 일정한 문제를 던졌다는것을 의미하거나 다른 사람의 개성과는 구별되는 독창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니 결함과 부족점을 론의할수 있는 작품이라면 괜찮은 작품이라고 자체위안을 가질수 있소. 그러나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 작품은 무개성적이거나 상식을 라렬한 도식적인 작품이라는것을 의미하는데 그런 작품은 써내지 않느니만 못한것으로서 아주 무서운 일이요.》

리병수의 이 말이 진심이였다는것은 후날 그의 작품들에 대한 반응을 두고 그가 취한 태도들에서 뚜렷이 증명되였다.

단편소설 《령북땅》은 발표되자마자 커다란 반향속에 성과작으로 평가되였는데 중편소설 《무지개 비끼 산밭》은 출판된지 1년이 지나도록 이렇다할 반향이 없었다.

그 작품은 작가의 초기흥분점이 당정책적요구와 맞지 않게 시작되였던탓으로 작가의 이전 소설들에 비해 그 사상에술적가치가 미흡하였다. 그러다

나니 평론계의 이목을 집중시키지 못하였고 독자들속에서도 반향이 없었다.

그러자 리병수는 실망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한 작가가 그래도 심혈을 기울여 중편소설이라는걸 처음으로 단행본으로 내놓았는데 하다못해 욕설이라도 퍼부어줘야 할게 아닌가. 1년이 지나도록 함구무언이니 이진 그 작품에 대한 무관심이고 작가에 대한 홀시요. 호수에 가랑잎을 던지듯이 사회에 아무런 바람도 일구지 못하는 글의 쓰레기를 내놓았다는 소리나 같은거란 말이요.》

이에 대하여 한 작가가 물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써낸 작품을 두고 누구인가가 비판을 해줘도 좋겠단 말입니까?》

《물론이요, 호수에 차돌을 던졌을 때 일어나는 야무진 파문과 같이 성공작이라고 떠들어주면 더 좋겠지만 그런 작품이야 어디 쉽소. 그러므로 결합과 부족점에 대해서라도 활발히 논의해준다면 괜찮겠다는거요.》

그러면서 그는 계속하여 도식적이고 상식적이고 무개성적인 무난한 작품은 우점도 결합도 논의되지 못하고 독자들의 관심에서 제거되어버리며 결합에 대해서라도 논의되는 작품은 다른 작가와 구별되는 개성이 있거나 새로운 문제를 제기해보려는 시도가 있는 작품이더라고 하였다. 그런데 자기의 중편소설 《무지개 비긴 산발》은 결합에 대해서조차 논의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것은 분명 실패한 작품이라는것을 말해주는 뚜렷한 증거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처럼 상식적이며 무개성적인 가랑잎보다 비판이라도 가해지는 부석이 훨씬 나은것이라고 거듭 말하는것이였다.

이와 같은 리병수의 높은 요구성과 성근한 태도는 그가 앞으로의 창작에서 보다 원숙하고 보다 토색질은 소설들을 써내리라는 믿음을 굳게 하여 주었다.

리병수의 작가적개성은 그나름의 독특한 창작로동을 통해서도 엿볼수 있다.

그는 걸으면서 사색하다가 생동한 장면이 완결된 화폭으로 떠오르기만 하면 길가의 돌우에나 숲속에 주저앉아서 원고지에 여러장 또는 한개절씩 단숨에 써내려가곤 하였다.

이렇게 한창 줄기차게 쓰다가 막혔다고 해서 그 자리에 앉아 붓방아를 찧어가며 생각을 짜내어 쓰기를 계속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

서슴없이 붓을 놓고 물러서서 독서를 하든가 산책을 하면서 새로 구상을 무르익혀가지고 막혔던 고리들이 완벽한 형상으로 재생될 때라야 다시 붓을 잡았다.

그러므로 추고를 할 때에도 마음에 들지 않는 장면이나 세부를 뭉청뭉청 떼어내고 다시 쓰는 경우는 많아도 씩여진 원고지의 칸살에 삽입표를 하고 몇자씩 써넣거나 몇자씩 찢고 다시 쓰는것과 같은 작업은 많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리병수는 작가적개성의 견지에서 볼 때 현실을 대하는데서나 평론을 대하는데서 그리고 창작로동의 면에서나 일생을 화전에서 농사지어온 산골농민파도 같이 소박하고 근면하게 자기나름의 독특한 성격미를 갖추어온 개성적인 작가였다.

오늘 리병수의 소설들 한편한편이 것처럼 생동하고 구체적인 산 모습으로 독자들의 시야에 가깝게 비쳐드는것은 그가 형상한 주인공들의 뒤에 작가 리병수가 언제나 함께 서있기때문이기도 하다.

오늘 선군시대의 작가들은 높아지는 시대의 요구와 군대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자기 식의 독특한 작가적개성을 확립함으로써 선군문학화원을 더 아름답게 꾸리기 위하여 적극 분발하여야 할 것이다.

강 경 선

가 사

영웅과 나는 이야기하네

리 진 목

모교에 세워진 영웅의 동상
날마다 찾아와 이야기하네
금별의 위훈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나에게 정답게 속삭여주네
한그루 나무도 구슬땀 묻어 가꾸라고

모교의 영예를 빛내인 영웅
날마다 마음의 키 자래워주네
금별의 위훈은 어떻게 펼쳐는가

나에게 정답게 속삭여주네
불보다 뜨거운 동지의 사랑 지니라고

위훈의 스승으로 영생하는 삶
영웅은 언제나 속삭여주네
자신보다 먼저 조국을 생각할 때
누구나 금별의 위훈 세운다네
영웅많은 내 나라 너와 나 영웅이 되자고



변 장 룰

어둠이 깃든 밤, 잠든 아기의 숨결인양 부드러운 와닿는 봄바람, 별에서 들려오는 프락프락의 발동소리, 개구리의 울음소리...

작업반 초급일꾼모임을 끝내고 선전실을 나선 나는 어둠속에 눈길을 준채 발길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원 참, ... 그렇게두 바쁘단 말인가?)

모임이 끝나자 급히 문밖으로 사라진 부락당비서 박영찬이 아무리 기다려도 종시 다시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모임에서 토론된 문제를 가지고 할 말이 있어 따로 만나려던 참이었는데 온다간다 한마디없이 사라진 것이다. 사실은 회의시작전에 마주앉으려고 했었는데 부락당비서는 회의시간이 립박해서야 땀에 뚝 모습으로 황급히 나타났던 것이다. 그런데 회의가 끝나자바람으로 말 한마디 불여볼새없이 사라졌으니...

원치 못한 반장의 심사를 짐작했는지 부락당비서가 속해 일하는 분조의 분조장이 혼자소리처럼 말했다.

《저녁무렵에 비서동무가 하는 말이 읍에 급히 다녀올 일이 있다고 했는데... 회의시작전에도 파수농장에 포도나무모를 부탁했었다던데 그걸 가지러 갔다오느라고...》

《포도나무모를?!》

어이없이 뇌이는 나의 귀전에는 울봄에 농가들에서 심은 과일나무들을 돌아보고나서 박영찬이가 하던 말이 울려왔다.

《5분조 길용숙어머니네 집에 심은 포도나무모 두그루는 아직 잎이 피지 못했더군요. 안팎으로 일감이 밀리다보니 관심을 제대로 돌리지 못한것 같습니다.》

작업반 한해농사를 좌우하는 이 바쁜 모내기때에, 더구나 나무심는 철도 지난 때에 그걸 가져다 어쩔셈인가?

어쩐지 젊은 부락당비서가 오십고개를 훨씬 넘

긴 나이로 눈코뜰새없이 뛰어다니는 이 작업반장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것 같아 의지하려던 언덕이 무너진것처럼 속이 허우룩해났다.

지금이 어느때인가... 작업반자체의 힘으로 오늘까지 해온 모내기도 헛치 않은것이였지만 남은 일감은 더 아릅찬것이였다. 선행공정보장조건이 제일 불리한 면적들과 곱절이나 품이 많이 드는 모판자리가 남아있다. 게다가 밀보리와 감자 같은 앞그루작물비배관리와 강냉이, 콩을 비롯한 밭곡식의 씨숙음과 후치질, 김매기를 따라세워야 했고 모를 낸 논들에 대한 물대기와 시비, 시약작업이 겹쳐들고있다. 시간이 흐르고 날이 갈수록 논판으로 흘러드는 첫 보물처럼 일감이 늘어만 가는 바쁜 계절이다. 한데 박영찬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물덤병 술덤병하는 사람처럼만 생각되였다.

이윽고 나들문쪽으로 걸음을 떼려는 참이였다.

선전실앞마당에 풍성한 아지를 드리우고 서있는 수양버드나무밑에서 인기척을 내며 이쪽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다. 눈여겨보니 뜻밖에도 이웃작업반에서 사는 사촌누이동생이였다. 그는 왜서인지 몹시 주저하는 모습이였다.

《네가... 웬일이냐?》

《저... 알려드려야 할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게?!...》 나는 불시에 갈마드는 어떤 좋은 예감을 느끼며 그의 앞으로 다가섰다.

《저, 우리 영수 약혼식을...》

《영수 약혼식?!... 이 바쁜 때에?... 하긴 바쁜 때라구 혼사를 못한다는 법이야 없지. 한데 대상자는 어디 처녀가? 내가 아무리 바쁜 몸이라고 해도 약혼식에 빠져서야 안되지. ...

어서 가자구. 다들 기다리겠는데...》

약혼식문제를 놓고 의논 한마디 없었던 그의 처사에 섭섭함을 느끼면서도 나는 제먼저 재촉했다.

《실은 약혼식을 어제 저녁에... 했어요. 바쁜

때여서 우리끼리 간소하게 치렀어요.》

나는 문득 선자리에서 굳어지고말았다. 그러니 내가 방금전에 생각했던 좋은 일이 이제 《있을》 일이 아니라 이미 《있은》 일이었던 말인가. 일찌기 부모를 여의고 한집안에서 자란 이 오빠가 없이, 머느리감을 택하는것부터 약혼식과 결혼식은 물론 조카애들의 새살림에 필요한 세간불이며 집까지도 다 맡아안으려는 내가 없었어?!...

《어제 알려드리자고 하다가 너무 바빠해서... 박영찬부락당비서도 간소하게 하는것이 좋겠다고 권고하길래...》

《우리 부락당비서가?...》

《여기로 오기 전에 우리 작업반에서 세포비서로 일할 때 가까와졌어요. 그리구 오빠, 우리가 이불장이랑 양복장 같은걸 다 마련해놔오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아도 이름할수 없는 감정으로 언짢아졌던 나의 가슴속은 그의 마지막말에 울컥해났다. 그러니 이 오빠의 관심이나 도움 같은건 필요없단 말이지. ... 저도 모르게 뒤틀어진 말이 나갔다.

《난 오늘도 한가한 사람이 못된다. 지금도 고장난 트랙포르때문에 논벌에 나가봐야 한다.》

뒤에서 뭐라고 사정하는 말이 들려왔으나 나는 내쳐 앞으로만 걸여갔다.

섭섭했다. 자기네 집안일을 두고, 조카의 장래를 두고 원심을 쓰는 오빠의 심정을 그가 정녕 모른단 말인가? 왜서인지 누이동생이 이번 약혼식 때 우정 나를 멀리한것처럼 느껴졌다.

침울해진 기분에 잠긴채 마을어구에 이른 나는 잠시 서있다가 별을 향해 발길을 돌렸다. 번거로운 상념속에서도 5분조의 다락논에서 씨레를 치던 트랙포르의 가동상태가 속에 걸렸던것이다.

오늘 오후 5분조로 갔을 때였다. 마침 한배치의 씨레치기를 끝낸 트랙포르가 아래논으로 내려서고있었다. 논두렁을 넘느라 용을 쓰던 트랙포르의 후교부안에서 별안간 뿌드득, 뿌드득 하고 쇠를 깎는 아츠러운 마찰음이 튀어나왔다. 나는 그것이 동력전달장치중에서 가장 힘을 많이 받는 뻐헝축의 원추형치차이발이 넘는 소리라는것을 직감했다.

중량급력기선수처럼 우람진 체격을 가진 운전수 원일이가 트랙포르를 세우고 운전칸에서 내려다. 그는 물관리공의 삽을 달래여 바퀴밑의 논두렁을 푹푹 파냈다. 잠시후 트랙포르는 조심스레 아래논으로 내려섰다. 나는 조급한 어조로 물었다.

《일없겠나? 막판에 말썽이 없어야겠는데...》

《...》

원일은 검은 눈을 찡긍이며 큰 머리를 기웃했다. 누구도 견주지 못할만큼 고급기능공이면서도 언제봐야 더위먹은 황소처럼 늘어져있는 그의 태도에 나는 속이 불끈했다.

《똑똑한 대답을 해보라구, 그냥 견디여낼만 한가?》

《글쎄요.》

그러는데 웃논에서 두렁매질을 하던 박영찬이가 삽을 든채 다가왔다.

《차를 세워야 할것 같습니다. 다른 부속까지 녹아날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긴 한데 필요한 부속이 당장 있겠는지. ...》

《무슨 방도가 있겠지요.》

원일의 대답처럼 막연하게 올리는 박영찬의 대꾸에 나는 다시금 속이 부끄러워는것을 애써 눌러버렸다. 박영찬이가 작업반장의 위치에 있다면 공정계획대로 모내기를 매일모레까지 끝내는가 못 끝내는가 하는 문제를 저렇듯 꿈만 하게 대하지는 않을것이다. 한다리가 천다리라더니...

《어쨌든 모내기결속이 이 트랙포르에 달렸다는걸 명심해야겠소.》 하고 나는 오금을 박았다.

《트랙포르가 아니라 이 운전수한테 달렸다는 소리겠지요.》

원일은 두팔을 엇걸고 앉아 트랙포르 후교부쪽을 바라보며 혼자소리처럼 뇌였다.

그 트랙포르가 지금 어찌고있는지 알아보지 않고서는 잠시도 마음을 놓을수가 없었다. ...

큰길옆에 자리잡은 길용숙의 집앞을 지날 때였다.

《두두, 이놈, 이놈의 돼지...》

전지불을 휘저으며 소리치는 사람은 뜻밖에도 5분조장이었다. 열어젖힌 대문앞에서 어미돼지 한마리가 달아날 틈을 찾는듯 이쪽저쪽으로 대가리를 휘젓고있었다. 분조장은 어느 울바자에서 뽑은듯 한 막대기를 휘두르며 돼지가 움직이는데 따라 녁큼녀큼 땀박질을 하고있었다.

《주인은 어디 가고 동무가 이 역사질이요?》

내가 한쪽을 막아주어서야 돼지를 트랙으로 몰아넣을수 있었다.

《글쎄말입니다. 어디가서 또 《메추리농사》를 하고있겠지요. 돼지가 뛰쳐나 농장밭에 뛰여든것도 모르구...》

길용숙은 두 아들을 인민군대에 내보내고 지금은 남편과 막내딸 셋이서 살고있다. 양수공인 그의 남편은 요즈음 밤낮없이 양수장에 나가있다. 어이팔은 눈만 뜨면 별로 나가고... 하지만 일을 마친 저녁에야 왜 제때에 들어오지 못하는가. 분조장의 말마따나 《메추리농사》에 발목이 잡혔는가. 최뚝이나 길썰, 도랑기슭 어디나 빈땅만 보이면 무슨 곡식이든 파고 심어 분조수확고에 보태는 그를 두고 사람들은 먹이만 생기면 정해진 장소가 없이 아무곳에나 숨겨두는 메추리에 비유해서 웃는 소리로 놀려대군 했다.

《부락당비서동무가 어느틈에라도 이 집에 매일 한번씩은 들러보라기에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하마트면 강냉이밭 한모퉁이를 다 녹일번 했군요.》

돼지를 우리에게 몰아넣고 뜨물 한바가지를 구유에 쏟아주고나서 돌아서던 분조장이 담장앞에서 주춤 섰다.

《이게 포도나무가 아닙니까? 비서동무가 어느틈에 벌써 심어놓고 갔군요.》

은연중 나의 눈길이 대문안의 랑쪽에 심은 두그

루의 포도나무로 향했다.

받침대에 의지해놓은 나무모둘레로 물이 함뿍 젖어둔 자리가 남았다. 그밖으로 키낮은 보호바자가 쳐져있었다. 연필대처럼 가느다란 줄기의 마디에 돋은 몽툰한 새순마다 솜털이 바르르한 연두빛 잎이 퍼지기 시작한 포도나무모였다. 잎이 피기 시작한 나무모가 살아나겠는지, 나가서나 들어가서나 곡식이꾸는 것과 집집승기르는데만 정신이 팔려있는 길용숙이가 부락당비서가 바라는대로 가꾸어내겠는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대문밖에서 분조장과 헤어질 때 내가 말했다.

《가는 길에 닭관리공네 집에 들려 운전수 밤참을 부탁하더란다고 전해주. 비육조의 닭 한마리를 가져다가.》

작업반에서 쓸 일이 있어 요구할 때마다 알낱을 닭을 자주 축내면 어찌느냐고 울상을 짓곤 하던 닭관리공의 얼굴이 떠올라 나는 곱씹어 강조했다.

마을 한끝에 자리잡은 농장원세대들의 터밭옆을 지나칠 무렵이었다. 앞쪽에 있는 터밭에서 녀인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길용숙의 말소리였다.

《...정말 모를 일이다. 어제 저녁 날이 너무 어두워 두이랑밖에 매지 못해 분명 열이랑 남아있었는데 오늘 와보니 다 땀구나. 너도 아니라면 누가 다 땀단 말이냐?》

그의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만하세요. 사람들이 우릴 보고 뭐라겠어요. 반장, 비서동지랑 말이예요.》

《철없는 소리 작작해라. 세상에 저절로 생기는 물건이란 없다. 나무 한가치, 난알 한줌에도 누군가의 땀이 스며있는 법이다. 그래서 어려운 때 물 한모금, 밥 한그릇 먹여준 사람을 평생 잊지 못해 한다는 말도 있는거야. 그걸 모르는 사람의 시비질은 누구의 말이든 귀담아들지 않아도 된다.》

그쪽을 향하고 선 나의 눈앞에는 오늘 새벽 여기서 보았던 일이 얼핏 되살아났다.

질은 안개속을 걸어 별로 나가던 내가 이 자리에 이르렀을 때였다. 길용숙이네 터밭쪽에서 젖은 곡식포기를 헤치며 호미질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낮빛이 흐려졌다. 저럴 시간이면... 그래도 이 작업반장은 농장원들의 땀감이며 벼를 찢고 국수를 누르는 것과 같은 생활상문제까지 안고 뛰어다니는데... 모난 말마디들이 입안에서 땀돌았으나 쓴약 삼키듯 하고말았다. 저런 일때문에 분조일에 늦거나 제몫을 못한 적은 한번도 없는 녀인이었던 것이다. 코멘 강아지 쥐구멍 쫓듯 나가서나 들어가서나 오직 일밖에 모르는 그였다.

그의 집에서 생산한 두엄이 량적으로나 질적으로 언제나 최상이어서 년조 분조편성때면 분조장들이 저마다 자기네 분조에 배속시키겠다고 다투는 판이었다. 그렇다고 해도... 하여튼 모두 내 맘 같지 않다니까.

터밭쪽을 바라보고 싶노라니 호미질하는 사람의 형체가 어슴비슴 안겨왔다. 어쩐지 한사람의 형체만이 아닌것으로 느껴졌다. 온 집안이 몽땅 떨쳐

나섰는가?...

안개속에서 일터로 나오는 녀인들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김을 매던 사람들이 서둘러 저 앞 길바닥으로 나섰다.

그들을 유심히 지켜보던 나의 눈이 불시에 화등잔만 해졌다.

작업반청년동맹비서 오길남과 청년동맹원들이 아닌가? 몇걸음 따라서며 보았으나 틀림이 없었다.

청년동맹원들이 남의 집 터밭김을 매준다? 부지깽이도 뭇다는 이 바쁜철에...

《앞으론 청년동맹에서 인민군대 후방가족들을 돕는 일에 더 관심을 돌립시다. 부락당비서동지가 아니었다면 농철번 했는데...》

오길남이 호미를 허리춤에 끼워넣으며 하는 말이었다.

그러니 부락당비서 박영찬이 청년동맹비서인 오길남을 휘동했던 모양이었다. 나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헛참!》하는 탄식이 터져나왔다. ...

제눈으로 직접 본 사람도 믿기 어려운데 저들 모녀가 김을 맨 사람이 부락당비서가 조직해보낸 청년동맹원들일줄이야 꿈엔들 상상할수 있으랴. ...

《참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 하고 중얼거리던 길용숙이가 별안간 일어섰다.

《그놈의 돼지가 또 뛰쳐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어서 들어가자.》

그들이 쫓기듯 어둠속으로 다가오자 나는 황황히 그 자리를 떴다.

벌을 향해 걸음을 옮기는 나의 눈앞에서 박영찬의 모습이 지워질줄 몰랐다. 주인을 가리기에 앞서 곡식밭의 김이 묵어나서는 안된다는 농사군본능의 충동으로 인한것이라고 보기엔 그가 너무도 젊었다. 이제 서른두살, 그것도 군사복무를 마치고 농사일을 시작한다는 몇해밖에 안된 사람이다. 이웃반에서 세포비서로 일하다가 여기 부락당비서로 온지는 다섯달밖에 안되었다. 리성보다는 감성이 더 지배적인 젊은 나이가 저런 《어이없는 일》을 부추긴것인지도 모른다.

솔직히 말해서 나에게는 지나간 다섯달동안 지내본 박영찬의 인간적면모가 썩 마음에 드는것은 아니었다. 무엇이든 도무지 서두르는 일이 없고 언제봐야 웃는 얼굴에 큰소리 한번 치는적이 없다. 두눈을 똑바로 뜨고 목청에 힘을 주어도 감당하기 어려운것이 초급일군사업인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식의 자세는 일군의 아량과 침착성으로 보기엔 너무도 완만하고 느린것이라고 여겨졌다. 젊은 사람이 지내 과격하다면 리해할수 있는 일이지만 이런 타고난 호인같은 성격에는 선뜻 공감하게 되지 않았다. 일군이 이렇게 모난데가 없어가지고서야 숨이 막혀와 어떻게 손발을 맞추어 일할수 있단 말인가. ... 이래저래 심사가 편치 않았었다.

벌가운데로 뻗어나간 철길과 리소재지로 향한 큰길이 교차되는 곳에 이르렀을 때였다. 큰길로 소달구지를 몰고오는 사람의 형체가 어슴푸레 안

겨왔다. 5분조 부림소관리공 백아바이였다. 저녁 무렵 관리위원회에 비료와 농약을 타러 보냈는데 어째서 멀지도 않은 길을 어두워서야 오는지 알수 없었다.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반장인가? 소 배두 불러야겠기에 길옆에서 풀을 뜯기우다 오는 길일세. 기술원이 있겠지?》

기술원은 물받는 시간이 되어 원수로에 가고 없었다. 하는수없이 내가 되돌아가서 비료, 농약을 창고에 넣어야 했다. 두사람의 말을 엿들으려듯 덩지 큰 황소가 걸음을 한껏 늦추었다.

《이 바쁜 통에 아바이두… 기다릴 사람두 생각해야지요. 어서 잡시다.》

했으나 아바이는 《자, 또 가보자—》 하면서 소 잔등을 어루쓸듯 슬쩍 다쳤다. 바빠하는 반장의 마음 같은건 알바가 아니라듯 한 그 거동에 나의 마음속에서는 지금껏 지탱해오던 자제력의 탕개가 끊어지고말았다. 아바이의 손에서 파리채를 나꾸어낸 나는 부지불식간에 소잔등을 후려쳤다.

《이랴! 이랴!…》 연방 내려치는 채찍에 화들짝 놀란 황소가 큰눈을 희번뜩거리며 멍에를 벗어던질듯이 네발을 뚝 뻗치고 대가리를 사납게 저었다. 아바이는 제가 얻어맞기라도 한듯 필쩍 뛰며 내 손에서 파리채를 앗아냈다.

《자네 농사군이 맞긴 맞나? 때리면 가는게 손줄 아나 말일세. 부락당비선 자네갈지 않아.》

아바이는 무엇을 제껴버리듯 한팔을 휘휘 내저으며 달구지체에 바투 붙어섰다.

《일없다, 가자.》

저런 사람은 무서워할것이 못된다는듯 한 아바이의 말에서 나는 좀전에 찾아왔던 누이동생한테서처럼 소외당했던감을 다시금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작업반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선 나는 벌을 향해 급한 걸음을 놓았다.

5분조 다락논이 가까와올수록 논판에서 씨페를 치며 돌아가야 할 트랙토르의 발동소리가 들려오지 않는것이 나의 마음속을 불안케 했다. 혹시 더 건디지 못하고 차를 세운것이 아닐까. …

마른 논바닥에 세운 트랙토르옆에 밝은 충전등을 켜놓고 세사람이 앉아있었다. 그들쪽으로 소리없이 다가가던 나는 못박힌듯 굳어졌다. 가운데 자리에 턱을 고이고 앉은것은 교대운전수이고 머리가 맞닿을듯이 마주앉은 두사람은 원일리와 박영찬이었다. 그들이 들여다보고있는것은 장기판이었다. 원일의 운전칸에 요긴한 공구처럼 항시 붙어다니는 애용품이었다. 장기나 주패라면 오금을 못쓰는 원일은 상대만 있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마주앉곤 해서 나한테서 따끔한 말을 들은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아무리 오락을 즐긴다 한들 자기의 트랙토르때문에 모내기결속이 왔다갔다하는 판인데… 원일의 처사도 어처구니없었지만 썩평 좋게 그와 마주앉아 장기쪽을 주무르고있는 박영찬이가 더 민망스럽게 생각되었다.

(하여튼…)

《이렇게 답답하다구야. 물마시러 갔나, 밥잡수러 갔나? 써야 장기가 아니요. …》

장기판에 눈길을 박은채 턱을 한가스레 문지르며 원일리가 시까스르는 소리였다. 보매 박영찬이 쪽이 물리는것 같았다. 그 말에 자존심이 상했는지 박영찬이가 장기쪽을 하나 집어들더니 자신없는 손놀림으로 옮겨놓았다. 원일리가 그 쪽을 넣음 집어들고 자기것을 그 자리에 옮겨놓으려 하자 박영찬은 그제야 자기의 실수를 깨닫고 그의 손을 붙잡았다.

《아, 아니요. 잘못 썼소. 한번만 물리지요.》

원일은 장기쪽을 옮겨치면 꿈쩍 않고있다가 한참만에 못이기는체 하며 손을 풀었다.

《일수부동이라지만 물려준다. 난 애당초 상대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장기를 두니까. …》

상대의 승벽심을 자극하는 원일의 그칠줄 모르는 입심에 박영찬은 대꾸 한마디 없었다. 장기판만 들여다보던 그는 끝내 손을 들고말았다. 멀찌기서 보아도 박영찬의 장기수가 신통치 못한것 같았다.

원일리가 흥심없는 표정으로 장기쪽을 모아놓으며 물려날 기색을 보이자 박영찬이 그의 손을 잡았다.

《벌써 일어나겠소? 1 대 1인데 승부를 갈라야 할게 아니요?》

《그 수로는 안되겠소. 차두 좀 봐야겠는데 이만합시다.》

원일리가 일어서려고 하자 박영찬은 그의 손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원일은 시답지 않은 표정으로 점도록 있더니 《정 그렇다면 할수 없구만.》 하며 주저앉았다. 실은 이렇듯 지긋게 달라붙는것을 누구보다 기뻐할 사람은 다름아닌 원일이자신이였다.

장기쪽을 다시 벌려놓던 원일리가 시물시물 웃으며 입을 열었다.

《보아하니 장기수를 뽐자는것 같은데… 그렇다면야…》

박영찬이가 급히 손을 내저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내 다 아오.》

박영찬은 마지못해 동의하듯 머리를 끄덕이며 응수했다.

다시 장기가 붙었다. 처음에는 전번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듯 하더니 얼마후에는 형세가 완전히 역전되었다. 박영찬의 쌍차, 쌍포의 엄호하에 상과 말이 적진을 종횡으로 누비며 상대편쪽을 사정없이 먹어치웠다. 순식간에 원일의 한쪽편이 번번해졌다.

《히, 추풍락엽의 신세가 됐는걸…》

이제 몇수면 승부가 나게 될 마지막순간에 박영찬이가 그야말로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 최후결속을 위해 궁호위에 붙여놓았던 차를 뽐아내는 순간에 여태 움직이지 않고있던 원일의 차, 포, 상이 익측을 찌르고 들어와 련속 장훈을 부르는통에 박영찬은 술한 쪽을 그냥두고 지고말았다. 맹랑한

눈길로 장기판을 바라보던 박영찬이가 군말없이 일어섰다. 그럴즈음에 그가 나를 띄여보았다.

《반장동지군요. 왜 또 나오셨습니까?》

《…》

《트락트르때문에 나오신것 같은데 걱정마시고 들어가 눈을 좀 붙이십시오. 운전수동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박영찬은 이내 어둠속으로 사라졌다. 그가 켜든 전지불이 빨리도 떨어져갔다.

원일이가 박영찬이 앉았던 벼짚나래옆의 형겼못치를 유심히 보다가 말했다.

《저게 뻥형축같은데…》

그러자 그것을 집어들고 헤치던 교대운전수가 환성을 질렀다.

《웁군요. 뻥형축입니다. 좀전에 비서동무가 이리로 올 때 뭔가 들고온다 했더니…》

그것을 넘겨받은 원일의 큰눈이 번쩍거렸다. 두 뿔정도 길이의 축 한끝에 달린 주먹만 한 크기의 원추형치차를 보니 새것은 아니었다. 한두개 떨어져나간 치차이발을 용접쇠물로 용착하고 다른 이발과 한모양으로 연마한 재생품이었다. 용착한 부위를 쇠붙이로 두드리고 그 자리를 유심히 들여다보던 원일이가 짐짓 큰 몸을 쪽 폈다.

《자, 시작해보자구. 동문 반치개를 차밀에다 받쳐놓소. 반장동진 여기서라도 눈을 붙였다가 차허리 끊을 때와 맞출 때만 좀 밀어주십시오. 공짜는 아닙니다. 하하…》

원일은 소리내어 웃으며 운전칸으로 올라가더니 운전석밑에서 필요한 공구들을 꺼내어 논바닥으로 던졌다. 일단 마음만 먹으면 《최대급행》인 그다.

《여기서 허리를 끊자구? 이 밤중에?!…》

미타하게 울리는 나의 어조에 원일은 의아한 빛을 지었다.

《그래서 반장동지가 차허리반치개를 날라오게 하구 뻥형축을 재생해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는 일결에 머리를 저었다.

《아, 그렇게 되었군요. 어쨌든 준비가 되었으니 허리를 끊읍시다. 지금 상태로는 더 견디어 내지 못합니다.》

기름초롱에다 후교부안의 기름을 뽑는 사이 연유도판을 분리하고 운전칸보호대를 내리웠다. 허리부분을 런결한 나사를 풀고 셋이서 들어붙여 반치개의 굴대를 조절하여 앞부분을 밀어냈다.

나는 두 운전수가 기름매닥질이 되어 분해해낸 뻥형축에서 치차이발이 마모된것을 확인하고나서 벼짚나래우에 누웠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나는 쇠붙이 부딪치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손목시계의 바늘은 새날로 접어들어 한시를 가리키고있었다.

량전에 충전등을 켜놓고 밀어냈던 앞부분을 도로 맞추느라 세사람이 힘을 쓰고있었다. 얼굴과 옷차림이 운전수들과 한모양이 된 박영찬이 가운데 서서 《하나, 둘…》 하고 선소리를 먹이고있었다. 나까지 들어서자 허리의 볼트구멍이 제격

제자리로 맞추어졌다.

손을 털며 뒤로 물러서던 나는 그제야 충전등가 사이에 놓인 두개의 보꾸레미에 눈이 갔다. 거기에서 구수한 음식내가 풍기고있었다.

수리작업이 완전히 끝났을 때 박영찬이가 내려우에다 큰 보자기를 펼쳤다. 법랑소랭이에 통채로 찌낸 닭이 들어있었다. 밥에서는 아직도 더운김이 피어오르고 봄통배추김치가 든 통우에는 풋마늘과 고추장종지가 놓여있었다. 원일은 풀지 않은 작은 꾸레미를 들어 한옆으로 멀찍이 옮겨놓았다. 내가 미심쩍게 쳐다보자 《이건 닭판리공이 가져온 밥참입니다.》 하고 대꾸했다.

《한데 왜 밀어놓소?》 나는 나의 성의가 무시당하는것 같아 따지듯 물었다.

《난 네발가진 고기를 먹으면 두드러기가 납니다.》 원일이가 시물시물하며 대꾸했다.

네발가진 고기라니? 그러니 닭이 아니란 말인가. 그제야 짐작이 갔다. 닭판리공이 알낳는 닭이 아까와 제 집 토끼로 대신한것이 분명했다. 한데 원일이가 네발고기를 정말 먹지 못하는가?

《이거 밤참치고는 너무 요란한데… 하여튼 비서동무의 열성을 봐서라도 일을 더 잘해야겠는데요. 하하…》

어서 들자고 제먼저 권하던 원일이가 《거 안주감이 아까운걸…》 하고 중얼거렸다. 박영찬은 한손을 뒤로 가져가더니 좀 커보이는 비닐병을 내놓았다. 분명 술이겠는데 피곤한 몸에 그것까지 마시면 어쩌랴 하면서도 마다하고싶지는 않았다. 우선 나부터도 한모금 생각났던것이다. 닭판리공이 가져온거라는 말에 그렇게나마 체면이 서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시기에 부으려고 병마개를 여는데 원일이가 통채로 당겼다. 녀새를 말하는 하던 그는 마개를 도로 단더니 자기 등뒤로 돌려놓았다. 내가 의아해서 쳐다보자 원일은 《비서동무가 종일 흘린 땀이 맹물로 될가봐 그러요. 그 땀을 이런것과 바꿀수는 없지 않소.》 하고 먼저 서둘러 수저를 놀리기 시작했다.

이 자리에 정말로 그것이 없었다면 내놓고 나무랐을지도 모를 그가 할일을 생각하며 제편에서 마다하는것이였다. 어느때 같으면 하루품이 들던 수리작업을 한밤중의 포전에서 단 몇시간안에 해치운 그로서는 충분히 그럴만도 한데 말이다.

통닭 한마리에 밥과 김치그릇까지 말끔히 비우고나서 원일이가 박영찬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치차재생을 농기계작업소 용접공이 하지 않았소?》

수저를 들고 발치만 내려다보는듯 하던 박영찬이가 머리를 수그린채 끄덕거렸다.

《그 사람의 숨씨라면 쓸만 하지. 장기수가 어지간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좀 비싸게 구는데 용케 구슬러냈구만요. 비서동무의 수도 어지간하다는 소리인데…》

원일은 주패나 장기수준으로 사람의 금새를 평가하는 버릇이 있었다. 제 기분에 뜬 원일이가 똘

가 더 말을 하려다가 굳어지고말았다.

박영찬이가 손가락을 천체 모로 쓰러지듯 넘어서 코고는 소리를 내고있었던것이다.

나는 갑자기 코등이 저려남을 느꼈다. 프락포르에 고장이 생긴 때부터 아니, 첫새벽 길용숙의 터밭에서 김을 매던 시각부터 이 순간까지 사방을 뛰여다니며 땀인들 얼마나 피로하고 땀인들 얼마나 흘렸겠는가. 나의 눈앞에 길용숙의 집 담장안에 심어놓은 애어린 포도나무가 언뜻 지나갔다. 그러자 그가 해내온 밤참도 무심히 생각되지 않았다. 한달전 그의 집에 갔을 때 보니 아직 병아리냄새가 가시지 않은 중닭들만 한마당 있었을뿐이었다. 그러니 이웃반에 있는 큰집이나 등너머 처가집에 가서 자는 사람들까지 복아대며 부산을 피웠을것이다.

나도 장기관을 마주하고 원일리와 승부를 겨루어본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간혹 원일리한테 저서 작업반남새조의 수박이나 도마도 같은것을 대접한 적도 있었다. 했으나 제 주머니나 제 집것을 가지고 《대접》한적은 별로 없었다.

잠든 박영찬을 한동안 지켜보던 원일리가 눈길을 들었다. 평소와는 달리 정색한 모습이었다.

《반장동진 비서동무와 장기를 두어본적이 있습니까?》

《장기? 아니, 없소. 한데 그건 왜?》

《아까 뽕뽕 지면서두 나더러 그 수를 가지고는 모내기가 끝난 후 있게 될 운동회 장기경기에 출전하기는 힘들겠다고 시카스르더란 말입니다. 뽕형축을 재생해온것을 봐도 그렇고 내가 암만 해도 상대를 파소평가한것 같단 말입니다. 정말 멋두 모르구 민충이 측대에 올라간것처럼 우쭐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쎄 다는 모르겠는데 아까 마지막판은 비서동무의 실수가 묘하단 말입니다. 다 이겼던 판인데.》

발동을 건 프락포르가 물을 댄 논판에 들어섰다. 흙밭을 풀어뜨리면서 넓은 논판에 물이랑을 지으며 기운차게 돌아가던 프락포르가 한배미의 씨레를 끝내고 다음배미로 내려설 때였다. 한결 속이 풀린 나는 운전칸에 대고 소리쳤다.

《모내기가 끝나면 장기관에 마주앉아 밤새껏 겨루어보자구.》

《좋습니다. 한데 난 작업반에서 기르는 닭고기를 먹으면 두드러기가 난다는걸 잊지 마십시오.》

《닭고기도 못 먹는다? 음, 영큼한 사람. 내 집결 내란 말이지. ...》

그러자 웃음을 터뜨리며 몸을 숙구던 원일리가 운전칸 웃판대기를 치받으며 《아이쿠-》 하는 비명소리를 냈다. 그 바람에 둘다 웃음을 터뜨렸다.

새날이 밝아온다는 생각에 나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떴다. 차수리작업을 하던 곳에 이르니 잠을 깬 박영찬이가 빈그릇을 들고 마을쪽으로 멀어져가고 있었다. 허리춤의 옷이 들린 짚으로 가로지른 호미자루가 얼핏 보였다.

회복해지기 시작한 새벽대기속에 서서 1분조 모판쪽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은 바람맞은 곡식밭처럼 안정을 잃고 다시금 설렁거리기 시작했다.

프락포르는 살아났다. 래일까지 모내기를 끝내자면 오늘중으로 모든 모판의 모뜨기를 끝내야 했다. 그래야 모판이 나는 족족 갈고 씨레를 칠수 있다. 그다음 작업반의 모든 력량이 총동원되어 모를 콧으면 모내기는 계획대로 래일 드디어 끝난다. 올해농사의 돌파구를 여는 모내기의 마지막 돌격전이다. 분조를 담당할 초급일꾼들이 바짝 긴장해야 한다. 시간과 로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물샐틈없는 조직사업과 강한 요구성이 안받침된 능숙한 지휘가 필요하다. 프락포르수리에서는 반장구실을 못했지만 이번에야...

나는 농장원들의 가동률을 최대한으로 높여야겠다고 생각하며 1분조모판으로 갔다.

《프락포르 언제 오나요?》

중년나이의 녀성인 1분조장은 만나자바람으로 프락포르 독촉부터 한다.

《인차 올거요. ... 한데 1분조에서 모뜨기를 오전중으로 끝낼수 없겠소? 그렇지 않으면 오후에는 일감이 없어 차를 놀리게 된단 말이요.》

프락포르의 일감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1분조를 담당할 작업반장의 체면을 봐서라도 오전중에 모뜨기를 끝내야겠는데...

모판을 바라보며 타산을 굴리는듯싶던 1분조장이 혼자소리처럼 말했다.

《오전까지는 힘들것 같아요. 오후 한참까지 라면 몰라도...》

어쩐지 자신없어하는 태도였다.

《오늘 작업조직은 제대로 했소?》

어제저녁 협의회에서 포치한대로 농장원가동률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조직사업을 녀두에 둔 소리였다.

《부대로력 둘이서 분조원세대들의 집집승판리랑 다른 일도 돌보도록 했어요.》

《그럼 됐소. 어쨌든 1분조는 오전중에 모판을 내야 하오. 오후에는 모내기에 집중하고...》

1분조장은 딱한듯 대답을 못했다. 나는 내가 1분조에 붙어있어야겠다고 결심했다. 현재 모내기실적이 제일 높은 1분조를 바짝 채서 공정을 앞당겨야야 전반적인 선행공정을 여유있게 보장할수 있다.

농장원들이 일터로 나오기 시작했다.

다래끼를 걸친 한쪽어깨를 잔뜩 숙구고 맨 먼저 모판머리에 나타난것은 뜻밖에도 원일의 안해였다. 어린애가 셋씩이나 달린데다 운전수인 남편이 밤낮 나가있는 통에 집안팍의 자질구레한 일까지 도맡아안고 늘 꼬리잡이를 하던 그였다.

《1분조에서 오늘 모내기실적이 쑥 올라가게 됐수다. 아주머니가 제일 먼저 나온걸 보니...》

젊은 녀인은 얼굴이 함박꽃처럼 금시 환해졌다. 녀인은 무슨 말인가 하려다말고 논으로 들어서더니 첫 모판에 마주앉았다. 나는 그에게 강조했다.

《하어튼 중수다. 오늘 래일은 모내기에 전념해야겠수다.》

분조원들이 잇달아 나오더니 나중엔 부대로력들도 모판에 들어섰다. 나는 분조장과 함께 매 분조원들이 수행해야 할 작업과제를 일일이 분담해주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오전중에 모뜨기를 끝내야 한다고 다짐을 받아내듯 또 강조했다.

멀리 보이는 동천 산마루에 해가 떠오를무렵 트랙포트가 1분조 논으로 들어섰다. 나는 원일의 안내가 가지고나온 남편의 밭구력을 들고 그리로 갔다. 밭구력을 받아놓은 원일이 철길쪽너머 양수장쪽을 가리켰다.

《양수장에 가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다가 들려보니 전동기에서 열이 나는데 베아링이 미타합니다. 뽀뽀뽀해도 양수기가 멎으면 큰일인데...》

여느때없이 심중해진 원일의 말에 나는 속이 철렁했다. 그러지 않아도 모내기에 물을 집중하느라 모를 낸 포전들에 물공급이 딸리는 판인데... 참말 고장이라면 베아링이 문제다. 용량이 큰 전동기의 베아링을 당장 손에 친것도 없는데 그걸 구해오고 맞추느라 빈틈없이 맞물린 모내기공정이 튀어나간다. 그러지 않아도 모내기시작전부터 양수설비의 예비부속품문제를 몇번이나 강조했었는데 설마하며 피일차일 미루어왔더니 끝내... 기와 한장 때문에 큰집이 무너진다니...

《거긴 어떻게 들렸됐소? 베아링이 녹는게 분명한가 말이요?》

《부락당비서동무가 부탁하더군요. 가는길에 들려보라고 말입니다. 빨리 손을 써야지 자칫하간 전동기를 아주 구워먹을수 있습니다.》

나는 쫓기듯 양수장으로 달려갔다. 문이 활짝 열려진 양수장안에 들어서니 기름 단 냄새가 코를 찔렀다. 1분조 물관리공과 함께 전동기를 분해하는 양수공의 얼굴에서 땀이 번질거렸다.

《허, 어찌된 일이요? 신선놀음에 땀을 뽀뽀다니.》

서늘한 양수장안에서 땀흘려 일하는것을 별로 본적이 없는지라 나는 신기한 생각이 들어 급한 마음에도 톱말부터 꺼냈다.

《속을 달구어대는데 부처님인들 견디어내겠소?》

《그러니 전에는 풀무질이 약했던 말이지. ... 한데 베아링이 어쩐다는게 맞긴 맞소?》

양수공은 전동기축을 움직여보였다. 공간이 생겨 아래위로 움직이는 소리가 났다. 난감한 기색이 된 나를 건너다본 양수공이 공구함에서 큼직한 베아링 하나를 꺼냈다. 알집에 노란 덩이기름을 가득 먹인 새것이였다. 눈이 다 번쩍 떠였다.

《이게 어디서 났소? 동무 책임성이 있구만.》

양수공의 얼굴에 시뭇한 표정이 언뜻 지나갔다.

《사실이야 부락당비서동무가 구해준거나 같지요. 모내기를 시작할 때부터 예비부속품을 마련해놓아야 한다고 성화더니만 요즈음은 매일 찾아와서 따지는데 어디 견디겠더라구요. 이 핑계로

하루, 저 핑계로 하루 하다가 며칠전엔 더 구실을 댈게 없어 집에 구해놓았다구 거짓말을 했지요. 했더니 제 눈으로 직접 보자는거요. 없는것을 당장 보자는데 어찌겠소. 급해맞아 읍관개관리소로 달려갔지요. 당장 양수기가 셧다고 설레발을 쳤더니 구두쇠같은 지배인이 비상용이라면서 출고 전표를 떼도록 해주더군요. 그것이 요렇게 딱 들어맞을줄이야. ... 비서동무가 아니었다면 내가 오늘 무슨 일을 칠번 했소?...》

양수공은 낡은 베아링을 뽀뽀내면서 다시 입을 열었다. 평소예 말수가 적던 사람같지 않았다.

《반장하군 달리 큰소리 한번 칠줄 모르고 주근주근 접어들며 채찍을 드는데 뛰지 않고는 못 배기겠더군요. 사람을 움직일줄 알더라니까요.》

나는 그의 말에서 나에 대한 은근한 비난을 느꼈으나 대척을 못했다. 내가 그런 요구를 했어도 군말없이 집행했겠는가? 나는 스스로도 도리머리가 저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하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일을 시키는 방법상 문제인가, 아니면 사람을 대하는 작풍상의 문제인가?...

양수기가 다시 살아났을 때 나는 그곳을 나섰다. 안도의 숨이 나가면서도 얼굴이 화끈거렸다. 어제밤 트랙포트를 살릴 때처럼 이번에도 나는 둘러리적으로 옆에서 구경이나 한셈이다. 반장하군 달리 큰소리는 치지 않아도 사람을 움직일줄 안다던 양수공의 말은 나에게 너는 아무리 목청을 돋구어도 듣는 사람이 없다는 말로 감수되였다.

나는 그의 말을 부정하듯 머리를 설레설레 저으며 걸음을 뻗었다.

1분조에 도착하니 오전 중간휴식이 끝나고 작업을 시작하는참이였다. 젖을 먹인 어린애를 유모차에 올려놓은 원일의 안내가 분조장에게로 갔다. 그의 말을 들으며 내쫓을 처다보던 분조장이 딱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리로 다가갔다.

《무슨 일이요?》

《잠간 집엘 들어갔다와야겠기에...》

한참 바재이던 원일의 안내가 대답했다. 분조장이 무슨 말인가 보태려는데 그가 가로채듯 서둘러 말했다.

《딱한 사정이 있어 그래요.》

1분조장은 상관않겠다는듯 모판으로 물러갔다.

《아주머니, 오늘만은...》

《압니다. 한데 이것만은 제가 꼭... 그럼 얼른 갔다오겠어요.》

그는 말을 붙여볼 사이없이 마을쪽으로 급히 멀어져갔다. 그가 뜨던 모판으로 들어선 나는 옆에 앉은 분조장에게 물었다.

《저 아주머니가 무슨 일때문에 그러오?》

분조장은 좁아진 량미간을 펴지 못한채 침묵했다. 모든 일을 제대로 조직했다고 했었으니 할 말이 없는 모양이다. 한참만에야 변명비슷한 그의 말이 들려왔다.

《어미염소가 세마리나 되는 새끼를 낳았는데

씨가 배다보니 약한 놈은 젖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는가봐요. 약한 놈은 사람의 손이 따로 가야 한다면서...》

좁은 창 너머를 집오리로 묶던 나의 입에서 창졸간 푸념비슷한 소리가 튀어나왔다.

《얼얼수록 보챌다더니 새끼염소가 설사 젖을 잘 얻어먹지 못한다 한들 하루사이에 큰일나겠소? 제 생각밖에 모르니 사람들이 왜 다 그렇소?》

분조장은 가타부타 대꾸가 없었다.

《요구성을 높여야겠소, 어루쓸지만 말구... 반장이나 비서가 분조장뉘까지 대신할수야 없지 않소.》

떠놓은 모퉁이 열개도 되기 전에 원일의 안해가 모판에 나타났다. 분조장은 의아해졌다.

《어떻게 된거예요? 집에 가긴 갔었어요?》

《가다가 돌아섰어요. 속이 급해서 개울목을 건느려는데 5분조 길용숙어머니와 마주쳤지요. ...》

녀인은 숨을 돌리느라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했다.

《나에게 하는 말이 새끼염소때문이라면 가지 않아도 된다는거예요. 동쪽으로 오면서 보니까 마을의 염소를 다 몰고나온 늙은이들이 약한 새끼염소를 따로 골라 젖을 물리고있더라는거예요. 개울을 건너가보니 정말이더군요. 고맙다는 인사를 했더니 자기네는 부락당비서의 정치사업에 감동되어 자진하여 당적분공으로 그 일들을 맡아나섰다는거예요.》

주위사람들은 감심한 표정으로 머리를 끄덕였지만 나는 5분조에서도 사람들이 집일때문에 들락날락하고있다는데 먼저 신경이 갔다. 사람들이 이렇게도 제멋대로라구야. ... 나는 쓰던 모퉁이를 그냥 놓고 일어섰다. 5분조에 가보지 않고서는 한 자리에 더 주저앉아있을수가 없었다. 나는 논두렁으로 나가다가 돌아섰다.

《1분조는 오전중으로 모뜨기를 무조건 끝내야겠소. 알겠소? 분조장동무.》

원일의 안해가 먼저 대답했다.

《내가 해내면 되겠지요. 끝낼시다. 일이라는거야 마음먹기타인데...》

《오늘은 우리 분조 거부기의 어깨에 날개가 돋는 날이다. 우리두 한번 날아보자구요.》

의기가 돋은 한 녀인의 말에 모판에서는 한동안 웃음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5분조 다락논으로 간 나는 대변에 눈이 커졌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오후 한껏까지도 벅차다고 생각했던 모내기에는 벌써 말끔히 끝나고 모두가 모뜨기에 돌아왔은것이 아닌가? 날림식으로 굵팠 것이 아닌가 하고 논배미들을 차례로 돌아보았다. 어느 배미나 실한 벼모들이 가로세로 줄을 맞추고 바람결에 푸른 잎을 흔든다. 길지도 얇지도 않게,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도 정확히 보장하고있었다. 통풍이 잘되는 논두렁둘레에는 포기수를 곱이나 더 넣은 울타리모까지 꽃혀있었다. 그야말로 모내기한 첫날에 벌써 구수한 쌀밥내가 풍기는듯 싶은 일솜씨였다. 이렇듯 손색없이 빨리 해치웠다

는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제일 걸렸다고 생각했던 5분조가 현재는 전망이 제일 확고한 분조로 된셈이다. 이 역시 5분조에 비서가 속한때문일까?...

나는 5분조 모판으로 갔다. 농장원 부대로력은 물론 물관리공이며 후치공까지 모판에 들어섰다. 정비를 끝낸 모내는기계운전공도 모판에 마주앉았다. 그야말로 총동원, 총집중이었다.

부림소관리공 백아바이는 끈을 맨 비닐박막에 모퉁이를 걸어놓고 논두렁쪽으로 끌어내왔다. 그의 허리춤에 손바닥만 한 고무판대기가 달린 파리채가 가로 꽂혀있었는데 몸을 움직일 때마다 팔굽에 닿아 여간 불편해보이지 않았다.

《거 파리채는 좀 뽑아놓으시구려. 거치장스럽지 두 않소?》

나의 말에 아바이는 눈을 흘겼다.

《거치장스럽지 않느냐구? 내가 거치장스럽든 거치장스럽지 않든 자네가 무슨 상관인가?》

《뭘라구요? 이 아바이가...》

《그래, 이날 이때껏 나한테 반장이 이런 파리채 한개 만들어준적이 있었나 말일세. 소가 느리다구 채찍질을 한적은 있었어두 그런 일은 한번두 없었지. 그런데 내 아들벌되는 부락당비서가 이걸 만들어주었네. 강냉이밭머리에 찾아와 후치공은 신발이 곱이나 빨리 해진다면서 로동화와 이 파리채를 주구가더라 말일세. 보라구, 얼마나 정성들여 만들었나...》

얼결에 그것을 받아든 나의 눈길이 파리채를 더듬었다. 손가락굵기의 매끈한 물푸레나무에 팔알만 한 구멍이 프레스로 찍어낸듯 정교하게 뚫린 고무판이 붙어있었다. 손잡이부분에는 철맛이 있게 맞춤한 두께의 파란 비닐판이 덧씌워져있었다.

《부림소가 채찍으로 내몬다구 말을 잘 듣는건 아니야. 말 못하는 짐승두 절 귀히 여기는걸 안단 말일세. ... 이 파리채를 불적마다 부락당비서두 빨리 해지는 신발이나 소잔등의 파리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이 보잡이군과 똑같은 사람으로 여겨진단 말일세. 누가 쌀 몇가마니를 준대도 바꾸고싶지 않아. ... 나두 좀전에 이것을 논두렁에 놓을가했다가 그만두었네. 이런 물건의 금새두 모르는 자네같은 사람이 정신없이 돌아치다가 밟기라도 하면 어찌겠나? 그러니 제발 내결에서 머물거리지 말게.》

거치장스러운건 파리채가 아니라 바로 너같은 사람이라는 로골적인 비난에 나는 저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다. 채찍 하나만으로는 소를 부릴수 없다는 말도 강한 요구성만으로는 사람을 움직일수 없다는 소리로 여겨지며 심중을 예리하게 자극했다. 나 역시 사람과의 사업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내판에는 힘이 닿는껏, 사업상 허락되는껏 사람들을 위해주려고 원심을 써왔다. 한데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눈빛은 이렇듯 날이 갈수록 점점 식어만 가는가. 무엇이 모자라며 무엇을 놓

치고있는가? 일에 다몰리면서 거칠어진 성격 탓인가. 일꾼으로서의 조직적수완과 책임성이 부족한 탓인가?... 눈이 부실 정도로 햇빛이 내려쬐이는 대낮인데도 안개속처럼 눈앞의 모든것이 식연치 않게 보였다.

모판을 둘러싼 사람들속에서 길용숙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글쎄 미물같은게 골라골라 이 바쁜통에 암내가 날건 뭐란 말인가. 먹이도 설치고 우리를 뛰쳐나가 밤새 소동을 피우는데 이런 성화라구야. 어제 아침 일 나오면서 통나무구 껍짜이구 있는대로 올려놓아 가두고 나왔는데 점심에 들어가니 웬걸 또 뛰쳐나오지 않았겠나. 일이 밀려 죽을 짬도 없는데 이런 야단이 어디 있냐 말일세. 실은 울봄에 심었던 포도나무두 그 미물이 전번 암내때 뛰쳐나와 뿌리채 뿌쳐놓은걸 다시 심었더니 시들어버린거야. 반장은 포도나무를 살려내지 못했대구 이 로친을 욱하지만 어디 가서 하소하겠나. ...》

하두 속이 상하니 아이적에 들은 옛말이 다 생각나더라니까. 어느 농사꾼 집에서 조상제를 앞두고 두부를 앗는데 가마안에서 설설 끓는 두부물은 넘어나지 아궁이의 불은 풀어놓은 썰단으로 벌벌 기여나온다, 잔등에 엮은 손주녀석은 포단에다 뜨끈한것을 잔뜩 뭉그려놓고 보채는데 문밖에선 사돈님이 들어선다, 어느것부터 해야 할지 두팔만 쳐들고 미친년처럼 빙글빙글 돌기만 했다는거야. ...》

모판에 웃음판이 터져 한동안 그칠줄 몰랐다. 《그것이 오늘 아침엔 만결이 돼서 더 날치는데 그런대구 별도리가 있나. 반장이 총돌격이라고 냅다 모는데. 그래서 아무리 급해두 이번만은 참아라 하구 또 전날처럼 가뒀놓고 나왔네. 한데 그놈의 꼴이 얼른거려 일손이 제대로 놀지 않는단 말일세. 그러는데 칠참에 부락당비서가 슬그머니 귀뽀하는게 아니겠나. 작업반 돼지관리공한테 우리 집 돼지소릴 했는데 제대로 댔는지 얼른 가보고 오라는 소리였네. 그래서 갔더니 비육조종축돼지우리에 갔다온 그것이 우리안에 척 드러누워 온순해진 상통으로 쳐다보겠지. 오늘부터 계산하면 9월 초순쯤에 새끼를 낳겠는데 딱 알맞는 때지. 사실 전번 암내때두 그래서 미루었던건데 이번까지 넘기면 좀 늦을번 했지. ... 아마 부락당비서네두 어미돼지를 많이 길러본 모양이야. 그렇지 않고서야 귀신이라두 내 심정을 그렇게 들여다볼수가 없지.》

그러니 어제저녁 그 집 돼지가 배가 주린탓이 아니라 암내때문에 뛰쳐나와 소동이였는가?

길용숙의 말이 다시 들려왔다.

《자, 이젠 내 수수께끼를 하나 뱌네니 맞춰보라구. 뭔가 하니 우리 집 터밭 있지 않나. 요즈음 언제 거기까지 손이 돌지 않아 속만 태우고있었는데 어제 오늘아침사이 누가 김을 다 땀단 말일세. 엿저녁엔 새우미 트기 시작한 포

도나무를 가져다가 품들여 다시 심어놓고. 령감이 한 일인가 해서 찾아갔더니 날 보구 정신이나갔다는거야. ...》

누구든 맞춰보라구. 내 단단히 인사를 할테니.》 저마다 마주볼뿐 대꾸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긴 주인두 모르는걸 알력이 없지. 분명한건 지금처럼 농장일이 바쁜 때 집안일도 바쁘다는걸 항상 겪으면서 잘 아는 사람이라야 그런 일에 관심을 돌릴수 있다는거야. 우리와 똑같은 처지에서 같은 생각을 하면서 나와서두 들어가서두, 보는데서나 안 보는데서나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란 말일세. 이런 사람이라면 죽을테를 함께 뛰어들자구 해두 꺼릴것이 없지. ...》

평소에 수다스럽게 여겨온 길용숙의 말이 이 순간에는 많은 의미를 담고 나의 귀전으로 파고들었다. 처지와 생각이 똑같은 사람,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 지금까지 나 자신도 누구보다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라고 자부해오지 않았던가. 그런데 왜 저 사람들은 내가 흘리는 땀을 보려고 하지 않는가? 느닷없이 귀밑머리 희여진 안해의 모습이 불쑥 떠올랐다. 어찌다 일터에서 늦어온 저녁이면 아무 마련도 없이 기다리는 나더러 그렇듯 집안일에 손적시기 싫어해서야 무슨 일인들 제대로 해내겠는가고 꾸념을 하던 모습이였다. 나와서만, 사람들이 보는데서만 땀을 흘리는 사람, 들어가서도 안 보는데서도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 ...

이 순간 나는 어찌하여 오랜 나날 함께 일해온 자신과 농장원들사이의 멀어져가고 온지 다섯달밖에 안되는 박영찬이와는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한 덩어리로 나날이 가까와지고있는지 비로소 깨달아지는듯싶었다.

문득 어제저녁에 찾아왔던 사촌누이의 모습이 다시금 떠올랐다. 그가 왜 아들의 약혼식을 치른뒤에야 찾아왔는가. 그리고 내가 조카를 위해 장만한것들을 부디 마다했는가. ...

불현듯 나무 한가지, 남알 한줌에도 누군가가 흘린 땀이 깃들어있다면, 그걸 모르는 사람의 말은 귀담아듣지 않아도 된다면 길용숙의 말이 뇌리를 쳤다. 하다면 조카한테 주려던 그 모든것들에 내가 바친 땀과 노력은 과연 얼마나 깃들어있는가? 내 손으로 판자 한장 옮겨놓고 풀 한줌 뜯어온적이 몇번이나 있었던가. 돼지우리에 넣을 버짚이 떨어져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관심하는것을 당연한것으로 여겼다. 터밭의 곡식을 가꾸는데서도 내 땀이 배인 두엄보다도 손쉽게 마련한 비료로 대신할 생각을 더 많이 하지 않았던가.

나야말로 하나를 바치고 둘, 셋을 바라는 사람이였다. 바로 그것으로 하여 대중의 마음속에서 밀려난것이다. 이런 오빠가 있는것이 그리고 이런 오빠의 《덕》을 입는것이 뭇뭇할수 없는것으로 하여 누이동생이 내가 사돈앞에 나서는것을 꺼려했으리라. ...

《난 시를 아는 사람의 편입니다》

리조시기 둔량이라는 한 중이 있었는데 어려서부터 불교문헌, 기타 문헌들을 파고들어 모르는 것이 없었다. 게다가 시도 잘 지었는데 시의 내용도 좋았다.

그는 정몽주, 리색 등 당시의 이름난 시인들과도 즐겨 사귀면서 시를 지어주고 받기도 하였다.

당시 중들가운데 글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으므로 그의 명성이 더욱 자자해져 사방으로부터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심지어 집현전의 선비들까지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으러 다녔다.

이때 그의 나이 90살이 넘었다. 얼굴은 여위였으나 어딘가 고상함이 풍겼고 근력도 좋았다. 혹 며칠씩 음식을 먹지 않고도 시장기를 크게 느끼지 않았고 누가 밥을 가져오면 한번에 두어 사발씩 먹고도 그리 가빠하지 않았다.

언제나 빈방에 혼자 우뚝 앉아서 깨끗한 책상 위에 등불만을 켜놓고 밤새껏 글을 보았다. 그러면서도 피곤을 몰랐고 작은 글자도 잘 알아보았다. 초저녁부터 드러누워 자는 버릇이 없었고 또 누가 옆에 있는것도 허락치 않았다. 만약 필요하면 조그마한 징을 쳤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나왔는데 큰소리로 대답하는것은 피하고 조용히 나와 서있기만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외국에서 온 중이 시를 지어달라고 청해왔다.

왕은 곧 관리들에게 시를 지을것을 명하였다. 그리하여 수십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시를 지었는데

데 둔량도 어명을 받고 시를 지어 바쳤다.

그런데 문학행정을 책임지고있던 변계량이 그의 시를 제멋대로 고쳐놓았다.

《시가운데의 〈지위없는 쇠락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지 않으니 〈세상과 떨어진 쓸쓸한 사람〉이라고 해야 하느니라.》

이를 알게 된 둔량은 몹시 섭섭하여 면전에서 춘정(변계량의 호)에게 의견을 말하였다.

《변공은 참말 저의 시를 모르고 하신 일입니다. 어찌 〈쓸쓸〉이 〈쇠락〉만 하며 〈세상과 떨어졌다〉가 〈지위없다〉를 대신할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무런 꾸밈이 없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맛만 결단냈것입니다.》

《아닙니다.》

춘정도 지지 않고 맞섰다. 한참 마주 붙어 서로 제 주장을 세웠는데 이 소문이 어느덧 조정은 물론 그밖에까지 퍼졌다. 격분한 둔량은 자기가 지은 시를 걸어가지고 홀 떠나가버렸다고 한다. 이 사실이 성현(1439-1504년, 자는 경숙이고 호는 용재, 허백당)의 집에도 알려졌다. 형 성간이 성현에게 물었다.

《그래, 너도 앞으로 집현전의 교수가 될터인데 너 어느편을 들레냐? 집현전이나 아니면 둔량이나?》

형의 물음에 성현은 꺼리끼는 기색이 없이 대답했다.

《껌테기가 무슨 소용 있소? 난 시를 아는 사람의 편입니다.》

.....

이런 사람이 아무리 열성이 하늘에 닿아 목청을 돌군다 한들 거기에 귀기울일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농장원대중과 한모습, 한덩어리가 되는것, 이것이 오늘 우리 일군들이 해야 할 그 많고많은 바쁜 일중에서 제일로 바쁜 일이다. ... 이것을 깨닫자 눈앞이 금시 환해지는것 같았다.

나는 길용숙의 옆으로 다가갔다.

《그 수수께끼를 내가 한번 풀어볼가요?》

《반장이요?! ... 모르겠습다. 또 〈메추리농사군〉이라고 놀려대는 소리나 하지 않겠는지. ...》

《사람을 늘 그렇게만 보아선 안되지요. 내가 정말로 알아맞히면 어찌겠수?》

길용숙은 손을 내저으면서도 자못 기대가 담긴 표정으로 마주보았다.

《바른 소리만 한다면야 다르게 있겠소? 그저 반장이 밤낮 뛰어다니며 속을 태우는 농사일에 몸을 더 내대는것밖에 ... 그 이상 뭐가 있겠소, 그래 누구요?》

○ 유모아 ○

《역 습》

단편소설의 명수인 외국의 어느 한 작가가 억울한 죄로 감옥살이를 하고 나온지 얼마 안 되는 어느날 시내빠스에 올랐을 때였다.

《아니, 자네가 ... 언제 감옥에서 나왔나?》

웬 사나이가 그를 보고 이렇게 웨치자 려객들의 시선은 일제히 작가한테로 쏠리었다.

그러나 작가는 조금도 낯색을 달리함이 없이 《자넨 언제 감옥에서 풀려나왔나?》라고 반문하였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망탕 말을 하는 사나이를 패썹하게 여긴 작가는 그 사나이가 실지는 감옥생활을 한적이 없지만 정신을 좀 차리게 하려고 이렇게 《역습》했던것이다.

북 관 대 첩 비 는 말 한 다

리 성 덕

《북관대첩비는 말한다》라고 써놓고보니 뭔가 좀 설명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돌비석이 어떻게 말을 한단 말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수 있기때문이다.

물론 돌비석은 말을 못한다. 그러나 많은 《말》을 한다. 문학적으로 말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돌비석을 포함한 역사유적과 유물들은 실지로 역사와 후손들과 세월앞에 많은 《말》을 남긴다는 말이다.

돌비석이 하는 《말》을 전문적으로 연구분석하는 금석학이라는 학문이 생겨나고 누구나 볼수 있게 비석들과 역사유물에 새겨진 《말》을 종합하여 묶어놓은 《금석학편람》이요, 《금석학대계》요 하는 부피 두터운 책들까지 있다는 사실은 나의 말이 결코 문학적이구가 아니라는것을 믿게 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사실은 돌비석에 새겨진 글자보다도 비가 자기의 존재자체로, 자기가 헤쳐온 역사의 풍운과 만단사연을 통하여 후손만대에 남기는 《말》이 더 의미가 깊고 음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비석과 역사유물에 새겨진 글자를 연구분석하여 역사적사실을 고증확인하는것이 금석학자들이 하는 일이라면 글로 새겨있지 않으나 비가 하는 무언의 이 《말》들을 추리하여 만사람들에게 알려주는것은 작가들만이 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북관대첩비와 마주서고보니 저으기 어깨가 무거워진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말이니 말재간, 글재간이 없더라도 힘사라는것 말해보는수밖에 없다.

우선 북관대첩비란 뭐냐, 돌비석이되 허구많은 돌비석중에서 어떤 비석이나 하는것부터 말해야 할것이다.

북관이란 옛적에 함경도 마천령이북지역을 통털어 이르는 말이였고 대첩비(큰 대, 이길 첩, 비석비)란 큰 승리를 기념하여 세운 비라는 한자투의 말이다.

《한산대첩비》요, 《행주대첩비》요, 《연안대첩비》요 하는 비들과 마찬가지로 북관대첩비는 임진조국전쟁(1592-1598년)시기 북관지역에 침입한 왜적을 쳐이긴 큰 승리를 기념하여 세운 비이다.

비는 당시 함경도 길주목 립명(오늘의 김책시 립명리)에 세웠는데 대리석몸돌은 높이 187센치메터, 너비 66센치메터, 두께 13센치메터되

고 합각지붕모양의 지붕돌을 이고 화강석기초돌우에 든든히 서있다.

몸돌 앞면 웃쪽에 전자체(한자의 서체의 한가지)로 북관대첩비라고 새기고 앞뒤면에 1400여자의 비문과 비명(찬양하는 글, 한시체)이 새겨져있다.

비를 세운 사연

임진조국전쟁이 끝난 후 10년안에 다른 전승기념비(한산대첩비, 행주대첩비, 연안대첩비, 진주대첩비)들은 다 세웠으나 북관대첩비만은 110여년이 지난 후인 1708년 10월에야 세워졌으니 거기에는 필경 무슨 사연이 있을것인데 그게 뭐냐?

북관대첩비 비문에 의하면 임진왜란이 끝난 후 100년이 지나도록 북관지방에서 의병들이 거둔 승리는 임진대첩들중의 하나로 꼽히지 않고있었던 것이다. 그때까지 사람들이 임진대첩으로 꼽은 것은 해전에서는 리순신장군이 지휘한 한산대첩이고 육전에서는 권물장군이 지휘한 행주대첩, 리정암이 지휘한 연안대첩, 김시민이 지휘한 진주대첩 등이였다.

그런데 왜란이 끝난지 100여년이 지난 리조 즉종때인 1700년에 최창대라는 사람이 함경도 북평사로 임명되어왔을 때부터 북관대첩비를 세울데 대한 론의가 시작되였다.

최창대가 북평사로 임명되어 함경도 경성에 있는 북병영에 도착한지 며칠이 지나지 않은 어느날 이였다.

한낮이 기울무렵에 한무리 농군들이 북병영을 찾아왔다. 긴히 아뿔 사연이 있다기에 최창대는 아직 북관의 실정도 똑똑히 알아보지 못한 때였으나 그들을 맞이하였다.

원래 평사라는 벼슬은 국경을 접한 평안도와 함경도에만 1명씩 두고 국경수비와 국경무역과 관련한 사무처리를 맡고있는 정6품의 높지 않은 문관벼슬이였다. 함경도에서는 북병영소속의 벼슬이라 하여 사람들은 흔히 북평사라고 불렀다.

북평사 최창대가 관사마루로 나가니 마루아래 마당에 네사람의 농군이 엎드려있었다. 제일 나이들어보이는 로인 하나가 흰갓이나마 쓰고있을뿐 나머지 사람들은 흰 무명수건으로 상투나 겨우 가리운 막차림이였다.

《무슨 일들이냐?》

북평사의 틀진 말 한마디가 떨어지자 농군들은 일제히 《문안 드리옵니다.》 하면서 머리를 조아

렀다.

갓 쓴 늙은이가 일행을 대표하여 말을 시작했다.

《소인들은 길주목 립명고를 백성들이운데 한가지 긴히 여쭙 소청이 있어 찾아왔소이다.》

《무슨 소청인지 어려워말고 아뢰이거라.》

최창대는 마루우에 놓인 방석우에 자리를 잡고 앉아 아뢰이는 말을 끝까지 들었다.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으면 잘못 처리된 일을 바로잡아달라는 소청이려니 짐작하였는데 듣고보니 뜻밖에도 임진왜란때 자기 고을에서 왜적을 크게 쳐부신 싸움이 있었는데 그 애국사적을 전하는 전승비를 하나 세우게 해달라는 청원이었다.

한평생 호미로 땅을 허비며 살아가기에 급급한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렇듯 뜨겁고 소중한 생각이 간직되어있을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최창대였다.

하기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언제나 량반사대부들보다 백성들이 더 뜨겁게 간직하고있는것인 듯 했다.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같은 큰 전란속에서 나라를 구원한것은 언제나 백성들이었다. 그네들이 의병을 일으켜 총칼을 들고 싸우지 않았던들이 나라가 어찌 부지될수 있었을것인가.

크게 감동된 최창대는 농군들에게서 임진왜란때 북관의병들의 싸움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았다.

임진년 봄, 함경도쪽으로 밀려오던 왜적들은 두 왕자가 피란 가있는 회령까지 밀고들어가 반역자인 회령아전 국경인일파를 내세워서 립해군, 순화군 두 왕자와 그를 호종하던 왕자비와 시녀들, 대신들을 모두 체포하고 함경도를 타고앉았다.

반역자 국경인과 한족속인 경성아전 국세필, 명천의 정말수 등은 패당을 못고 왜놈들의 벼슬을 받고 각 고을에 틀고앉아서 살륙과 략탈을 마음대로 하였다.

이에 의분을 참을수 없었던 경성사람 리봉수, 최배천, 지달원, 강문우 등이 함께 의병을 일으킬것을 의논하고 북평사 정문부를 대장으로, 종성부사 정현룡과 경원부사 오웅태를 부대장으로 삼은 다음 의병을 불러모았다.

의병들이 회령아전 국경인, 명천의 정말수, 경성의 아전 국세필 등 반역자들을 모두 처단하자 각 고을 사람들이 호응하여 일어나 의병의 군세는 수천여명에 이르렀으며 가파(화대), 길주, 립명, 쌍포, 단천, 백랍에서 왜적을 쳐서 크게 이기고 이듬해 초에 북관의 전지역을 회복하였다. ...

립명고를 늙은이들의 이야기를 듣고난 최창대는 그들과 함께 립명, 쌍포를 비롯한 여러곳을 찾아가 의병들의 후손들과 연고자들을 만나보고 아직도 생생히 남아있는 옛 군영의 벽체들을 살펴보면서 걸음을 떼지 못해하였다.

임진년의 영웅들인 북관의병들의 공적을 추억하

면서 그는 늙은이들에게 말하였다.

《섬오랑캐의 화가 심하여 세 서울(한성, 개성, 평양)이 함락되고 8도가 무너졌을 때 북관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천만번 한목숨바칠 각오로 의병을 일으켜 왜적을 쳐이기고 나라의 강토를 회복하는 큰 승리를 이룩하였소. 이야말로 임진대첩의 하나로 꼽아 마땅할것ियो. 다른 대첩들은 다 지휘자가 높은 직위에 있어 관군을 출동한데 힘을 입었지만 북관의 대첩은 북평사의 보잘것 없는 직위를 가지고 홀어져 피란가는 백성들을 충정과 의리로 분발시켜 관군의 출동이 없이 한두고을이나 성만을 지킨데 그친것이 아니라 한 지역을 회복하여 나라가 왜적에게 먹히우는것을 면하게 하였으니 그것을 어찌 작은 공로라 하겠소.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록 북관의병들의 전승공적이 평가되지 못한것은 당시 함경도 관찰사 윤탁연이 의병들의 공로와 명성이 널리 알려지는것을 시기한데다가 전란이 끝난 후 정문부자신이 당쟁에 말려들어 억울한 모함으로 옥사당하였기때문이었소.

왜란이 끝난지 60여년이 지난 현종왕때(1660—1674년)에 조정에 그 사실이 다시 보고되어 정문부와 리봉수에게 벼슬을 추증하고 경성 어랑리에 〈창렬사〉라는 사당을 짓고 여러 사람들에게 제사지내도록 한데 그쳤소.》

최창대는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애써 흥분을 누르며 말을 계속하였다.

《그런데 행주나 연안에는 모두 비를 세우고 사적을 기록하여 그 업적을 전한 까닭에 동서의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게 하였지만 북관의 전공은 대단한데도 유독 비가 없으니 어찌 우리들의 수치가 아니겠소.》

동행한 사람들이 모두 찬동하였다.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생각도 그러합니다. 저희들이 비둘을 뜨고 비용을 마련하여 비를 세우겠소이다. 북평사어른이 비문만 지어주면 우리들이 천만년 지워지지 않게 자자구구 아로새기겠소이다.》

최창대는 다시한번 립명고를 늙은이들의 말에 감동을 느끼면서 침착하게 대답하였다.

《100여년전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 거둔 큰 승리를 나같은 이름없는 선비의 무딘 붓끝으로 어찌 제대로 그려낼수 있겠소. 나는 그럴만한 사람이 못됨을 부끄럽게 여길뿐ियो.》

립명고를 늙은이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거듭 칭하였다.

《점사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번 일은 북평사어른께서 선참 지지해주고 논의를 일으켜 이루어진 일이니 이제는 그만두어도 안될 일이고 아니해서도 안될 일이옵니다. 비문은 북평사어른이 써야

잘 쓸수 있고 제대로 쓸수 있을줄 압니다.》

최창대는 자기와 같은 벼슬을 살던 북평사 정문 부는 용약 창칼을 휘둘러 그렇게 큰 승리를 이루었는데 자기는 같은 북평사로서 붓끝을 놀려 비문을 짓는 일조차 못한다고 할 체면이 없다는것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느끼면서 로인들의 진정을 고맙게 받아주었다.

《여러 사람들과 의논하여 비문을 잘 만들어보겠으니 로인네들은 우선 좋은 돌을 골라 비돌을 잘 다듬는데 정성을 다해주기를 바라오.》

《알겠소이다.》

림명고를 늙은이들은 가벼운 마음을 안고 돌아갔다. ...

림명고을에 북판대첩비를 세운다는 소문이 퍼지자 백성들은 물론이고 량반선비들과 유생들까지 모두 호응해나섰다.

경성이북 고을들인 부령, 회령, 종성, 온성, 경원과 경성이남의 어랑, 길주, 명천, 가파, 성진, 단천고을에 이르기까지 북판의 모든 고을들에서 사람들이 모여오고 비용으로 쓸 보리섬, 수수섬, 조섬이나 포목동(돈 대용으로 쓰던 베나 솜으로 짠 천)을 실은 소달구지들이 모여왔다.

비돌은 예로부터 색과 무늬가 곱고 결이 고르로운데다가 광택까지 류달라서 나라에서 으뜸으로 치는 장현동 대리석을 골라서 떠냈다.

한편 북평사 최창대는 감영에 나가서 감사와 의논하고 북판대첩비를 세울것을 절절히 써올려 조정의 승인을 받고 장현동 채석장에 나가서 비돌까지 살펴본 다음 완성된 비문을 석공들에게 넘겨주었다.

비문 첫머리에 전자체로 북판대첩비라고 쓰고 그아래 비제목과 북판의병대의 업적을 쓰고 왜적들의 침략경위와 반역자들의 죄행, 의병대조직경위, 림명, 쌍포, 단천, 백담 등 주요전투승리에 대해 쓴 다음 끝에 북판의병을 찬양하는 시문으로 된 비명을 첨부하였다. 모두 1 400여자의 이 비문을 지은 사람은 최창대, 전자체로 제명을 쓴 사람은 윤덕준, 비문글씨를 쓴 사람은 리명필이라는 것과 1708(숙종 34)년 10월에 세웠다는것을 밝히었다.

옛 림명역 남쪽언덕에 비가 세워졌다.

북판대첩비를 세우자는것이 거론된 때로부터 꼭 8년만에 세워졌다. 비 하나를 세우는데 여덟달도 아니고 8년이 걸렸다니 짧은 기간이 아니다. 그러나 이 8년은 북판지방의 백성들이 반일애국의지를 가슴속에 더욱 다지고 굳히면서 모든 정성을 다하여 비를 세웠다는것을 말해주는 기간이기도 하였다.

시문으로 씌여진 비명 마지막구절은 이렇게 끝

을 맺고있었다.

림명의 언덕높이
비돌을 우뚝 세우고
칭송하는 글을 새겨
무궁토록 전하노라

무궁히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이 비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애국심과 향토애를 심어주었으며 우리 의병들의 영웅적투쟁과 왜적들의 패망상을 세상에 널리 전하였다.

그것이 이 비가 세상에 남기는 소리없는 《말》이었다.

그후 사연

비를 세운지 근 200년이 지났다.

이 기간에 비각도 몇번 고쳐지었고 나라의 모습도 많이 변하였다.

숙종왕이후 여러 임금들이 대를 이어가며 바뀌다가 고종왕대에 이르러 간악한 왜놈들에게 나라를 아주 먹히우게 되고말았다.

혈린 새등지에 성한 알이 있을수 없듯이 나라가 통으로 왜적에게 삼키우는 판에 림명고을 언덕위에 서있는 북판대첩비라고 무사할수 없었다.

《을사5조약》이 날조된 해인 1905년 어느날 밤 한무리의 왜놈군대가 림명고을에 달려들었다.

로일전쟁때 조선에 기여든 일본군 러단장 룡군 소장 이깨다의 수하졸개들이었다.

이깨다는 한해전에 북판대첩비를 처음 보았을 때 비의 모양과 색깔이 아름다운데 우선 감탄을 금할수 없었다. 대리석을 정성껏 다듬어 세운 비의 조화로운 균형미와 대리석비돌의 아름다운 색깔은 거기서 눈을 땔수 없게 하였다.

그러나 비문내용을 더듬어보던 이깨다는 임진년 조선의병들이 왜적을 쳐서 크게 이긴것을 기념하여 세운 비라는것을 알자 몹시 불안해졌다.

이 비가 조선사람들에게 반일감정을 계속 고조시킬것이며 그렇게 되면 일본이 조선을 예측시키는데 불리해진다는 생각이 들었기때문이었다.

이깨다는 오래 생각하다가 마침내 비를 통채로 일본으로 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일제는 조선을 타고앉자 우리 나라 력사유적과 유물을 첫 략탈대상으로 삼았다.

전 조선안의 민족문화유산들에 대한 전면적조사를 감행한데 기초하여 초대 《통감》 이또 히로부미는 조선문화유물조사수집에 관한 령을, 1대 《총독》 데라우찌는 《고전 및 유물보존교칙》을 발표하여 《총독부》의 권력과 군대경찰의 총칼을 동원하여 력사유적과 유물략탈을 《법》적기초우에서 제도적으로 감행할수 있도록 해놓았다.

일제는 1904년부터 2~3년 사이에 개성, 강화도, 해주 등지에서 고려왕릉을 비롯한 약 2 000여기의 고분에 대한 대규모적인 파괴도굴행위를 감행하였으며 단군릉은 물론이고 고려 태조왕릉, 공민왕릉으로부터 시작하여 고려왕릉치고 도굴당하지 않은것은 단 1기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왕릉도굴과 유물략탈을 무차별적으로 감행하였다.

일본군 장교들과 병사들에게도 조선의 문화재를 《수집》하여 본국으로 보낼데 대한 지령이 하달되었다. 이 모든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으며 군부의 지령을 직접 집행하는 위치에 있는 이께다로서는 북판대첩비를 약탈할 결심을 한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기도 하였다.

이께다의 명령을 받은 왜놈병졸들은 밤이 깊어지자 북판대첩비 비각안으로 스며들어가 비돌을 뽑아내어 몰래 감추었다가 포장을 면밀히 한 다음 인천항으로 날라갔다.

정성들여 포장한 그 무거운 물건이 무엇인지는 당시 왜놈병졸들도 몰랐다. 비를 뽑아온 놈이 다르고 포장한 놈이 다르고 인천까지 실어간 놈이 달랐던 까닭에 그 비밀이 엄수되었다.

이께다는 일본으로 가는 룡군중장 요미시에게 부탁하여 북판대첩비를 일본군함에 실어 누구도 모르게 일본으로 빼돌렸다.

림명고을 사람들은 왜놈들이 비를 뽑아간 다음 날 날이 밝은 다음에야 텅 빈 비각앞에 모여들어 울분을 터뜨리었다.

《대체 어느 놈이 비를 뽑아갔나, 응? 도적질할게 없어서 하필이면 돌비석을 훔쳐간단 말인가. 돌비석에서 금이 나오나 쌀이 나오나. 참 모를 일일세.》

《흥, 모를 일두 많겠다. 우리 림명고을에 이 비석을 내놓구 자랑할게 뭐가 있어? 우리 고을자랑이자 나라자랑이구 나라의 큰 보물인데 이 비석을 금이나 쌀에 비긴단 말인가. 금이나 쌀이 산갈아두 이 비석하구는 못 바꾸네.》

《웁은 말일세. 나라의 보물을 도적질해갔으니 그놈은 잡히면 영낙없이 효수를 당할걸세.》

《흥, 그보다 더한걸 백주에 도적질해가는 놈이 있어두 눈섭 한오래 건드리지 못하는 판인데 효수는 무슨 말라빠진 효수인가.》

《아니, 그보다 더한걸 도적질하구두 무사한놈이라니 그게 대체 어떤 놈인가?》

《허... 코구멍 둘씩이나 열렸는데 왜 그렇게 답답한가. 나라두 생으루 도적질당하는 판인데 뭘그러나. 우리 조카녀석이 처가집 상사가 나서 저먼 개성예를 다녀왔는데 내 말 좀 들어보게. 개성이라는데가 원래 고려 500년 도읍지겠다, 가는 곳마다 왕릉이구 탑이구 비석인데 왜놈들이 그걸 다 파헤치구 금은불이를 다 도적질해갔다는구만. 왜놈들이 군대를 풀어 총칼을 쏘나들고 그것을 하는

데 누가 그놈들을 잡아다 효수를 한단 말인가.》
《어허— 기막힌 일로구나! 그러니 북판대첩비도 필시 왜놈들이 도적질해간것이 분명할세.》

《그렇다마다, 그야 불보듯 뻔한 일이지. 어허이구, 무슨 면목으로 선조들의 낫을 대하겠나. 나라가 이 꼴, 고을이 이 꼴이 돼도 하소연할데도 없으니...》

림명고을 사람들이 잃어진 북판대첩비를 두고 가슴을 치며 통탄하고있었으나 당시로서는 이 사건을 맡아 조사하고 해명할 사람이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때가 바로 대궐이 있는 한성 성문앞에 사람들이 거적을 깔고 맨땅에 엎드려 황제에게 《을사5조약》의 폐기와 역적처단을 상소하고 있을 때였다.

아, 상소가 실현되지 않음을 통탄하여 자결로써 대답한 사람이 그 얼마였고 의병을 일으켜 총칼을 들고나선 사람은 그 얼마였으랴.

이렇듯 나라가 통치로 왜놈의 칼에 맞아 기울어져가는 가운데 북판대첩비의 종적도 무심한 세월의 락엽속에 묻혀 더는 알수 없게 되어가고있었다.

아, 력사여 말하라

비가 실종된 때로부터 80년가까운 세월이 흘러간 뒤인 1983년 8월, 일본의 어느 한 신문에 의해 조선의 북판대첩비가 도쿄의 《야스구니진자》한쪽 구석에 내버려져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우리 나라 북과 남의 력사학계와 종교계에서 사실을 조사확인해본 결과 일제가 북판대첩비를 훔쳐다가 군국주의망령이 떠도는 《야스구니진자》의 뒤쪽 구석에 내버려두기만 한것이 아니라 비에 모욕적이고 유치한 물리적조작을 해놓은 사실이 드러나서 온 나라 전체 인민의 민족적의분을 크게 자극하였다.

그게 대체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좀 설명해야 할것이 있다.

조선강점 초기에 일제는 조선에서 장수가 나면 일본이 망한다고 하면서 풍수지리적으로 《장수가 날듯 한 중요한 지혈》들을 찾아다니면서 쇠말뚝을 박는 유치한 놀음을 벌려 조선의 명맥을 영영 끊어놓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왜놈들이 아무리 발악하여도 조종의 산 백두산에서 천출명장들이 나시여 조선을 세기의 상상봉우에 우뚝 올려세우리라는것을 그때 왜놈들이 어찌 상상이나 할수 있었으랴.

원래 왜인들이란 남의 나라 땅에 쇠말뚝을 박을 만큼 그렇게 미개하고 잔악하고 졸렬한 족속들이다. 그런 왜놈들이 조선의 승리의 기상을 어떻게

해서라도 눌러볼가 하여 북판대첩비를 그보다 몇 배나 큰돌로 지질러놓았으니 유치하다고 할지, 가소롭다고 할지, 우직스럽다고 할지, 용렬하다고 할지...

조사과정에 이 사실이 세상에 공개되자 우리 나라의 역사학계와 종교계는 물론 출판보도계와 일반여론이 물끓듯이 끓었다.

북판대첩비를 략탈해간데 대하여 사죄하며 무조건 반환할데 대하여 강하게 요구하였다.

20여년을 끌어오며 이 핑계, 저 핑계하다가 끝내 과학적증거와 논리앞에서 더는 빠져나갈수 없게 된 일제는 북판대첩비를 반환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이리하여 2005년 북판대첩비는 꼭 100년만에 인천항으로 다시 실려왔으며 본래의 위치에 세우기 위하여 이듬해 3월 1일 개성에서 인수식을 거친 후 립명리 제자리에 가져다 세우게 되었다.

비를 제자리에 세우기에 앞서 사회과학원 연구사들이 현지에 나가 비가 섰던 곳을 조사할 때의 일 한가지를 이야기하고 넘어가자.

북판대첩비와 관련한 자료들을 깊이 연구하고 현지에 도착한 연구사들이었지만 비가 서있던 자리를 찾지 못하여 애를 태웠다.

100년이란 그렇게도 긴 세월이었는지 옛 립명역(역참, 공무로 다니는 관리들이 말을 갈아타거나 묵어가던 곳)자리에 많은 인가들이 들어앉았고 자료에는 분명 립명역 남쪽 언덕에 비를 세웠다고 했으나 그 언덕이 어느 곳인지 도저히 찾을수가 없었다.

비가 없어진지도 100년이 지났으니 그때의 사람은 이미 한사람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한 로인으로부터 현재 리인민병원이 자리잡은 곳을 옛날부터 《비각대기》라고 불렀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연구사들은 《비각대기》란 비각이 서있던 더기(언덕)를 이 지방 사투리로 부른 이름이라는것을 추리하자 지체없이 리인민병원 근방을 발굴하는데 달라붙었다.

아니나다를가 리인민병원 앞마당에 있는 발가운데서 기초돌이 발견되었다!

화강석 기초돌에는 비몸돌이 서있던 네모반듯하게 다듬은 자리가 생생히 남아있었다.

2006년 3월 23일, 북판대첩비를 제자리에 세우는 순간에 사람들의 눈굽을 뜨겁게 한것은 비가 실오리만 한 틈새도 없이 꼭 들어맞는다는 사실이었다. 제자리에 세우니 꼭 들어맞을수밖에 없는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도 사람들의 눈굽이 왜 뜨거워졌을까.

아, 100년만에 민족이 힘을 합쳐 되찾아온 북판대첩비!

비만이 아닌 민족의 존엄을 되찾은 이 순간은 과연 어떻게 마련되었던가.

《약소민족》의 나약한 눈물과 한탄을 털어버리고 주먹을 부르치고 일어서서 자기의 힘과 기술로 국력을 최상의 높이에까지 끌어올린 위대한 세기적변혁이 아니었다면 잃었던 민족의 존엄을 어떻게 되찾을수 있었으며 왜놈들이 짓밟아놓은 민족의 역사를 어떻게 바로잡아놓을수 있었으랴.

오늘 북판대첩비는 옛모습대로 서있으나 어제날보다 더 깊은 뜻이 담긴 《말》을 전하면서 우뚝 솟아있다.

북판대첩비는 일제의 죄행을 세상에 고발하는 역사의 증견자로, 우리 인민의 반일애국정신과 억센 기상, 불굴의 투쟁정신을 자랑하는 승전비로 솟아 빛나고있다.

지금도 이 비앞에 서면 왜적을 향해 장점을 높이 휘두르며 돌진해나갔던 북판의병들의 장한 모습이 안겨올뿐아니라 선조들의 애국업적을 길이 빛내이려고 진정을 기울여 비문을 지어남긴 북평사 최창대며 립명고를 로인들이며 비돌을 다듬고 글을 쪼아새긴 석공들의 림름한 모습도 아름답게 비껴온다.

북판대첩비가 전하는 《말》중에서 가장 감동깊은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선군령도의 것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2008년 5월 몸소 북판대첩비를 찾으시였던 이야기이다.

건립된 후 지난 300여년동안 민족의 애국정신과 불굴의 기상을 세상에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우리 민족이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려는 큰뜻을 안고 이 비를 찾으신분은 오직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한분뿐이었다.

지난날 량반통치배들은 북판의병들의 승리를 대첩으로 쳐주지도 않았을뿐더러 용감히 싸운 의병들을 표창할대신 그 공적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는것이 두려워서 임금에게 모함하여 보고를 했던것도 사실이 아니었던가.

그리고 간악한 일제는 조선의 민족정신을 말살할 목적으로 비를 도적질하여 바다 건너 멀리에 내다버렸지만 우리 장군님께서 그것을 찾아가 기어이 제자리에 가져다 세우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어 북판대첩비가 비로소 제자리에 자기 모습으로 우뚝 솟게 하였으니 무심한것을 돌비석같다고 하지만 그런 돌비석인들 어찌 감동에 젖어 소리높이 웨치지 않을것인가.

우리 장군님 제일이시고 우리 민족이 제일이라고...

북판대첩비는 오늘도 래일도 이렇게 웅치며 민족적존엄의 상징으로, 민족정신의 전승비로 세상의 한복판에 우뚝 솟아 빛날것이다.

동남아시아문학발전에 대한 간단한 리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언제나 다른 나라의 문학을 주체적인 립장에서 공정하게 대하여야 하며 좋은것은 허심하게 배울줄도 알아야 한다.》

동남아시아나라들은 비교적 역사가 오랜 나라들로서 이 나라들의 역사발전과정은 류사성을 많이 가지고있다. 오늘 웰남, 라오스, 캄보쟈, 인도네시아, 타이, 만마,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나라들은 신흥세력나라들로서 외래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위하여 적극 떨쳐나서고있다.

이 나라들에서의 문학은 이와 같은 력사적발전과정을 반영하면서 발생발전하여왔다.

동남아시아의 매 나라들은 문학발생과 발전에서 자기의 고유한 특성과 함께 일련의 공통점도 가지고있다. 그 공통점은 문학발전과정을 통해 알수 있다.

동남아시아나라들의 문학발전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볼수 있다.

먼저 동남아시아나라들의 토착문학들이 대부분 민간전통의 형태로 창작되고 계승된것이다.

웰남의 가요들과 캄보쟈의 설화, 타이와 라오스의 민화와 민요, 만마의 농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4행시 등은 원래부터 인민들속에서 발생하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구전문학들이다.

이중에는 그후 문자로 고착되어 문학적가치가 인정된것들도 있다.

다른 아시아문학과 마찬가지로 동남아시아에서도 역시 운문이 산문보다 선행되고 발전한 문학으로 전통적으로 그 량이나 질에 있어서 우위를 차지하여왔다. 운문의 우위는 구전문학뿐아니라 그후의 서사문학에도 잘 나타나있다. 시를 비롯하여 소설과 극, 격언, 속담 지어 종교법어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문학형태들이 운문체로 씌여졌다.

동남아시아문학의 발전에서 다음단계는 외래문화의 영향하에 발전한것이다. 이때의 동남아시아문학은 고대중국과 인디아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결국 두 나라 문화적특성이 해당 나라들의 문학들에서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중국문학의 영향은 특히 웰남에서 농후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여 10~18세기에 한자로 씌여진 시와 기타 산문들이 왕성하게 창작되였다. 그러다가 13세기에 발생하여 18~20세기 전반기에 발달한 웰남고유의 글자-쑤놈에 의해서 웰남문학고유의 면모를 갖추게 되였다. 구옌왕조때의 장편서사시 《단장신성》이 그 대표적작품이다.

타이에서는 19세기에 중국의 《삼국연의》가 번안되었고 그밖에 중국사화들이 많이 번역되면서 일정한 영향을 받았다. 라오스와 캄보쟈 등 나라들에도 중국의 《삼국사》가 들어왔다.

한편 인디아문학의 영향은 라오스, 웰남, 캄보쟈의 불교권은 물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까지 미치였다.

인디아의 고전작품들인 《마하바라타》, 《판차탄트라》, 《라마야나》 등이 여러 문학형태로 번안되어 각국에 전파되였다. 인디아의 불교설화인 《자타카》도 동남아시아나라들에 퍼지며 시와 소설, 연극 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14~15세기경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이슬람화되었으나 문학면에서는 인디아의 힌두, 자바문학에 흡수되었다고 볼수 있다.

중국과 인디아문학의 영향과 함께 동남아시아문학은 이후 중세의 아라비아문화와 근대의 서유럽문화의 영향도 받으면서 발전하였다.

동남아시아문학발전의 세번째 단계는 평민문학의 대대적인 창작이다.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19세기에 이르러 문학을 특권계층으로부터 일반대중에게로 돌리려는 운동이 일어났다.

웰남에서는 구웬주가 그 기수였으며 타이에서는 이보다 늦게 스톤푸가 평민시인으로 활약했고 만마에서는 우친우가 연극을 궁정으로부터 민간으로 옮기는데서 선구자적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문학의 근대화는 서유럽렬강들의 침략과 지배, 그에 따르는 서유럽문화의 영향과 그를 반대하는 작가들의 투쟁과 문예활동속에서 추진되였다. 20세기 전반기에 들어서면서 동남아시아나라들에서 독립운동이 활발히 벌어지면서 인도네시아에는 《신작가》, 웰남에는 《자력문단》 등 문학의 근대화를 지향하는 문학단체들이 조직되고 활발히 움직이였다.

필리핀에서는 오랜 기간 부득이 에스빠냐어와 영어로 작품을 발표해왔으나 1930년대부터는 타갈로그어로도 발표하였다. 1960년대 이후에는 타갈로그문학이 주류를 이루었다. 타이도 20세기에 이르러서는 근대문학의 수법을 익힌 작가들이 배출되어 타이의 현대문단을 장식하였다.

이러한 기초우에서 오늘 동남아시아문학은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와 《세계화》의 영향을 받으며 이러저러한 진통과 우여곡절을 겪고 있으나 자주성을 지향하는 시대와 인민대중의 요구를 반영하며 자기의 독자적인 특성을 살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안 룡 준

정약용과 그의 단편소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자기 민족이 낳은 재능있는 작가, 예술인들을 내세우고 자랑할줄 알아야 한다.》

다산 정약용은 홍량호, 리옥, 박지원, 김려 등과 함께 18세기말~19세기초에 창작활동을 벌린 중세 말기 이름있는 작가들중의 한사람이다.

정약용(1762-1836년)은 리조 후기의 실학자이며 시인이고 작가이다. 정재원의 아들이였다.

1789년 문과에 합격하여 홍문관수찬, 승지, 병조참의 등의 벼슬을 지낸 그는 한때 반대파들로부터 카톨릭교관계자였다고 지목되어 밀려난 후에 충청도 홍주의 금정찰방, 황해도 곡산부사 등을 하였다. 1801년 카톨릭교도들을 처단한 《신유사옥》에 걸려들어 그 런루자로서 경상도 장기, 전라도 강진 등지에서 18년동안 귀양살이를 하였다.

그는 이 시기 농촌생활을 직접 보고 자기의 실학적견해를 더욱 심화시킬수 있었다.

1818년 귀양살이에서 풀려나온 후 정약용은 벼슬살이와 인연을 끊고 여러 부문의 학문연구와 저술사업에 더욱 힘썼다. 그는 자연과학 특히 농업, 방직, 선박건조 및 교량건설, 성건축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연구사업을 진행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정약용은 우리 나라의 력사, 지리, 언어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하여 그것을 상당한 높이에서 발전시켰으며 당시로서는 진보적인 견해와 일련의 제안들을 제기하였다.

정약용은 창작에서 《뜻》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모방주의, 형식주의를 반대하였으며 여러 시들을 통하여 당시 사회의 부패한 모습과 모순을 비판폭로하였다. 그는 2 400여편의 시문을 남기였다.

그는 산문분야에도 뚜렷한 흔적을 남긴 작가였다. 정약용은 소설창작을 반대하였지만 그 역시 여러편의 소설들을 창작함으로써 당시 부패한 리조봉건사회제도의 부패한 모습을 비판폭로하고 우리 인민의 높은 재능을 보여주었다. 그의 대표적인 단편소설은 《죽대선생전》, 《장천용전》, 《몽수전》 등이다.

단편소설 《죽대선생전》은 당대 봉건통치배들의 알뜰과 부패한 모습을 비판폭로하고 이에 항거하는 인민들의 투쟁을 반영한 작품으로서 그의 소설들가운데서 사회비판적성격이 가장 강한 소설이라고 말할수 있다.

소설은 크게 네개의 부분으로 구성되고있다.

첫 부분에서는 죽대선생의 가정배력을 소개하고 있으며 둘째 부분에서는 봉건통치배들의 알뜰과 부패한 모습을 폭로하고있다. 셋째 부분에서는 이에 항거하는 주인공과 그의 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마지막부분에서는 주인공의 운명을 매듭짓고있다.

이 소설에서는 우선 봉건통치배들의 알뜰과 부패한 모습, 전횡이 여지없이 폭로되고있다. 이것은 리기경, 목만중, 홍희운 등 봉건통치배들의 형상을 통하여 밝혀지고있다.

신유년 가을에 목만중, 홍희운, 리기경 등 봉건관료들이 사람들을 마음대로 죽이고 살릴수 있는 무서운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자들은 매일같이 죄없는 관리들과 진보적경향을 가진 문인들을 학살하지 않으면 외지로 추방하였다. 이자들은 나아가서 작품의 주인공 죽대선생을 데려다가 후하게 대우한 채정승을 몰아내기 위하여 갖은 비렬한 책동을 다했다. 특히 이놈들은 자기들의 명령을 조금이라도 회피하는자가 있으면 카톨릭교도로 몰아 《호랑이처럼 으르렁거리면서 개, 돼지와 마찬가지로》 옥박질렀다.

그중에서 리기경은 채정승을 구원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주인공을 체포하여서는 형조에 넘겨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 가혹하게 고문을 하다가 단성현으로 류배를 보내는 잔인한자이다.

소설에서는 리기경, 목만중, 홍희운 등을 사람들을 마음대로 잡아죽이고 갖은 만행을 일삼는 악마, 교활하고 비렬한 음모가, 권세욕에 불타는 야심가로 락인하고있다.

작품에서는 이자들의 형상을 통하여 권력다툼으로 소란해질대로 소란해진 당시 리조봉건사회와 봉건관료들의 부패성, 만행의 일단을 여지없이 비판폭로하고있다.

소설에서는 또한 봉건통치배들의 전횡과 만행에 항거해나서는 인물성격도 창조하였다. 작품에서 죽대선생과 그의 딸의 형상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죽대선생이란 리공 종화의 별호이다. 가난한 세간살이에 품전이 없는탓으로 가는 대를 짧게 끊어 이것을 노끈에 꿰어 갓끈으로도 하고 띠도 만들어 띠였기때문에 젊은이들이 그를 죽대선생이라 불렀다.

그의 조상은 한산사람이였는데 리색의 후손이였다. 그는 형편이 몹시 가난하여 자기가 거처할 집도 없어서 일찌기 빈암 채정승의 가문에서 얹혀살고있었다. 채정승도 그를 후하게 대하였다. 채정승의 가문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그의 인품을 만만히 여겨 아주 무능하고 궁한 늙은이로만 간주하였다.

이처럼 당시 사람들이 아주 무능하게 여기고있었던 가난한 죽대선생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봉건통치배들과 완강히 맞서싸운다.

그는 리기경 등 봉건악질관료들의 죄행을 폭로하는 글을 써서 발표하였으며 악당들이 채정승의 명예를 계속 훼손하려들자 밤낮으로 애쓰다가 그만 쓰러져 건지 못할 형편에 이른다. 하지만 걸음도 옮기지 못할 형편에 있던 죽대선생은 어느날 별

떡 일어나서 놈들에게로 찾아가 단호히 호령한다.

소설에서는 이렇게 쓰고있다.

《그는 꾸짖어 말하기를 <이 개같은 놈들아! 이게 무슨짓들이냐? 너희들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가 모두 채정승의 혜택을 입은터였는데 너희들이 차마 이럴수 있느냐? 이 역적놈들아! 어찌 나를 먼저 죽이지 못하느냐?> 하면서 앞으로 달려가 그들이 쓰고있는 상소문을 빼앗아 찢어서 꾸기여 입으로 씹어서 발로 밟개버린 다음 붓이며 버루며 술병들을 닥치는대로 차엎어버리고 울부짖으면서 꾸짖어대다가 나왔다. 별안간의 이 행동앞에 모였던자들은 기가 꺾이여 얼굴빛이 새파랗게 질려서 감히 한마디의 말도 입밖에 내지 못하였다.》

이처럼 소설에서는 당시 봉건관료들이 악당들의 전형앞에 벌벌 떨며 뿔어오르려 빌면서 이자들의 호령을 공손히 받아들일 때 이놈들과 당당하게 맞서싸우는 주인공의 완강한 행동을 통하여 당시 봉건통치배들에게 항거하는 민심의 일단을 반영하였다.

물론 이 소설에서의 죽대선생의 항거는 당시 반동적인 봉건통치사회와 봉건통치배들전체가 아니라 채정승을 모함하러드는 악당들과의 싸움에 머무르고있는 부족점이 있는것만은 사실이다. 그는 량반통치사회와 부패한 봉건통치배들전체와 싸우는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량반을 구원하기 위하여 리기경, 홍희운 등 악당들과 맞선다. 이것은 죽대선생의 투쟁이 매우 소극적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하지만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악당들과 당당히 맞서싸우는 주인공의 강한 항거는 당대 봉건통치배들에 대한 처주와 증오의 심정을 반영한것으로서 의의가 있는것이다.

봉건량반들의 전형에 항거하는것은 소설에서 죽대선생의 딸의 형상을 통해서도 찾아볼수 있다.

그는 아버지를 류배지로 보낸 리기경을 복수하기 위하여 칼을 들고 이놈과 맞서싸움으로써 놈들을 전률케 한다.

이처럼 소설에서는 당시 작품들에서는 보기드문 봉건통치배들에 대한 인민들의 적극적이며 완강한 반항을 정면에서 통쾌하게 그리고있다.

단편소설 《몽수전》과 《장천용전》에서는 주인공들의 형상을 통하여 당시 우리 인민들이 지닌 높은 재능을 찬양하고있다.

《몽수전》에서는 올미년 봄에 당시에 류행되던 홍역을 치료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병마로부터 구원한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인간은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된다는 문제를 취급하면서 우리 인민이 지닌 높은 재능을 찬양하여 보여주고있다. 《장천용전》에서는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 인민이 지닌 예술적기량을 자랑하고있다. 이처럼 정약용의 작품들에서는 당대 봉건사회와 봉건량반들의 전형과 부패한 모습을 비판폭로하고 이에 항거하는 인민들의 반항투쟁과 우리 인민들이 지닌 재능을 찬양하고있다.

일반적으로 정약용의 소설들은 당시 사회적으로 의의있는 문제들을 주제로 하고있으며 등장인물들의 성격도 개성이 있게 형성되고있다. 또한 이야기 줄거리가 명확하고 짜여있는것이 특징적이다.

하지만 그의 소설들에는 당시 사회와 봉건통치배들에 대한 인민대중의 반항투쟁을 계급투쟁의 원칙에 맞게 옳게 보여주지 못한 제한성이 나타나고있다. 또한 일부 주인공들의 성격(《장천용전》에서의 장생)형상에서 전형성이 부족한 결함도 나타나고있다. 그리고 정약용의 소설들은 일반 전기산문의 틀거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하지만 다산 정약용의 소설들은 봉건사회 말기의 사회형편과 봉건통치배들의 전형과 부패한 모습을 비판폭로하고 우리 인민의 재능을 찬양한것으로 하여 당시 소설의 발전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으며 우리 중세소설문학유산을 풍부히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최 준 희

상 식

새로운 인쇄잉크 개발

어느 한 나라의 연구센터가 한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과정에서 24시간안에 자연적으로 지워지는 새로운 인쇄잉크를 개발하였다고 한다. 이 인쇄잉크로 인쇄한 글자는 24시간안에 자연적으로 지워져 종이는 본래의 백지상태로 된다고 한다.

새로 개발한 인쇄잉크는 분자로 구성된 새형의 감광재료로서 자외선을 쬌이면 색깔이 점차 없어진다.

이 잉크로 인쇄한 문건은 일반잉크로 인쇄한 문건이나 레이자 인쇄문건과 별로 차이가 없이

선명하다고 한다. 좀 다르다면 글자의 색깔이 검은색이 아니라 짙은 자주색이라는것이다.

문건이 인쇄되어나오면 잉크안의 분자가 주변의 공기와 온도의 영향을 받아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잉크의 색깔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희미해진다. 약 하루가 지나면 종이에 아무런 글자도 보이지 않고 흰 바탕색만 남게 된다.

종이는 주름살이 생기지 않는 한 30차례 반복하여 리용할수 있다고 한다.

을 밀 장 군 과 을 밀 대

6세기 중엽 고구려 평양성 내성의 북쪽 장대로 세운 을밀대에는 을밀장군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전설이 깃들어있다.

을밀장군은 뛰어난 무술과 용맹, 슬기로운 지략으로 평양을 먹차고 달려드는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싸움에서 큰 공을 세워 인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세월은 흘러 로년기에 이르게 되자 을밀장군은 아들인 나래를 비롯한 많은 젊은이들에게 무술을 배워주었고 일정한 수준에 이른 다음에는 3년 석달을 말미로 산중에 보내어 무술을 익히도록 하였다.

나래는 아버지의 곁을 떠나면서 사랑하는 처녀 고비에게 아버지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들이 산중에서 무술을 배우기 시작한지 몇해가 지난 어느날 뜻밖에 외래침략자들이 평양에 쳐들어왔다.

을밀장군은 이미 늙은 몸이라 싸움을 지휘하기가 여간만 어렵지 않았다.

남북차림으로 장군결에서 싸우던 고비가 무술을 닦으러 떠난 젊은이들을 불러오자고 간청하였으나 그때마다 을밀장군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자고 큰뜻을 버려서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장검을 뽑아들고 말에 올라 대오를 이끌고 적진으로 쳐들어가 외적을 삼대 쓰러놓히듯 무찔렀다.

그런데 을밀장군이 싸움에서 그만 중상을 입게 되었다.

렴탁군을 통해 을밀장군이 자리에 누웠다는 것을 안 외적들은 기를 쓰며 달려들었다.

늙은이의 이런 상태를 보고받은 을밀장군은 투구와 갑옷을 갖추어입고 모란봉에 올라 결사전을 조직하였다.

치열한 싸움의 나날이 계속되었다. 그런 속에서 을밀장군은 또다시 치명상을 입고 의식을 잃었다.

고비는 더 생각할 겨를이 없이 말을 달려 무술을 닦고있는 나래와 젊은이들에게로 갔다. 그는 무술터에 당도하여 평양성의 소식을 전하고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나래와 평양성의 젊은이들은 갑옷을 입고 평양성으로 달려왔다. 평양에 도착하여 장군지휘처를 바라보니 거기에는 장군기가 나뭇기고있었다.

나래와 젊은 장수들은 순식간에 외적을 무찌르고 승리의 북소리 울리며 모란봉으로 올랐다.

그들이 장군앞에 가니 벌써 을밀장군은 숨을 거두고 누워있었다.

한 늙은이가 젊은이들앞으로 나서며 《장군은 이미 이틀전에 돌아가셨소. 하지만 장군은 외적들을 쳐물리치기 전에는 자신을 여기에 그냥 있게 해달라고 유언하셨소.》라고 말하면서 후후 흐느껴 울었다.

《아버님!》

《장군!》

나래와 젊은 장수들은 을밀장군을 목놓아 부르며 그의 뜻을 이어갈 굳은 맹세를 다지였다.

평양사람들은 을밀장군의 위훈을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해 장군이 지휘처로 정하였던 모란봉 봉우리에 정자를 세우고 《을밀대》라고 그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세계작가일화

보 알 로 의 인 정 미

프랑스의 시인이며 평론가인 보알로(1636—1711)는 지성을 귀중히 여기는 남다른 인정미로 하여 사람들속에 이름을 남기었다.

학자로 소문난 빠르는 너무도 가난에 쪼들려 입에 풀칠할 형편이 못되자 그동안 힘을 들여 구해가지고 애독하던 서재안의 귀중한 책들을 하나하나 눈물을 머금고 팔기 시작하였다.

이 경매광고가 나가자 그것을 본 보알로는 즉시 그한테로 달려왔다. 책과 헤어지자니 너무도 안타까와 눈물이 글썽해있는 학자에게 다가간 보알로는 물었다.

《학자선생이 팔겠다고 한 책의 값이 모두 얼마입니까?》

《한 7천프랑정도 받고싶은데요.》

《그렇게 귀한 책들을 너무 늦게 파는구만요. 내가 한 1만프랑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보알로는 인차 돈을 꺼내놓았다. 빠르는 예상외로 많은 돈을 받게 되자 감사의 표시로 그에게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다 털어놓았다.

《이렇게 많은 돈을 주시니 대단히 고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책들과 헤어지자니 사랑하는 자식들을 잃는것만큼이나 가슴아픈 일이지만 평론가인 당신이 가져가시겠다니 좀 위로가 됩니다. 그럼 언제쯤 이 책들을 가져가실 작정입니까?》

《당신이 천당으로 갈 때에 가지러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당신한테 꼭 보관해두겠습니다.》

보알로는 작별인사를 나누고 곧 헤어졌다.

멀리 사라지는 그의 뒤모습을 바라보고있던 빠르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세상에 이렇게 인정 많고 지성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는가!

《 정 석 가 》

고려 국어가요. 작가와 창작년대는 밝혀져있지 않다. 《악장가사》와 《속악가사》 등에 실려있다.

가요는 모두 6개의 분절로 되어있는데 첫 분절은 머리시에 해당한다. 시의 마지막분절에는 《서경별곡》에서 님에 대한 번치 앓을 사람의 신의를 노래한 구절이 그대로 도입되고있다. 가요에는 로동생활의 구체적인 체험에서 흘러나오는 다감하고도 진취적인 사랑의 감정,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생활에 대한 소박하면서도 열정적인 지향이 반영되어있다. 가요는 첫시작에서부터 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랑의 꽃을 피우며 행복한 생활을 창조해나가려는 서정적주인공의 아름다운 정신세계와 지향을 다양한 비유적수법으로 생동하게 펼쳐보여준다. 가요의 첫 절에서는 곱고 가는 모래벼랑에 구운 밤 닻되를 심고 그 밤에 움이 트고 싹이 날 때까지 님과 함께 살리라고 노래하고 있다. 가요의 다음 절들은 옥으로 새긴 아름다운

꽃을 바위에 붙이고 그 꽃이 세번 다시 피여날 때까지, 철사로 주름잡은 무쇠옷을 만들고 그 옷을 입어 판날 때까지, 무쇠로 부어 만든 무쇠소를 무쇠산에 놓아두고 그 소가 살아나서 무쇠풀을 먹을 때까지 님과 함께 살리라는 상징적이며 재치있는 비유의 수법을 통하여 로동속에서 움터 역세계 자라나는 서정적주인공의 깨끗한 련정의 세계와 구김새없는 생활감정을 강조하여준다. 가요는 구체적인 로동생활을 바탕으로 하여 서정적주인공의 내면세계를 펼쳐보임으로써 마지막분절로 인용된 《서경별곡》의 시구에도 생활적타당성을 주며 그 다감한 정서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게 한다. 이런 점에서 《정석가》는 《서경별곡》, 《가시리》 등 다른 고려 국어가요작품들과 구별되는 사상예술적특성을 가지며 고려시기에 창작된 국어가요작품들가운데서 독특한 자리를 차지한다.

찬란한 문화, 슬기로운 인민

보 통 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세상에 널리 자랑할만 한 문화적재부를 창조하였다.》

고구려 평양성의 중성의 서문인 보통문은 오늘까지 남아있는 우리 나라 성곽건물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문루의 하나로서 평양시 중구역 보통문동에 자리잡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찌기 보통문이 훌륭한 건축술로 잘 지은 건물이라고 하시면서 귀중한 력사유물로 잘 보존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였다.

이 문은 옛날에 서북국경인 평안북도 의주로 통하던 관문으로서 남으로 서울로 통하는 대동문과 함께 평양성의 가장 중요한 성문의 하나였다.

보통문은 처음 6세기 중엽에 고구려 평양성 내성의 서문으로 세워졌다. 그후 1406년에 평양성을 개축하면서 고쳐지었고 지금 있는 건물은 1473년에 다시 고쳐 세운것이다.

보통문은 《평양8경》의 하나로서 옛날에는 한때 《우양관》이라고도 불렸다. 그것은 보통문이 동쪽은 만수대에서 남으로 뻗은 언덕을 가까이 하고 서쪽은 보통강을 건너 넓은 보통벌이 훤히 트인 곳이 있어 아침해가 늦고 짙

은 반면에 저녁에는 별판 저쪽 먼 산우에 지는 해가 마치 아침해같이처럼 시원한감을 주므로 《해(아침해)를 다시 본다》는 뜻에서 온 이름이다. 그후 이 성문이 보통강을 끼고있기때문에 보통문이라고 불렸다.

고려건축양식을 많이 보여주고있는 이 건물은 웅장하면서도 균형이 잘 짜인 아름다운 건물이다.

보통문은 화강석을 다듬어쌓은 축대와 그 위에 세운 2층문루로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위해 싸운 슬기로운 이야기가 깃들어있다.

임진조국전쟁때 용감한 우리 인민들과 군인들은 이 문으로 돌입하여 성안에 일시 도사리고있던 적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뿐만아니라 지난 조국해방전쟁때인 주체41(1952)년 여름에 미제의 폭격으로 보통문이 불길에 휩싸이게 되었을 때 평양시민들은 희생적으로 불을 끄고 이 건물을 살려냈다.

유구한 력사의 도시—평양과 함께 고구려, 고려, 리조 그리고 오늘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보통문은 우리 나라의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으로서 국보로 잘 보존관리되고있으며 력사학자들의 평양성연구에서 가치있는 중요한 자료로 되고있다.

리 순 철

로사의 사실주의

1935년 베이징의 한 거리에는 분주히 걸음을 재촉하는 중년사나이가 있었다. 물이 날긴 했으나 단정하게 차려입은 외투며 머리우에 틀잡히게 올려놓은 중절모, 목깃사이로 비스듬히 건너간 명주 목도리 등으로 보아 세파에 부대끼는 사람 같지는 않았다.

사나이가 베이징의 남문 성벽귀퉁이를 돌아갈 때 마주오던 한 행인이 소리를 치며 찾았다.

《로사(중국의 소설가, 1899—1966년) 선생님, 참 오래간만입니다.》

행인의 찾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춘 로사는 얼굴을 돌리며 반색했다.

《아, 조우군인가? 청화대학 연구생으로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제 졸업했겠지? 그래, 지금은 무슨 작품을 쓰나?》

《한 작품을 준비하는중인데 잘되지 않습니다.》

《원, 겸손한 소리. 자네의 실력이야 내가 잘 알지. 자네가 창작한 회곡 〈퇴우〉는 지금도 사람들속에서 큰 파문을 일으키고있네. 그 문학적명성을 유지하길 바라네.》

자기보다 11살이나 우인 로사인지라 조우는 경어를 쓰며 어쭙게 뒤말을 이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어디로 그리 급히 가시는 길입니까?》

《나 말인가? 지금 상자가 달린 거리를 시간적으로 측정해보는중이네.》

《상자라니?》

《음, 그건 내 장편소설에 등장하게 될 주인공 청년일세.》

로사의 말에 어처구니가 없다는듯 조우는 설레설레 머리를 저으며 말했다.

《선생님은 통질도 끝잘 하십니다. 그렇지 않아

도 시간이 바쁘시겠는데.》

《이건 통질이 아니네. 물론 그럴듯하게 꾸며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사람들을 진실로 공감시키자면 세부 하나, 표현 하나도 허투루 써서는 안되네. 하나의 잘못된 표현때문에 사람들에게 거짓말쟁이로 평가될수 있네. 사실주의적진실성의 힘은 보다 명확한 과학성과 정확성에 있네.》

마디마디 울리는 로사의 말은 조우의 가슴속에 지울수 없는 인장처럼 새겨졌다.

《참, 선생님의 창작태도는 여전하십니다. 저도 선생님의 그 자세를 따라야 할가봅니다.》

《자, 그럼 다시 만나자구. 잘 가게.》

인사를 나눈 로사는 바쁜듯이 손목시계를 일별해보고는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이날 로사의 말은 통질이 아니었다. 장편소설 《인력거군 상자》의 창작에 앞서 로사는 베이징 시략도를 상세하게 그리고 주인공 상자가 거주하는 인화차점과 조선생, 양선생네 집, 특무 손가에게 인력거를 빼앗긴 자리, 상자가 오가는 주요도로 그리고 상자가 군대들에게 끌려다니다가 약대 3마리를 끌고 도주한 로정을 일일이 표식해넣었다. 그리고는 실지 현지답사를 해보며 시간도 측정해보고 새로 발견한 세부들도 정리해두었다. 이러한 작가적인 탐구와 창작자세가 있어 그의 작품들은 독자들속에서 높은 호평을 받았으며 사람들은 그의 작품에 나오는 형상이나 세부들을 진실로 믿게 되었다.

로사가 얼마나 사실주의적진실성에 주의를 돌렸는가 하는것은 그가 창작한 작품들이 그가 태어나고 생활한 고향 베이징을 무대로 하고있는데서도 충분히 엿볼수 있다.